

제6회 동학농민혁명 학술회의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기포의 의의

일시 : 2010년 11월 4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고창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 극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고창군

학술대회 일정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기포의 의의

13:30~14:00 개회식

개회인사 : 이강수 (고창군수)

기념사 : 김영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축사 : 이만우 (고창군의회 의장)

14:00~15:00 제1부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

- 사회 : 홍성덕 (전주대학교)

-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지의 역사적 의의
 - 배항섭 (고려대학교)
- 무장기포 이후 동학농민군 진격로 재조명
 -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5:00~15:15 중간휴식

15:15~16:45 제2부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 활용 방안

- 사회 : 홍성덕 (전주대학교)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
 - 신순철 (원광대학교)
-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 이상균 (전주대학교)
-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
 - 김양식 (충북개발연구원)

16:45~17:00 중간휴식

17:00~18:00 종합토론

- 토론좌장 :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

박맹수 (원광대학교)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조법중 (우석대학교)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희태 (전라남도청)

목 차

제1부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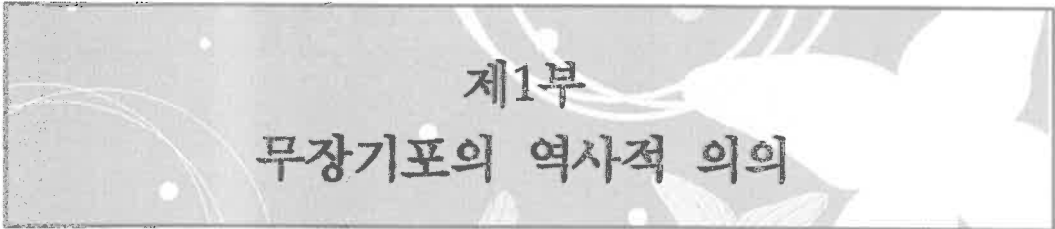
- [발표 1]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 3
배항섭(고려대학교)
- [발표 2] 무장기포 이후 동학농민군 진격로 재조명 35
진윤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2부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 활용 방안

- [발표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 55
신순철(원광대학교)
- [발표 4]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75
이상균(전주대학교)
- [발표 5]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93
김양식(충북개발연구원)

종합토론

- [토론 1]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토론 109
박맹수(원광대학교)
- [토론 2] 「무장기포 이후 동학농민군 진격로 재조명」에 대한 토론 113
문병학((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토론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117
조법중(우석대학교)
- [토론 4]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에 대한 토론 119
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토론 5]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 121
김희태(전라남도청)



제1부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

[발표1]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
배항섭 (고려대학교)

[발표2] 무장기포 이후 동학농민군 진격로 재조명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지의 역사적 의의

배 항 섭
(고려대학교)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지의 역사적 의의

배 항 섭(고려대학교)

- I. 19세기 민중운동의 흐름 : 민란과 변란
- II. 동학교세의 확산과 변혁지향세력의 입도
- III. 척왜양운동의 전개와 거병 기도
- IV. 〈사발통문 거사계획〉·〈고부민란〉과 “농민혁명” 기도
- V.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기포의 의의

I. 19세기 민중운동의 흐름 : 민란과 변란

1. 민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19세기의 민중운동을 대표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란(民擾)과 병대를 동원하여 일으키는 병란(變亂)을 들 수 있다. 19세기 이전에도 임격정(林巨正)의 난(1559-1562), 효종대 장길산(張吉山)의 활동, 정여립(鄭汝立)의 난(1589년), 이인좌의(李麟佐)의 난(1728년) 등 민란과 유사한 민중운동이 있었지만, 그 횟수가 매우 적었다. 또 농민층이 중심이 된 19세기의 민란과 달리 대체로 천민신분집단이 중심이 되거나 정쟁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정치적 모반의 성격이 농후하였다.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란의 경우 평안도 지역의 농민들이 대거 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반란들과 차이가 있지만, 오랜 기간 준비하였다는 점, 정감록(鄭鑑錄)을 활용하였다는 점, 처음부터 병란의 성격을 띠는 점 등에서 다음에 서술할 변란과 유사한 면이 강하였다. 역시 농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폐민막(邑幣民瘼)의 개혁을 요구하며 농민이 주체가 되어 일으킨 19세기의 민란과 중요한 차이를 보여준다.

민란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빈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62년에는 전국 70여개 군현에서 민란이 발발하였다(壬戌民亂). 민란의 발생지역은 주로 경상·전라·충청도 등 삼남 지방에 집중되었다. 이 가운데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진원지가 되는 전라도의 경우 전체 54개 군현 가운데 2/3 정도인 38개 군현에서 발발하였다.

민란의 초기단계를 주도한 것은 당시 요호부민(饒戶富民)이라고 지칭되던 계층이었다. 요호부민에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재지의 양반지주층, 양반은 아니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해나갔던 계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자는 지방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사회적 위세를 기반으로 종래 국세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인정받아왔으나, 재지사족들이 향촌사회의 지배체제로부터 점차 소외되고 수령권이 강화되어 가면서 일반농민과 마찬가지로 지방관리들의 수탈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 수령이나 이서배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부류도 있었지만, 할당된 국세를 수취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지방관에게는 가난한 농민들보다 이들이 손쉬운 수탈대상이 되었다.

민란은 지방관과 이서배의 농간이나 부정으로 인하여 부세부담이 가중되는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요호부민이 주도하여 통문(通文)을 돌리고 향회(鄉會)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국세문제는 곧 자신의 현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였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촌락이나 주민에게는 벌전(罰錢)을 부과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동원하기도 했다. 향회를 통해 요구조건을 마련하고 지방관에게 정소(呈訴=等訴)를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관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도자를 색출하여 체포하였다. 민란이 폭발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였다. 폭력투쟁을 주도하는 계층은 초기와 달리 빈농·소농이었다. 대부분의 요호부민들은 구래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폭력투쟁까지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빈농과 小農은 달랐다. 분노한 농민들은 농기구나 죽창 등으로 무장하고 부패한 이서배를 죽이거나 평판이 나쁜 양반지주의 집을 파괴, 방화하였다. 이어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난민들이 지방관을 축출하고 이서나 면임 등 지방관아의 하부구성원을 임명하는 등 독자적으로 읍권(邑權)을 행사하거나 공세(公稅)를 거두기도 하는 등 지방관과 이서배의 수탈 및 부당한 국세수취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러나 민란 주체의 의식은 여전히 성리학적 세계관 속에 갇혀 있었으며, 국왕을 덕정의 시혜자로 성역시하였다. 따라서 난민들은 수취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수취

제도를 국왕이 정해놓은 법대로 운용하고 법에 정해놓은 액수만큼만 수취해갈 것을 요구 하였으며, 행동의 범위도 고을 단위에 국한되어 있었다. 물론 왕법(王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수탈하는 지방관을 부정하여 추방하기는 하였고, 일부지역에서는 민란이 수 차례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수령에 대해서는 국왕을 대신하여 파견 된 목민관(牧民官)이라는 점을 의식하여 구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신임 지방관이 나 선무사(宣撫使) 등이 파견되면 스스로 민란을 종식하고 귀가하는 행동양태를 보였다.

농민들은 다양한 개혁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요체는 무엇보다 민중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그들의 생활이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곧 부세수취 제도의 모순과 그에 기생하는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수탈에 반대에 있었다. 이는 민란에 주민들을 참여 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고, 1860년 이후 전국에 걸쳐 민란이 이처럼 빈발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민란은 1862년 이후 1893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빈발하였으며, 많게는 연간 10-20회 정도의 민란이 분출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내건 요구조건은 기본적으로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 때까지 이어졌다. 발통취회→정소→봉기로 이어지는 전개과정, 고을 단위에 한정 된 투쟁공간, 부세문제와 관련된 읍폐교구(邑弊矯揉)가 중심이 된 투쟁구호, 주로 부민가에 대한 공격이나 이서배의 살상 등으로 나타나는 투쟁양상 등은 여전하였다. 또한 개항 이후가 되면 '반봉건'뿐만 아니라 '반외세'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었지만, 민란에서는 '반외세'와 관련된 구호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었다.

2. 변란

일부의 '저항적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기도한 각종 '변란' 역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민중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변란은 그 이전 시기에도 없지 않았지만, 특히 186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빈발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光陽亂(1869)과 李弼濟亂(1871)을 들 수 있다.

변란의 발생은 통치기강이 문란해지고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조선사회 내부의 모순과 이양선이 출몰 등으로 대외적 위기의식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모순의 심화와 통치기강의 문란 속에서 관직 진출이 좌절되고 경제적 기반도 없던 寒儒·貧士層 가운데 일부는 향촌사회 내부에서 邑弊와 民瘼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 하기도 하였지만, 그 마저 여의치 않게 되었을 때 "濟世安民"의 뜻을 품고 향촌사회를

떠나 훈장·의원·약장수·지관 등을 생업으로 삼아 각지를 편력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동지를 만난 이들은 사회적 불안을 배경으로 민간에 널리 퍼져 있던 정감록류의 비기와 이단사상을 이념적 무기로 받아들이고, 빈민·유랑민 등을 동원하여 兵亂을 기도하였다. 변란은 조직과 의식면에서 민란과 차이가 있었다. 우선 주도층이나 참여층이 특정 고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을 단위를 벗어난 지역 간에 연계된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또 동일한 인물이나 주도층이 일회적인 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 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차례의 변란을 연속적으로 시도하였다. 투쟁의 목표 역시 邑弊의 개혁이나 수령과 吏胥輩를 懲治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를 전복하고 중앙권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또 이 시기 변란의 발생은 ‘西勢東漸’에 따른 대외적 위기의식을 중요한 토양으로 하였던 만큼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단초적으로나마 반외세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변란이 민란과 달리 조직과 이념면에서 외형적으로는 이미 동학농민전쟁 단계의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반외세 주장은 여전히 화이론적 세계관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변란 주체층의 활동은 생산활동이나 향촌사회와는 유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통해 사회적 모순의 타파를 열망하고 있던 민중들의 지향을 수용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변란의 주모자들은 三公六卿을 미리 정해두기도 할 정도로 강한 狹官적(獵官的)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이 내건 ‘왕조타도’라는 목표도 당시 민중들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었다. 따라서 변란세력과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의 결합레온 치명적인 한계를 있었으며, 조직적 기반은 머리만 있고 발은 없는 불구적(不具的)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변란은 개항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도되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노정함으로써 거사에 성공할 수 없었다.

3. 새로운 가능성 : 동학의 확산

19세기 후반이 되면 변란세력 가운데서도 점차 민란에서 분출되는 폭발적인 힘을 포착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거사하려고 하는 등 민중과의 결합을 통한 한 단계 진전된 민중운동을 모색해나가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그러한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 광양란(1869)과 이필제란(1871)이다. 이필제는 진주작변에서 “만약 거사하려면 대의로써 팔방에 포고하고 인의지사(仁義之師를) 행하여 민심을 무휼한 연후라야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한 점과 마찬가지로 거사의 성공에는 무엇보다 농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또한 광양란에서 민회행도 “이번 거사에 8도가 모두 호응하여 한번 방포하면 경각에 수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진주민란을 전범으로 삼되 전국차원의 거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며, 고부민란을 전라도 일대로 확산하고 그 힘을 모아 중앙권력을 타도하려 했던 전봉준의 봉기계획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요컨대 1862년의 농민항쟁을 겪으면서 변란의 주도층은 점차 농민들 속에 내재해 있는 폭발적인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제 문제는 변란의 주체들이 비로소 발견해낸 농민의 저항력을 어떻게 자기들의 호응 세력으로 끌어들이느냐는 것이었다. 민란과 변란은 19세기에 들어 줄기차게 발발하였으나, 전국적인 항쟁으로 발전하기에는 각기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민란과 변란이 새로운 차원의 항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란이 획득한 반외세적인 이념과 조직의 지역 간 연계성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민란과 같이 농민들과 정서적 공감을 마련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요구나 불만을 수용하여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향촌사회 내부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점에서 동학의 창도와 교세의 확산은 주목된다.

II. 동학교세의 확산과 변혁지향세력의 입도

동학은 1860년에 창도되었으나, 조정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18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강원도와 경상도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은밀히 포교되어 왔다. 그러나 1883년 공주 목천군 金殷卿의 집에 동경대전 간행소를 세운 이래 강원도의 산간지방을 벗어나 충청지방으로 진출하면서 동학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했다.¹⁾ 1886년에는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 경기도에서까지 교도들이 몰려들었다.²⁾ 교세는 189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대에 들어 더욱 급격히 성장하였다.³⁾

1) 박맹수, 1993, 「동학의 교단조직과 지도체제의 변천」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참조.

2) 「天道教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壹)』(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9, 이하 생략), 412쪽.

3) 「天道教會史草稿」, 432쪽. 이러한 사실은 최근 발견된 남원교구의 『殉教略歷』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에는 남원지방에서 순교한 순교자에 대한 약력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894년 이전에 입도한 교도가 76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1888년 1명, 1889년 11명, 1891년 21명, 1892년 11명, 1893년 14명, 1894년 13명, 1888년에서 1894년 사이로 추정되는 교도가 4명이어서, 89년 이

이 무렵 급격히 증가한 호남지방의 교도들 가운데는 道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변혁지향 교도들이 적지 않았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교도들의 입도는 주로 무장·고창·영광·홍덕·고부·부안·정읍·태인·전주·금구 등 훗날 농민혁명의 중심세력이 형성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전봉준이 동학에 입도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⁴⁾ 전봉준은 동학에 입도한 이유에 대해 동학은 守心하여 충효로써 본을 삼아 輔國安民하자는 것으로, ‘守心敬天’이라는 敎義를 매우 좋아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⁵⁾ 또 일본영사가 취조하는 다른 자리에서도 동학에 입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輔國安民이라는 동학당의 主義에 동감하고 있던 바 … 단지 마음을 바로 한다는 것 때문이라면 물론 동학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동학당의 소위 ‘敬天守心’이라는 主意에서 생각할 때는 正心 외에 ‘협동일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結黨하는 것의 중요함을 본다. 마음을 바로 한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탓이다.⁶⁾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봉준이 이미 동학에 입도할 무렵부터 탐관오리를 축출하고 보국안민의 대업을 이루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동학에 입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동학의 보국안민 사상에 공감하였고, 확산되고 있던 동학에서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즉 마음을 바로 한 자들끼리의 ‘협동일치’와 ‘결당’의 가능성을 포착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輔國安民이라는 입장에서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동학은 국지성과 고립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던 민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거기에는 마음을 바로한 자들, 곧 보국안민의

후에 교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南原教區, 1923, 『殉教略歷』). 또 이 무렵 전라도 “고산현에도 동학이 대단히 널리 퍼져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뮤텔주교일기』, 1892년 1월 14일).

- 4) 전봉준의 입도 시기는 1885년, 1888년, 1890년 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鄭昌烈, 「고부민란 연구」, 『한국사연구』 48, 1885, 124쪽 참조) 전봉준 스스로는 1892년부터 동학에 관여하였다고 밝혔다(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3日 ‘全祿斗의審問續聞’, 『총서』 23, 171쪽;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6日 ‘東學黨大巨魁 審問續聞’, 『총서』 22, 371쪽).
- 5) 「全琿準供草」 再招問目 『東學思想資料集』(1)(이하 생략), 333쪽.
- 6) 大阪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3日 ‘全祿斗의審問續聞’, 『총서』 23, 171쪽; 「東京朝日新聞」, 明治 28年 3月 6日 ‘東學黨大巨魁 審問續聞’, 『총서』 22, 371쪽.

사상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할 동지들과 대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동학은 1880년대 중반 무렵부터 강원도의 산간지방을 벗어나 충청·경상·경기·전라지방 등 평야 지대로 진출하면서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동학교세의 확장과 더불어 동학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野心’을 펴려던 변혁지향 인물들과 ‘道 보다 는 난리’에 관심이 많았던 자들이 대거 입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동학조직을 매개로 하여 “야심을 품고 草莽에 숨어있던 자”들,⁷⁾ 곧 전봉준이나 손화중 김개남과 같은 변혁지향세력이 지배층의 수탈에 시달리며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던 민중들과 결합해 가기 시작했음을 말한다.

III. 척왜양운동의 전개와 거병 기도

189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한 변혁지향세력은 동학교단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전국적 항쟁을 기도하고자 하였다. 첫 단계가 교조신원운동이었다. 1892년 10월 17일경 서인주와 서병학은 공주에서 교조의 신원을 위한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⁸⁾ 동학교도들은 당시 자신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던 충청감사 趙秉式에게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를 제출하였다.⁹⁾ 이 단자에는 서학에 대한 반대, 日商의 미곡유출에 따른 폐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요체는 교조의 신원과 포교의 자유, 동학교도에 대한 侵奪 금지 등 종교적 요구에 있었다.

이어 11월 3일에는 최시형이 교도들을 삼례에 집결시켰다. 삼례집회에 모인 수천 명의 동학교도들은 전라감영에 두 차례의 의송을 올렸다. 삼례집회에서 주목되는 것은 全瑋準이 이때부터 교단 내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부상한다는 점이다. 『南原郡東學史』에 따르면¹⁰⁾ 삼례집회에서 訴狀을 작성한 것은 徐丙鶴이었고 ‘魁首’는 徐仁周였다. 서병학에 의해 소장이 작성되기는 했으나, 탄압이 두려워 訴狀을 告로할 마땅한 사람이 없던 차에 자원해서 나선 인물이 바로 右道の 전봉준과 左道の 柳泰洪이었다.¹¹⁾

7) 「在釜山 一等領事 加藤増雄의 報告」 『駐韓日本公使館記録』 2, 92~93쪽.

8) 「天道教會史草稿」, 439쪽; 『東學書』, 57~60쪽; 「大先生事蹟」 『총서』 27, 237쪽; 「時聞記」 『총서』 2, 175~176쪽. 「時聞記」에서는 이 때 모인 동학도의 수가 1,000여 명이었다고 하였다.

9) 「天道教會史草稿」, 436쪽.

10) 발굴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全北日報』, 1995년 3월 21일자 참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때 全琫準이 金開南·金德明·孫化中 등과 함께 전라도 일대의 교도들을 이끌고 교단의 지시와는 달리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茂長郡守가 동학교도들로부터 빼앗은 돈 1,000냥을 돌려 받기 위해 수백 명을 이끌고 무장을 향해 갔다. 그러나 이들이 금구 원평에 도착했을 때 茂長의 座首와 吏房이 와서 돈 1,000냥을 되돌려주었으므로 비로소 해산하였다 한다.¹²⁾ 이는 이미 삼례집회 시기부터 훗날 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전봉준·김개남·손화중·김덕명 등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였고, 또 독자적인 반담학운동을 함께 전개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경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주집회나 삼례집회 이후에도 동학금단에 따른 폐해를 중단시키겠다던 감영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최시형은 1892년 12월 6일 복합상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은에 都所를 차렸다.¹³⁾ 이어 姜時元·孫秉熙·손천민·金演局·朴寅浩 등이 1893년 2월 8일 시행된 세자 탄생 축하 과거시험을 치르러 가는 科儒로 가장하고 상경하였다.¹⁴⁾ 2월 10일에 致誠式을 행한 다음날인 2월 11일 朴承浩를 疏頭로 한 교도대표 40명은 광화문으로 나가 상소문을 올렸다.¹⁵⁾ 교도들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밤낮으로 광화문 앞에서 상소문을 올렸다. 13일 司謁을 통해 구전으로 “귀가하여 安業하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는 국왕의 교지가 하달되었다.¹⁶⁾ 이에 따라 최시형은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고, 2월 24일과 25일에 걸쳐 대부분의 교도들은 해산하여 하향하였다.¹⁷⁾

한편 교단 내의 변혁지향 세력의 독자적인 움직임은 복합상소 무렵부터 한층 활발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교단 측에서 해산을 지시하였으나 교단지도부와 지향을 달리하는 세력들은 교단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복합상소〉 무렵부터 京鄕 각지에서는 대대적인 척외양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南原郡東學史』에 따르면 교단 측에서 복합상소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1893년 1월 10일 전봉준은 직접 ‘倡義文’을 작성하여 전라도 각지로 돌렸다. 창의문은 전라도 일대 각

11) 崔炳鉉, 1924, 『南原郡東學史』.

12) 南原郡宗理院, 1924, 『宗理院史附東學史』.

13) 「天道教會史草稿」, 446쪽 ; 「本教歷史」, 323쪽.

14)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 『총서』 19, 121쪽 ; 『日本外交文書』 (韓國篇) 5, 451쪽 ; 「清菴權秉憲先生自敘傳」 『韓國思想』, 15, 1977, 330쪽 참조.

15) 『東學書』, 91~97쪽.

16) 「天道教會史草稿」, 452쪽.

17) 「海月先生文集」 『총서』 27, 238쪽.

군의 衙門에 나붙었으며, 남원·운봉·곡성·구례 등지에서는 같은 시각에 방문이 붙었다.¹⁸⁾ 이때부터 창의문이 나붙은 남원·운봉·곡성·구례 등을 비롯한 전라도 각지의 인물들과 전봉준 사이에는 일정한 조직적 연계가 확보되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이어 한 달 정도 뒤에는 전라도 교도들로 추정되는 일군의 세력은 삼례에서 두 번째로 집회를 열었다(이하 제2차 삼례집회).¹⁹⁾ 2월 8일 교단 대표들이 복합상소를 위해 상정한 직후인 2월 10일경 전라도 參禮에서는 교도 수천 명이 모여 전라감사에게 또 다시 글을 보낸 것이다.²⁰⁾ 제2차 삼례집회는 1892년 11월의 제1차 삼례집회 직후 전라도 일대의 교도들을 이끌고 무장 군수 등을 상대로 반탐학 운동을 벌였고, 1893년 1월 10일 경에는 전라도 일원에 ‘창의문’을 게시하였던 全捧準, 그리고 金開南·孫化中·金德明 등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삼례에 모인 동학교도들은 전라감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무릇 사람 노릇하기에는 어려움이 세 가지 있다. 절개를 세우고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신하 노릇하기의 어려움이다. 힘을 다하여 정성스러이 효도하고 부모를 섬기다가 죽는 것은 자식 노릇하기의 어려움이다. 정조를 굳게 지키다가 지아비를 따라 죽는 것은 지어미 노릇하기의 어려움이다. 生이 있으면 死가 있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이고 有事하고 無事함은 운명이 정해 놓은 바이다. 무사하고 안락한 때에 태어나 충효의 도리를 즐기는 것과 일이 있어 어려운 때에 태어나 충효에 죽는 것은 신하 노릇하고 자식 노릇하기의 어렵고도 쉬움이고 쉽고도 어려움이다. (중략) 금일 倭賊과 洋賊이 나라 한가운데로 들어와 큰 혼란이 극심하다. 실로 오늘날 나라의 수도를 보건대 마침내 오랑캐들의 소굴이 되었다. 가만히 생각건대 壬辰年의 원수와 丙子年의 치욕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차마 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동방 삼천리 선조들이 물려준 땅이 모두 금수들의 발자국으로 가득하다. 오백 년 宗社가 장차 망하게

18) 『南原郡東學史』, 1924. 또 전봉준은 창의를문을 돌린 후 복합상소에 가담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봉준은 복합상소에 참여하지 않고 전라도에 남아 척왜양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9) 1893년 2월에 열린 두 번 제 삼례집회의 존재를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李離和, 1989,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①, 『역사비평』 7이다.

20) 이 사실은 李復榮, 「南遊手錄」 癸巳 3월 8일, 『총서』 3, 126쪽; 金在洪 「嶺上日記」, 癸巳年(1893) 2월 10일, 『총서』 2, 274쪽; 金允植, 『續陰晴史』 上, 3월 8일조, 258쪽; 「天道教會史草稿」, 453쪽; 「天道教書」 『총서』 28, 226쪽 등에 언급되어 있으며, 『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 206 東學派學動情報의 件, 附屬書 2, 457쪽; 「東學文書」 『총서』 5, 63-66-70쪽; 『羅巖隨錄』 癸巳 2월, 「196. 東學黨與完伯書」; 「미국외교문서」(국방군사연구소 소장, 문서관리번호 SN-576) 1893년 4월 20일에는 전문이 소개되어 있다.

되었으니, 仁義禮智와 孝悌忠信을 지금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물며 저 왜적은 오히려 悔恨의 마음을 가지고 화근을 품고서 그 독기를 마음대로 뿌리고 있어서 위태로움이 조석에 달렸다. (중략) 우리 수만 명은 힘을 합쳐 죽기를 맹세하고 왜적과 양적을 물리쳐 大報之義를 본받고자 한다. 앞드려 원하건대 각하도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여 忠義로운 선비들을 선발하여 함께 輔國하기를 간절히 바란다.²¹⁾

이때 동학교도들은 척왜양 격문을 전라감사에게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전라도 각 읍에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²²⁾ 일본공사관 측에서는 삼례의 동학교도들이 전라도 53개 군에 동일한 내용의 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였다.²³⁾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보은집회가 열리는 3월 11일 보은 관아 문 밖에 걸린 패서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²⁴⁾ 둘째, 이전에 충청감사와 전라감사에게 보낸 글이나 복합상소문에서 주조를 이루던 교조의 신원이나 교도에 대한 탄압금지 등 종교적 요구가 사실상 사라진다. 셋째, 발신자의 명의에서도 처음으로 “東學 倡義會所”가 등장하면서 거의 전적으로 斥倭洋을 통한 輔國이 강조되고 倭夷와 洋夷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의지가 강력하게 천명되었다. 공주집회에서도 西學에 대한 반대, 倭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반대는 있었으나, 왜양 자체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그를 직접 쳐부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적은 없었다. 또 보은에 都所를 차린 직후인 1892년 12월에

21) 경상도 예천의 유생 朴周大의 일기인 『羅巖隨錄』(『羅巖隨錄』 癸巳 2月條, 「196. 東學黨與完伯書」)과 「뮈텔문서」(「東學文書」 『총서』 5, 63·66·70쪽) 등에 실려 있다. 또 1893년 4월 12일(음력 2월 26일) 조선주재 일본 변리공사 大石正己가 일본 외무대신 陸奥宗光에게 보낸 외교문서와(『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 206 東學派學動情報의 件, 附屬書 2, 457쪽) 4월 20일(음력 3월 5일) 조선주재 미국 변리공사 Augustine Heard가 본국에 보낸 외교문서에도 「미국의교문서」(국방군사연구소 소장, 문서관리번호 SN-576), 1893년 4월 20일자 『羅巖隨錄』이나 「뮈텔문서」에 실린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22) 「東學文書」 『총서』 5, 66~69쪽. 「嶺上日記」, 癸巳年(1893) 2월 10일조, 『총서』 2, 274쪽. 또 “밤중에 방문을 붙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2월 9일 밤에 붙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김재홍은 동학교도들이 밤중에 방문을 붙이고 列邑에 民擾를 선동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였으나, 척왜양을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가상하다고 평가하였다. 또 김재홍은 동학교도의 방문에 倭와 洋夷 뿐만 아니라 淸에 대해서도 배척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쓰고 있으나, 이는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23)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韓國東學黨蜂起一件」 『총서』 19, 126쪽.

24) 다만 중간 부분에 나오는 “壬辰年の 원수와 丙子年の 치욕”이라는 구절이 〈보은관아통고〉에는 “壬辰年の 원수와 丙寅年の 치욕”으로 되어 있다.

정부에 보낸 〈朝家回通〉이나 복합상소문에서도 동학을 서학과 동일시하여 탄압하는 데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하였지만, 외세 그 자체에 대해 ‘척왜양’을 명시하며 반대하지는 않았다. 격문 내용에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동학교도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또 동일한 내용의 격문이 보은집회에서도 게시되었다는 점은 이때부터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진 세력에 의해 척왜양운동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

척왜양운동은 전라도 삼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복합상소를 전후한 시기 서울의 외국공관 등에도 척왜양 방문이 붙었다. 우선 복합상소 직후인 2월 14일 밤 서울 Gifford 학당의 문에 서교를 배척하는 방문이 붙었다. 이어 2월 18일에는 미국인 존스(H. J. Jones)의 집 교회당에 서교를 비판하는 방문이 붙었다. 내용의 요체는 역시 유학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가 패륜적이라는 점을 통박하는 것이며, 3월 7일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을 경우 공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보은집회가 열리기 10여 일 전인 3월 2일 오후 2시경에는 일본공사관 벽에도 斥倭斥洋을 주장하는 패서가 붙었다. 일본공사관에 게시된 榜文은 서양인들에게 통고한 내용과는 달리 임진왜란 때의 참혹함을 상기하며 즉시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2월 20일을 전후하여 프랑스공관에도 西教를 배척하는 방문이 게시되었다고 하며,²⁵⁾ 복합상소 직전인 2월 7일에는 동학교도들이 서학을 배척하는 격문을 서양 영사관 앞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²⁶⁾ 또 『東京朝日新聞』에는 척왜양 방문이 학교나 선교사의 집, 외국 공관 이외에도 동대문과 남대문 등의 중요한 지점에도 붙었다고 하였다.²⁷⁾

척왜양 방문은 복합상소 직후부터 서울에 나붙은 이후 보은집회 이전까지의 시기에 지방 곳곳에도 나붙었다.²⁸⁾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바 제2차 삼례집회 무렵 용담관아에

25) 『續陰晴史』 上, 癸巳 2月 24日, 257쪽. 그러나 프랑스 공관에 척왜양 방문이 게시되었다는 기록은 다른 어떤 자료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張泳敏, 「東學農民運動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1995, 157쪽 참조).

26) 「東學道宗釋史」, 317~318쪽. 손천민의 이름으로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손천민이 상경한 것은 2월 8일이었다. 「東學道宗釋史」는 손천민 계열이 필사한 것이다(朴孟洙, 「崔時亨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박사학위논문, 1995, 192쪽 참조). 따라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내용은 2월 18일 미국인 존스의 집 교회당에 붙은 것과 동일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글이 동학교도 측의 소행임을 짐작할 수 있다.

27) 「東學黨事件의 顛末」 『東京朝日新聞』, 1893年 4月 29日(趙景達, 1998, 『異端의 民衆反亂 : 東學と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100쪽에서 재인용); 「大阪朝日新聞」, 1894年 6月 27日, 『叢書』 23, 67쪽.

28) 金允植, 『續陰晴史』 上, 3月 26日條, 261.

붙은 방문 이외에 현재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3월 6일 밤 부산성문에 나붙은 통문이 다.²⁹⁾ 그 내용은 전라감영에 보낸 글이나 용담 관아에 붙은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³⁰⁾

이상과 같이 척왜양운동은 1893년 1월 10일경 전봉준이 전라도 각지에 <창의문>을 띄우면서 그 단초를 보였고, 2월 8일 동학교단 대표들이 복합상소를 위해 상경한 직후인 2월 10일 개최된 전라도 삼례집회와 복합상소 직후부터 경향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그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삼례집회를 개최한 세력이나 이와 연계된 인물에 의해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 각지에서 전개된 척왜양운동은 단순히 방문을 붙이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척왜양을 명분으로 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병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우선 「天道教會史草稿」에는 상경한 교단 대표들이 남소동 최창한의 집에 奉疏都所를 정하고 절차를 논의하던 중 동학교단의 대표보다 7일 앞선 2월 1일(吉日)에 상경하였던 서병학이 “意를 變하여 隊兵과 協同하여 政府를 鑒打”하자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孫秉熙 金演局 孫天民 등이 반대하였으나 서병학이 듣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³¹⁾ 이는 이미 이전부터 독자적인 행동을 모색해오고 있던 교단내의 변혁지향 세력이 병란을 기도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최시형도 1898년 5월에 체포된 뒤 복합상소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들의 청원에 대한 (국왕의-필자) 답변을 얻지 못하자, 그 중 한 사람이 ‘우리들이 군인으로 변장하고 먼저 閔泳駿의 집을 공격하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였던 대중은 모두 해산하여 귀가하였다”라고 하였다.³²⁾ 『東京朝日新聞』에서도 이때 동학교도들 가운데는 “일(복합상소)이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수도 漢陽을 불태우는 大事를 일으키고, 지방의 黨員도 호응하여 대혁명을 단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여³³⁾ 복합상소 이전에 모종의 거사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복합상소 시에 다른 대표보다 먼저 상경한 서병학이 서울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돈화의 「天道教創建史」에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29) 보은집회가 시작되는 3월 11일 아침에는 보은에 인접한 靑山의 관아문에도 방문이 붙은 것이 발견되었으나,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白石書牘」 『총서』 3, 305쪽).

30) 『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 213 釜山城門へ 東學黨通告文貼付に 付報告, 471~472쪽.

31) 「天道教會史草稿」, 449쪽.

32) “Confession of a Tong Hak Chief” The Korean Repository vol. 5(june 1898), pp.234~235.

33) 「東學黨の事」 『東京朝日新聞』, 1893년 4월 18일(趙景達, 앞의 책, 105쪽에서 재인용)

都所에 모여 相議할세 때에 徐仁周 徐丙鶴은 上疏하야 陳情할 뜻이 없고 敎徒로 하여금 兵服을 換着케 하고 兵隊와 協同하야 政府奸黨을 掃蕩하고 크게 朝廷을 改革하기로 決定하였는지라(徐仁周先上京周旋) 이 秘密을 探知한 捕盜大將 申正熙가 警察을 道人旅宿에 派送하야 嚴密히 調査하거늘 神師가 이에 二人을 불러 그 不當함을 責하니 二人이 듣지 않는지라.³⁴⁾

여기서는 서병학 혼자가 아니라 서인주와 서병학이 함께 정부간당의 소탕을 주장하였다고 하였으며, 서병학이 아니라 서인주가 먼저 상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두 사람이 모두 일찍 상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문제는 이들이 먼저 상정한 뒤 병대와 협동하여 정부간당을 소탕하려는 계획을 주선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의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복합상소〉에 즈음하여 동학교단에서는 그 준비를 위해 서병학을 일주일 정도 미리 올려보냈다. 그러나 서병학은 〈복합상소〉 준비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 불평을 가지고 있던 병대와 협력하여 정부 간당을 소탕하고 조정을 개혁하려는 거사계획을 누군가와 사전에 밀모하여 두고 교조신원운동을 위해 상정한 동학교도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라도 삼례와 충청도 일대에서는 서울에서 밀의한 병란 기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복합상소 직전부터 삼례에 모인 교도들은 정부나 官側에 보낸 이전 시기의 글과는 전혀 달리 척왜양을 주조로 한 통문을 작성하여 감영에 보내고 각 읍 관아에 붙였다. 뿐만 아니라 동학교도들에게는 민폐를 끼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일반 민인들에게까지 동요하지 말 것을 알리는 통문을 보냈다. 전라감사에게 척왜양 통고문을 보내는 2월 10일 무렵 삼례에 회집한 교도들은 동학교도들에게도 통문을 보냈고, 일반 인민들에게도 효유하는 통문을 보냈다고 한다. 통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읽고 혹시라도 두려워 동요하지 말라. 우리는 왜양을 剿滅하려는 것일 따름이고 平民들에게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신중을 기하여 민간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민간에 폐를 필자) 범한 자는 처벌할 것이다.³⁵⁾

34) 「天道敎創建史」, 『東學思想資料集』 2, p. 143

35) 『續陰晴史』 上, 3月 初8日, p. 258

앞 부분은 일반 민인들을, 뒷 부분은 동학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의 움직임이 그 만큼 주도면밀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마치 거사를 앞둔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사실이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 무렵 척왜양 방문운동을 주도한 동학교도들 혹은 그들과 연계된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왜양을 물리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방문과 4개 항목의 행동강령이 서울 거리에 게시되었다는 점이다. 그 요체는 “금수같은倭洋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데 어찌 秉彝의 도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진년의 원한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忠義之士가 있으면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었다.³⁶⁾

척왜양의 거사를 일으키기에 앞서 ‘충의지사’의 동참을 선동함과 동시에 일종의 행동강령까지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무렵 일부 교도들 간에는 척왜양을 명분으로 한 “거사”를 실제로 일으키려는 계획이 있었음 한층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병란 기도는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지만, 1893년 3월에 개최된 보은 금두집회에 서도 이어졌다. 최시형은 1898년 3월에 체포된 뒤 보은집회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6) 「東學文書」, 76~85쪽. 여기에는 “東學揭榜”, “東學掛榜”, “東學榜”이라는 제목으로 된 같은 내용의 방문이 3종류가 실려 있다. 방문이 게시된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방문들은 복합상소 직후 일련의 척왜양 방문과 같은 시기에 나붙은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언급한 「東京朝日新聞」과 「大阪朝日新聞」에서 남대문·동대문 등 요처에 나붙었다고 한 척왜양 방문 가운데는 이러한 방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개조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 동방 예의지국이 근래 바깥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위로는 종사가 위태롭고 아래로는 (오랑캐의) 財色이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비할 데 없이 통탄스럽다. 기필코 쓸어 없애버릴 따름일 것.
- ② 하늘을 받들고 더러운 것들을 쓸어냄에 있어 장정을 가려 뽑지 않고 손에는 병기를 잡지 않음으로서 위로는 걱정을 끼치지 않고 아래로는 소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니 인민들은 안심하고 樂業하라. 혹시 충성을 본받으려는 자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合力할 것.
- ③ 불효하고 不忠한 자와 강함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는 자는 도적임이 분명하니 우선 그를 討罪할 것이니, 개과천선하여 후회하지 말 것.
- ④ 서학에 입도한 사람은 동방에서 태어나고 동방에서 자라 國君의 땅을 갈아먹고 선왕의 법을 따랐으면서 그 이름을 오랑캐의 나라에 붙이고 그 마음을 오랑캐의 땅에 두어 오랑캐의 우두머리에게 복무하니 어떤 마음에서인가? 매우 안타깝고 한탄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본래대로 돌아와 후회하지 않도록 할 것

나중에 정부에서 우리를 체포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자, 교도들 가운데 몇 명—열 명 정도가 채 안되는—이 斥倭의 깃발을 세워야 하고, 보은에 모여 반란을 시작하고 한강을 따라 서울까지 가야 된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 제의는 반대에 부딪혔고 우리가 취할 여러 가지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선유사 어윤중이 와서 해산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였다. 그의 두 번째 효유에 우리는 해산하였다.³⁷⁾

이것은 보은집회 당시 교단 내부에서는 척왜양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키자는 쪽과 그에 반대하는 쪽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척왜양을 내건 반란 기도는 실패하고 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무엇보다 척왜양구호가 가진 한계를 주목하고 싶다. 척왜양 구호는 당시민중들의 의식과 일정한 괴리가 있었다. 변혁지향 세력은 이미 복합상소 직전부터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政府奸黨을 掃蕩하고 크게 朝廷을 改革하”는 데 있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³⁸⁾ 또 전봉준도 “간악한 관리를 징치하고 보국안민을 이루기 위해” 동학에 입도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全羅一道의 탐학을 제거하고 賣爵하는 權臣을 쫓아내면 팔도가 자연一體가 될 것”라고³⁹⁾ 하였듯이 ‘반탐학’·‘반부패’ 문제를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⁴⁰⁾

물론 집회에 참석한 교도들과 일반 민인들은 倭洋이 나라의 심복에까지 들어와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매우 분개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利源을 빼앗아 가는 外夷를 온 나라의 義旅와 함께 협력하여 물리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⁴¹⁾ 그러나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할만한 구체적인 침략행위가 가시화한 상황은 아니었다. 따라서 척왜양 구호는 심증팔구 반역자로 몰리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전국 차원의 의병항쟁의 대열에 뛰어들게 할 만큼 설득력 있는 구호는 아니었던 것이다.⁴²⁾

37) Confession of a Tong Hak Chief, "The Korean Repository", vol. 5, pp. 234~235.

38) 「天道敎創建史」『東學思想資料集』2, 143쪽.

39) 「全瑋準供草」再招問目, 328쪽.

40) 〈농민혁명 봉기계획〉이나 고부민란 단계에서는 척왜양 구호가 사라지고 ‘반봉건’적인 구호가 전면에 제기된다. 그리고 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茂長布告文〉도 ‘반봉건’적 측면에 압도적으로 경도되어 있었다. 또 제1차 농민혁명 전기간을 통하여 제시된 구호나 행동에도 ‘반외세적’ 요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봉건적’ 요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41) 「聚語」, 123쪽.

42) 수없이 다발한 민란에서 외세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구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개항 이후에도 세계자본주의의 침략이 거기에 대응하는 민중에게 새로운 세계관이나 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반

이에 따라 책왜양을 내걸고 기도한 병란은 실패로 끝났고, 전봉준 등 지도부는 전국적 항쟁을 위한 새로운 방략을 모색하게 된다. 1893년 말에 나온 〈사발통문 거사계획〉은 바로 그러한 모색의 결과였다.

IV. 〈사발통문 거사계획〉 · 〈고부민란〉과 “농민혁명” 기도

보은·금구집회 이후 전봉준은 조정의 간당을 소탕하고 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했다. 그것은 바로 민란의 확산을 통해 전라도 전지역의 봉기, 나아가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구상하고 추진한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민란이다.

먼저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알려주는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⁴³⁾

- 一. 古阜城을 擊破호고 郡守 趙秉甲을 梟首호 事
- 一. 軍器倉과 火藥庫를 占領할 事
- 一. 郡守의게 阿諛호야 人民을 侵漁호 貪吏를 擊懲호 事
- 一. 全州營을 陷落호고 京師로 直向호 事

위의 결의사항을 볼 때 그 대체적인 구상은 조병갑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던 고부에 서 민란을 일으킨 다음 인근 읍의 ‘난민’을 규합하여 전주영을 함락하고, 여기서 전라도 일대의 변혁세력을 규합하여 서울로 직향하여 탐관오리를 축출한다는 구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부민란에서는 제4항에 제시해 놓은 바 전주성의 함락과 京師直向을 기도한 바 없다. 그러나 중앙권력을 목표로 한 봉기계획은 이미 일찍부터 전봉준의 머리 속에는 구상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이미 1893년 1-2월무렵부터 일련의 “반란”을 기도하였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정사로 직향하는 일이 당장 실현되지 못했지만,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쳐들어간다는 계획은 〈사발통문 거사계획〉에 나타난 바 ‘반란

왜 정서’가 팽배해 있었다는 점은 그것이 구체적인 침략행위와 결부될 때 광범위한 대중적 호응을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면적 ‘반왜 항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잠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에 의한 경복궁 침입 이후에 일어난 2차 전쟁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43) 「전봉준자료집」 『나라사랑』 15, 1974, 134~135쪽.

의 순차적인 전개에서 최종 목표로 설정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위의 봉기계획은 고부민란에서 당장 기도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중앙권력을 목표로 한 전국적 항쟁은 〈농민혁명 봉기계획〉 이전 단계부터 교단 내의 변혁지향 세력간에 구상되어 있었으며, 고부민란은 그러한 구상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보은·금구집회에 비추어볼 때 〈사발통문 거사계획〉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특기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보은·금구집회에서 전면제 제기되었던 척왜양 구호가 사라지고 ‘반봉건적 성격의 구호가 전면제 등장한다는 점이다. 둘째, 동학교단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던 모습이 사라지고 고부라는 특정 고을을 기반으로 교단 지도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운동을 추진하려 한 점이다. 셋째, ‘輔國安民’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추진 구상도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는 곧장 서울로 가서 정부 간담을 소탕하고 정부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발통문 거사계획〉 단계에서는 먼저 고부성을 점령하고 이어 전주성을 함락한 다음 서울로 쳐들어가는 경로로 바뀐다.

이러한 변화는 변혁세력의 의식과 조직 면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점은 보은·금구집회를 겪은 이후 전라도 일대의 교도들간에 지역적 연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척왜양운동 이후 한편으로는 관리들의 침탈이 더욱 심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도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도들 사이에는 집단적 자구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어 갔다. 이에 대해 吳知泳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各地 道人이 解散 以後에 各地 官吏들의 동학당 逮捕侵虐이 前日과 조금도 다름없이安居의 望이 없는지라 道人들은 할 수 없이 官屬과 對抗策을 講究할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음을 알고 各包各接이 서로 團結을 지어 어느 지방에서 일이 생기든 하면 그 卽時로 보발을 띄워 그 부근 그 부근으로부터 술발을 흔들고 일어서서 잡혀가는 사람을 빼앗아 놓기로 하였다.⁴⁴⁾

44) 「東學史」(간행본), 443쪽. 「東學史」(草稿本)에도 이와 유사한 기사가 고부민란 이후의 기사 속에 혼입되어 있다 “당초 관리측으로부터 … 東學黨 잡는 것을 돈벌이로 알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限이 없고 돈양은 限이 있어서 許多한 東學軍에 許多한 歲月을 두고 돈이라는 것을 이루 다 當해내는 수가 없었음에야 어찌 하리오. 죽기는 마찬가지니 차라리 힘으로써 對抗하자는 議論이 成立되어 古阜, 扶安, 井邑, 泰仁, 高敍, 茂長 등 各地에 있는 東學黨들은 特別한 團結을 지어 어느 方面에서든지 일이 있는 때는 地境地境마다 파발을 세워 奇別이 가는 대로 晝夜를 不分하고 일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法을 만들어 뒀던 것이다”(「東學史」(草稿本),

관리들이 교도들을 체포해 가면 각 포·각 접이 서로 연락하여 잡힌 사람을 빼앗아가는 일이 많아진 것은 그러한 자구책의 표현이었다. 이와 짝하여 변혁지향적인 교도들의 변혁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때쯤은 도인이 모여 앉으면 道談보다도 난리 이야기가 많았다”는 데서 그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⁴⁵⁾ “도담보다도 난리를 이야기하는” 변혁지향적인 세력들은 고부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간의 연계를 획득해 나갔다. 이들은 점차 단결을 통해 ‘힘으로 대항’한다는 항쟁의 싹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지역보다 전라도에서, 전라도 가운데서도 孫和中包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무장 선운사의 비결사건 이후 변혁지향적인 사람들이 손화중 包로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지역 간에 연계가 이루어진 무장·고창·영광·장성·홍덕·고부·부안·정읍 등지는⁴⁶⁾ 호남에서도 관리들의 침략이 극심한 곳이었고,⁴⁷⁾ 均田使 金昌錫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었다.⁴⁸⁾ 또 무장기포를 전후한 전쟁의 초기단계에 농민군이 가장 집중적으로 동원된 곳도 바로 이들 지역이었다.⁴⁹⁾

이와 같이 척왜양 운동 이후 전라도 일대에는 변혁지향 세력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었다. <사발통문 거사계획>과 고부민란 단계에 와서 중앙권력을 투쟁대상으로 삼는 전국차원의 항쟁을 기도하면서도 ‘척왜양’구호를 탈각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선 독자적인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지도부가 내건 구호와 민중의 내면의 요구가 일치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은·금구집회까지도 지도부가 내건 ‘斥倭洋倡義’구호와 민중의 의식 간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 운동을 거치는 동안 거기에 참여했던 교도들의 의식이 일정하게 성장하였다는 점과도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조신원운동은 집회에 참가했던 대중들에게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공주·삼례집회에서는 각지에서 모여든 교도들이 직접 감사와 담판하였으며, 복합상소에서는 국왕을 상대로 협상을 벌인 바 있다. 보은·금구집회는 복합상소에

450~451쪽).

45) 위와 같음.

46) 「東學史」, 443쪽. 「東學史」(초고본), 450~451쪽에는 고부·부안·정읍·태인·고창·무장 등지로 나와 있다.

47) 「天道教會史草稿」, 448쪽.

48) 金容燮, 1968, 「高宗朝의 均田收賄問題」 『東亞文化』 8 ; 왕현중, 1991, 「19세기 말 호남지역 지주 계의 확대와 토지문제」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역사비평사 참조.

49) 「梧下記聞」 首筆, 52쪽.

서 제시한 국왕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척왜양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일으킨 전대미문의 '대규모시위'였다.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민란과는 격을 달리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 운동은 각지에서 모인 민중들의 경험의 집단적으로 교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바뀌어져 가는 세상을 체험하는 자리였다.⁵⁰⁾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변혁주체로 자각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변혁지향 세력의 의식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하지만 아직까지 변혁주체로서의 자각을 결여하고 있던 교도들에게 전파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⁵¹⁾ 이는 곧 이전까지는 王化의 대상, 牧民의 대상이라는 의식, 혹은 민란에서 보이듯 王法을 어기는 지방관에 반발하는 정도의 의식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내외의 적을 제거함으로써 宗社를 지키고 聖道를 밝히는 주체임을 자각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濟世安民'의 뜻을 다져나가는 한편⁵²⁾ 보은·금구집회 이후 전라도 일대의 지도자급 인물들=동학의 변혁지향 집주들 간에 교류해 나가던 전봉준 등이 척왜양운동 단계와는 조직과 구호 면에서 양상을 전혀 달리하는 <농민혁명 봉기계획>을 구상한 것은 이와 같이 변혁지향 세력의 주체적 역량이 조직과 의식 양면에서 성장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

50) 이러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접촉, 교류하던 시장이 가진 사회적 기능을 주목한 다음과 같은 관찰을 미루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시장에서는 서촌의 어민과 동촌의 농민이 鹽魚와 곡물을 교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장의 하루는 관습을 달리하는 각읍의 인민이 서로 모여 정치적으로 위협하다는 소문, 收稅官吏가 가혹하다는 불평, 怪力亂神에 관한 마을의 이야기, 祭式葬禮, 혼례의 풍속, 가족의 안부, 생활상의 잡사 등으로부터 혹은 某村에는 천하의 대학자인 某 진사가 있다가, 某邑에서는 마부와 외지인의 싸움이 있었다거나, 某鄉에서는 유령이 나왔다는 등 다양한 인민들이 서로 하루 동안 잡담을 하며 각읍의 교제, 각자의 친선을 맺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시장이 사교의 一機關임을 알아야 하고(하략)”[菊池謙讓, 1896, 『朝鮮王國』, 民友社(東京), 243쪽]. 시장이 가진 민중운동의 場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鶴園裕, 1990, 「李朝後期民衆運動の二・三の特質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 참조.

51) 전봉준의 경우 입도할 때에 이미 보국안민의 핵심으로 왜양이라는 외부의 적 뿐만 아니라 조정의 奸黨을 척멸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고, 그 스스로를 보국안민의 주체로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상대적으로 변혁지향 교도들도 아직 스스로를 변혁의 주체로 자각하였다기보다는 다만 세상이 바뀌기를 염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52) 전봉준은 스스로 자신은 “安民하는 데 간절하여 貪虐을 보면 不勝憤歎”한다고 하였고(「奎璋準供草」再招問目, 329쪽), “세상 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기에 慷慨하여 한번 濟世하기 위해”(위와 같음, 332쪽) 舉事하였다고 밝혀 ‘濟世安民’을 향한 그의 뜻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단계가 바로 고부민란이었다.

따라서 고부민란은 처음부터 민란의 양상도 여느 민란과 다른 점이 많았다. 관아를 점령하여 탐묵한 이서배를懲治하였으며, 창고를 털어 곡식을 나누어 가지는 등 ‘난민’들로서는 요구하던 바를 일정하게 채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고 민란이 장기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지속된 것도 바로 전봉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⁵³⁾ 14일까지 가담한 사람이 15개 마을 1만여 명이 이르자 장정을 선발하고 노약자는 귀가시켰으며, 각 촌락마다 5명의 대표가 이들을 통할하였다. 1월 17일 난민들은 군기고를 격파하여 무기를 가지고 1월 17일 말목장터로 옮겨서 주둔하였다. 여기서 지도부는 13명의 대표를 다시 선정하였고, 고부민들은 만석보를 파괴하고 白山에 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⁵⁴⁾ 말목장터로의 이동과 백산성의 축조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민란이 발발한 후 1주일 정도가 지나도록 인근 읍의 호응이 없자 일단 장기전의 태세를 갖춘 것이다. 둘째, 전봉준 등 지도부는 이미 대규모의 봉기로 돌입하기로 결심하였으며, 그 근거지로 백산을 염두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란이 전봉준의 뜻대로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고부민란의 발발은 곧 ‘경사직향’을 최종 목표로 한 <사발통문 거사계획>의 착수를 의미하였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무엇보다 인근읍의 지도자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발발하였기 때문에 이웃 읍의 호응도 받지 못하였다.

<全奉準實記>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 고부민란이 끝난 다음 전봉준이 손화중을 찾아간 데 대해, “부하를 잃은 (全)奉準이 몸소 방문하여 구원을 청함에 (孫)化中은時機尙早를 역설하였으나 전씨의懇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⁵⁵⁾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전봉준의 요청에 대해 손화중이 거부나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時機尙早’라는 의견을 말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이들간에 이미 이전부터 어떤 식으로든 봉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봉기에 필요한 조건문제 등과 관련하여 봉기시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부민란이 일어났음을 동시에 보여준다.⁵⁶⁾

53) 巴溪生, 「古阜民擾日記」, 54쪽.

54) 張奉善, 위와 같음.

55) 張奉善, 앞의 글, 354쪽.

56) “(전봉준이) 고부민란에 달려가기 몇 일전 서너 명이 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허본 적이 없는 인물들로서 후에 알고 보니 모두 동학당의 중요인물이었다”는 菊池謙讓의 탐문내용도 고부민란 발발 직전까지도 전봉준과 인근 동학접주들 간에 모종의 논의가 있었음을 보여

따라서 고부민란이 일어나자 태인의 최경선·정읍의 손여옥 등 인근 읍의 인물들도 일부 참가하였지만,⁵⁷⁾ 조직적인 호응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다. “隣郡 도처에서 동정을 표하여 대체로 악평하는 자는 없었”으나, “아직 자진하여 이들에게 합세하여 자기 머리 위의 악정을 없애려는 자”도 없었던 것이다.⁵⁸⁾ 또 ‘난민’들과 지도부 사이에는 아직 의식상의 간극이 있었다. 관아를 점령한 후 창고의 곡식을 털어 나누어 가지는 등 그들의 요구가 일정하게 관철되자 ‘난민’들은 “요구하는 바를 이루었으니 돌아가겠다”고 하였다.⁵⁹⁾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민란을 보다 높은 단계로 전개시켜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인 2월 20일 경 민란을 전라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봉기계획’을 실현에 옮기고자 전라도 각지로 보낸 ‘보국안민’을 위한 ‘倡義檄文’이다.⁶⁰⁾ 『南遊隨錄』에는 그 대략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守牧之官은 治民의 道を 모르고 生貨의 본원으로 삼는다. 여기에 더하여 轉運營이 창설됨으로써 폐단이 煩劇하여 민인들이 도탄에 빠졌고 나라가 위태롭다. 우리는 비록 草野의 遺民이지만 나라의 위기를 坐視할 수 없다. 원컨대 각 읍의 여러 君子들은 齊聲 奔義하여 나라를 해치는 적을 제거하여 위로는 宗社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 안케 하자.⁶¹⁾

「古阜民擾日記」에도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준다(菊池謙讓, 앞의 책, 171~172쪽).

57) 甚至於悖謫之輩 言壽張興訛旁喉隣邑浮浪之徒(『日省錄』, 高宗 31年 2月 22日). 상주와 선산에서도 농민들이 관아로 쳐들어가 무장한 다음 고부로 와서 합세했다는 기록도 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8쪽).

58) 巴溪生, 앞의 글, 54쪽.

59) 東學人全明肅者往投之 自爲狀頭之計 曰吳輩若不成所求 反受其禍 不加遽散 遂取官倉米食之 營邑許其所求 諸民曰吳成吳求去矣(李復榮, 「南遊隨錄」 甲午 4月 9日, 『총서』 3, 193쪽).

60) 李復榮, 「南遊隨錄」 甲午 2月 20日, 『총서』 3, 180~181쪽. 종래에는 巴溪生의 「古阜民擾日記」, 黃玟의 「梧下記聞」 등을 이용하여 2월 22일 전후인 것으로 추정했으나 [정창렬, 앞의 글(하), 1985, 126쪽], 「南遊隨錄」에서는 고부에서 각지로 격문을 돌린 사실을 2월 20일조에 기록하고 있어서 늦어도 2월 20일 이전에 격문이 飛傳된 것으로 보인다.

61) 李復榮, 「南遊隨錄」 甲午 2月 20日, 『총서』 3, 180~181쪽.

민군의 수령은 앞서 비밀리 58주의 동학당에게 격문을 띄웠다. 그 목적은 다만 1군의 이해일 뿐만 아니라 우선 전운영을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釐革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다. 兵米向은 먼저 郡倉의 세곡을 빼앗아 이에 충당한다는 것이다.⁶²⁾

이것은 명백히 민란의 차원을 넘어서는 ‘舉義’를 선동하는 격문이다. 이 격문은 각 고을 관리들의 탐학 뿐만 아니라 전라도 일대의 다른 고을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轉運營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일개 고을 범주를 명백히 벗어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민란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 격문이야말로 공개적으로 ‘보국안민’을 위해 일제히 일어날 것을 각지에 촉구하는 최초의 ‘倡義宣言’인 것이며,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사실상의 농민혁명을 기도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여기서 제시된 내용이 척왜양운동에서와 같이 ‘반외세’에 경사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輔國安民’을 위한 ‘倡義’의 목표에서도 척왜양 구호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오히려 ‘齊聲奔義’의 당위성을 탐학한 지방관과 전운영의 폐해의 제거에 두고 있었다. 공주·삼례집회 때부터 교도대중들의 기저에 깔려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전면에 내건 것이다. 척왜양운동 단계와 달리 구호가 목적이 일치된 것이다.

2월 25일에는 말목장터에서 백산으로 이동하였고,⁶³⁾ 이어 전봉준은 ‘난민’들에게 함열 조창에 나아가 전운영을 격파하고 轉運使 趙弼永을 징치할 것을 촉구하였다.⁶⁴⁾ 격문을 날린 데 이어 일대의 많은 고을들이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던 폐해의 근원인 전운영을 공격함으로써 인근 읍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⁶⁵⁾

그러나 ‘난민’들은 전운영 공격을 꺼려하였다. 그것은 민요가 越境을 하면 반란의 칭을 받는다는 이유였고, ‘난민’들은 해산하고자 하였다.⁶⁶⁾ ‘난민’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 반적인 민란의 양상을 벗어나는 항쟁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과 지도부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⁷⁾ 대부분의 ‘난민’들의 목표는 조병갑을 축출하

62) 巴溪生, 앞의 글, 56쪽.

63) 巴溪生, 앞의 글, 56쪽.

64) 張奉善, 『全捧準實記』, 356쪽.

65) 이 무렵 고부의 난민들이 부안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떠 돈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5쪽).

66) 張奉善, 앞의 글, 353쪽. 민요와 난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조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67) 金邦善의 『林下遺稿』에도 지도부와 민란중민간의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全明叔等懼禍及身 收民家銃奪民家農器 造鎗劍之屬 爲拒逆官軍之計 民有識見者 疑其作亂 新郡守

고 부당하게 빼앗긴 재물을 환수하는 데 있었다.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일반적인 민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난민’들의 의식은 결국 신임 고부군수로 부임한 朴源明의 효유가 쉽게奏效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⁶⁸⁾

이어 3월 1일 전봉준은 수백 명의 ‘난민’을 동원하여 줄포의 稅庫를 파괴하는 행동을 감행하기도 하였다.⁶⁹⁾ 그러나 인근 읍의 호응은 없었다. 아직까지 인근 지도자들과의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전봉준의 격문에 호응을 하는 인근 읍의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각 고을에서 ‘舉義’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시일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하여 신임군수 박원명의 효유가奏效하여 3월 3일경이면 그렇지 않아도 민란 수준을 뛰어 넘는 항쟁을 반대하던 ‘난민’들은 해산하기 시작하고,⁷⁰⁾ 3월 13일이면 완전히 해산하였다.⁷¹⁾ 전봉준은 부하 50여 명만 거느리고 고부를 빠져나가 무장의 손화중에게 갔다.⁷²⁾

그러나 전봉준의 〈輔國安民倡義〉 격문이 날아간 열흘 정도 뒤인 2월 말부터 고부 인근 읍에서 농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월 29일(양력 4월 4일) 김제의 죽산으로부터 동쪽으로 40여 리 떨어진 곳(금구 원평 일대⁷³⁾)에 동학당이 모여있다는 소문이 있었다.⁷⁴⁾ 3월 11, 12일경 동학당 약 3,000여 명쯤이 금구로부터 태인을 거쳐 부안으로 가는 것을 태인에서 볼 수 있었다.⁷⁵⁾ 또 전봉준은 3월 10일 무렵부터 사냥꾼들로부터 총기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였다.⁷⁶⁾

朴源明 請鄭一西金道三 誘以禍福 解散衆民 全明叔知事不成 率砲軍五十名 往投茂長東學人孫化中(『총서』 5, 21~23쪽). 이때 고부민란의 난민들 간에는 적지 않은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토사 홍계훈의 보고에 따르면 고부민들 사이에는 전봉준을 감영에서 온 수교와 함께 체포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였다(『兩湖剿討謄錄』 『東學亂記錄』 上, 167쪽).

68) 張奉善, 앞의 글, 354쪽.

69) 巴溪生, 앞의 글, 57쪽.

70) 張奉善, 앞의 글, 354쪽.

71) 정창렬, 앞의 글(하), 113쪽.

72) 金邦善, 『林下遺稿, 甲午 9월 日 濟行日記, 『총서』 5, 21~22쪽 ; 『金洛鳳履歷』 3면

73) 죽산에서 동쪽 40리 되는 곳은 바로 금구 원평일대이다(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27~128쪽 참조).

7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8쪽.

7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43쪽. 여기서는 “대장으로 추대된 자는 田明述이라 하며 연령은 40세가량으로서 복장은 보통이었다”고 하여 전봉준 부대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侍天敎歷史』, 614쪽에는 3월 17일 손화중이 수천의 농민군을 이끌고 태인, 부안 등지를 순회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한편 3월 11일경이면 충청도 황간 영동 옥천 보은 등지에서도 동학교도들이 크게 일어나 양반들이 봉육을 당한 일이 있고,⁷⁷⁾ 무장기포 직후에는 진산에서 徐璋玉 관하의 농민군이 會所를 설치하고 전봉준과 상하상응하고 있었다.⁷⁸⁾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봉준은 2월 중순경의 격문은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지역 접주들에게도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16일에는 농민군 수천 명이 무장 冬音峙面 堂山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1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3월 16일부터 3월 18일에 걸쳐 사방에서 몰려와 1,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가운데 수백 명이 법성포 진량면 황현리 대나무 밭에서 죽창을 만들고 민가에서 조총·호미·낫·삽 등을 탈취해갔다. 이어 이들은 그 동안 동학에 반대하고 탄압하였던 자들을 잡아다가 구타하였고, 군량으로 삼기 위해 인근 石橋村의 米穀商 安德必이 質置해 둔 白米 60석을 빼앗아 가고 그 집을 파괴하였다.⁷⁹⁾ 또 이들은 무장현감에게 글을 보내 일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통보하였다.⁸⁰⁾

黃玹은 “右道 일대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하여 열흘 정도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고 동학과 ‘난민’이 함께 어우러진 것은 이때부터였다. … 봉준 등은 茂長에서 큰 집회를 열고 그들의 생각을 민간에 널리 알렸는데…”⁸¹⁾라고 하였다. 우도 10여 읍이라는 데서 볼 때 이때 움직인 농민들은 주로 고부민란 이전부터 지역 간의 조직적 연계의 단초를 보이고 있던 고을의 동학교도들이었다. 또 열흘 동안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한 데서 이미 전봉준이 고부를 떠나 순화중에게 가기 이전인 3월 10일경부터 인근 읍의 ‘난민’들이 본격적으로 합세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²⁾

76) 이때 전봉준은 평을 잡아오면 상금을 준다는 말로 사냥꾼들을 유인하여 총기를 탈취하였다고 한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40쪽).

77) 李容穆, 「白石書牘」 『총서』 3, 451·453·456쪽 참조.

78) 「金洛鳳履歷」, 4면 ; 「隨錄」 『총서』 5, 183쪽.

79) 「隨錄」 『총서』 5, 159~160쪽. 이는 미곡상 안덕필이 日商에게 쌀을 팔기 위해 사두었던 것으로 보이며, 곡가를 양동시키는 미곡유출에 대해 반대하는 의미를 띠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80) 「隨錄」, 161쪽.

81) 黃玹, 「梧下記聞」 首筆, 52쪽.

82) 이 무렵이면 전남 구례 일대에서도 “요즘 화적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동학도가 세상을 어지럽혀 갈 다니기가 몹시 어려워 곧장 떠날 수 없었다”고 하여(『구례 유씨의 생활일기』 권2 是言, 1894년 2월 22일) ‘동학도’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世藏年錄』[金山에 거주하던 화순 최씨가에서 5대에 걸쳐 써내려온 일기이며, 갑오년조는 崔鳳吉(1853~1907)이 썼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영우, 『갑오농민전쟁과 영남 보수세력의 대응』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고부민란은 인근 읍의 지도자들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초기의 폭발 이후 계획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2월 중순 무렵 전봉준이 각지에 격문을 보낸 지 열흘 뒤인 2월 말부터 인근 읍에서 ‘舉義’의 움직임이 가시화 하였다. 이어 고부에서 퇴각한 전봉준이 손화중을 찾아가서 양자간에 합의를 이룸으로써 3월 10일경부터는 인근 읍에서 ‘난민’들이 본격적으로 합세해 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부민란이 정돈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끝내 민란이 해산한 뒤에야 전국적인 항쟁을 지향하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 요인은 우선 按察使 李容泰의 만행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⁸³⁾ 무엇보다 전봉준의 노력에 의해 인근 읍의 호응이 이루어졌다는 점,⁸⁴⁾ 곧 지역 간의 연계가 본격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가담한 ‘난민’들은 아직까지 ‘舉義’를 수행할 만한 의식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던 자들이 아니라⁸⁵⁾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등을 통해 스스로를 변혁의 주체로 자각하고 있던 인근읍 및 일부의 고부민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감사가 그들이 바라는 案을 받아들여 시행하겠다고 說諭하였기 때문에 난민들이 점점 離散하여 歸農하려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동학당의 一團은 무리를 지어 이산하지 않고 있다

1991, 13~14쪽 참조) 3월 11일조에는 이미 “이 무렵 동학이 대치하여 영남에는 최시형이라는 자가 자칭 법헌 선생이라 하며 보은 장내에 웅거하고 있고, 전라에는 田儻俊이라는 자가 녹두장군이라 칭하며 전주 등지를 할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또 3월 20일조에는 인근의 송낙현이라는 자가 동학에 입도한 후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4년 전에 買得한 畓을 묵혔으나 그동안에 結稅만 빼앗겼으니 畓을 물리고 그동안 낸 結稅를 내놓으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다 잡음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무렵이면 경상도 일각에서도 동학도들의 행동이 가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3) 전봉준은 공초에서 “其後의 長興府使 李容泰가 按察使로 本邑의 來하여 起包한 人民을 東學이라 通稱하고 列名하여 捕捉하며 其家舍를 燒灰하며 當者가 (無)하면 妻子를 捕하여 殺戮을 행하는 고로 다시 起包하였나이다”(『全瑋準供草』 初招問目, 313쪽)하여 이용태의 만행이 재차 기포한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 『梧下記聞』 首筆, 甲午 4월 19일조, 71쪽; 『南遊隨錄』 甲午 5월 1일조 등에서도 “고부민인들은 탐학을 견디다 못해 訴本官(고부군수—필자)하려 하면 亂類라 하고 訴營門하려 하면 逆類로 몰아 임의로 열읍에서 모병하여 鋒刀로 탄압과 살육을 일삼는 까닭에 부득이 일어났다”고 하여 관군의 무차별적인 탄압이 무장봉기의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알려준다.

84) “(전봉준이) 민요를 야기하다가 事不如意하여 茂長郡 孫化中을 運動하여”라는 표현은(『金洛鳳履歷』, 3면) 인근읍의 호응을 불러일으키 위한 전봉준의 노력을 보여준다.

85) 물론 고부민란에 참여한 모든 난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러하였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 106)~111)에서 보이듯이 난민들이 가진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민란’이 보여주는 소우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박원명의 효유로 대부분의 난민이 쉽게 해산하고 말았다는 사실도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고 한다”는 일본공사의 보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⁸⁶⁾

이에 따라 ‘道’보다 난리에 뜻을 두고 동학에 입도한 후 교조신원운동을 통해 그 스스로가 ‘보국안민’의 주체라는 자각을 획득해 나가고 있던 교도들과⁸⁷⁾ 일찍부터 ‘보국안민’의 대업을 구상하고 있던 전봉준 등의 지도자들이 동학의 조직 기반을 활용하여 ‘합세’하였음을 뜻한다.⁸⁸⁾ 조직 면에서도 의식면에서도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⁸⁹⁾

3월 20일에는 전라 각지에서 모인 4,000여명의 농민군이 모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舉義’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일정하게 갖추어지자 전봉준 등 지도부는 드디어 3월 20일에 茂長에서 농민전쟁을 알리는 〈布告文〉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8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0쪽 참조.

87) “고부군수 조병갑이 虐民誤政함을 因하여 고부인민과 말뚝市(말목장터를 말하는 듯함-필자)에 會同會集하여 조병갑을 축출하고 백산에 조병갑이가 虐民吸取하여 저장하여 노흔 백미 오백여 석을 훔터 궁민을 구제하고 其後에 민단은 漏散되고 但 所餘者는 道人 불과 3백여 명인데 도인의 회집단도 疑雲이 萬疊에 散會의 機味가 발생하려 할 시에 전봉준이 拔劍揮空 若失此時면 吾道人은 生去無路이니 若一人이라도 散去者가 있으면 칼로 베히리라”(崔炳鉉, 『南原郡東學史』)라는 기록이나, 민란 난민들이 해산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오직 ‘동학당의 일단’은 무리를 지어 이산하지 않고 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0쪽)는 기록 등을 볼 때 고부민란에서 끝까지 해산하지 않았던 것은 ‘도인’ 혹은 ‘동학당’으로 표현되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일찍부터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학에 투신한 후 교조신원운동 등에 참여하며 스스로 변혁주체로서의 자각을 일정하게 획득해나가고 있던 집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88) 이때부터 동학과 난민이 ‘결합’하였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늦어도 1890년대 초반부터는 동학의 보국안민 사상에 공감하고 敬天守心의 사상에서 협동일치를 발견함으로써 동학에 입도한 전봉준과 같이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인물들과 ‘도 보다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부류들이 본격적으로 동학에 입도함으로써 동학과 난민의 ‘결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894년 3월 20일 기포는 이와 같이 동학조직을 매개로 이미 ‘結黨’되어 있던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인물들과 ‘도 보다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세력이 지역적 연계를 이룸으로써 ‘반란’의 대열에 ‘합세’하였다는 표현이 적확할 것이다.

89) 여기에 대해서 李範奭은 “甲午全羅道古阜…民撓始起 朝廷不罪貪吏 徒治亂民 民皆入於東學 其魁田奉準者 驅亂民爲黨 猖獗湖南全道”(『確齋集』 4, 卷8 經亂錄)라 하였고, 黃玟은 “이때 동학과 난민이 합쳐졌다”고 하였다(『梧下記聞』 首筆, 52쪽). 또 “(鄭範朝) 民之始擾 由於殘虐貪饕 不得聊生而然 東黨匪類 乘時合勢 致此滋蔓者也”라는 표현이나(『日省錄』 高宗 31年 4月 4日), “東學之始於湖南也 守宰方伯 貪饕不公 侵虐萬端 列邑民擾 併時闖發 民擾不以東匪爲別 東匪不以民擾爲異 同聲相應 公私奔激 遂爲亂逆”하였다는 기록〔『任城同苦錄』(『鄉土研究』 2, 忠南鄉土史研究會, 1992에 영인 수록), 그리고 “全鳳俊本以東徒 又爲民擾之魁 自稱綠頭將軍 與亂民合勢 湖南諸邑東徒 莫不響應”(『時聞記』, 甲午 正月) 등의 표현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V.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기포의 의의

〈포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바로 사람에게 인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君臣父子는 바로 인륜의 요체로 임금은 어질고 신하된 자는 정직해야 하며, 아버지는 자애롭고 아들은 효성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가정과 국가가 이루어지고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인자하고 효성스러우며 자애롭고, 총명한 정신과 뛰어난 예지를 겸비하신 분으로 만약 현명하고 정직한 신하가 보필한다면 堯舜의 德化와 漢나라 文帝와 景帝의 政治에 도달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하된 자들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벼슬자리만 탐내며 (국왕의) 총명을 가린 채 아침을 일삼고 있다. 忠諫하는 말을 妖言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도적 떼라 일컫는다. 조정에는 국가를 도울만한 인재가 없고 조정 밖에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만 득실대고 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나날이 변하여, 집에서는 즐겁게 종사할 생업이 없고 나가서는 제 한 몸 간수할 방책이 없건만 가혹한 정치는 날로 심해져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분별이 이미 무너져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옛날 管子는 “禮義廉恥가 실행되지 않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고 하였다.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욱 심한 점이 있다. 公卿 이하 方伯守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급함은 생각하지 않고, 한낱 자신을 살찌우고 제 집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마치 재물이 생기는 길로 여기며, 과거 보는 것은 온통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허다한 돈과 뇌물이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를 채우고 있다. 국가의 채무는 늘어가는데 그것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여 음탕하게 노는 데 거리낌이 없다. 팔도가 죽음의 빛이요 어육이 되고 만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지만, 저 가혹한 지방관들의 가혹한 학정은 더욱 그러함이 있으니 어찌 백성들이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들은 국가의 근본으로 근본이 위축되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데, 보국안민의 방법은 생각지 않고 시골에 저택이나 지으며 오직 저 혼자만 잘 될 생각으로 벼슬자리만 엿보는 것이 어찌 올바른 정치이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시골에 사는 이름없는 백성들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사는 까닭에 이러한 위급함을 坐視할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합치고 億兆가 詢議하여 지금 義의 깃발을 치켜들고 ‘保國安民’으로 죽음의 맹서를 하였다. 금일 이러한 광경은 놀랄만한 것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여 모두 태평성대를 축원하여 다 함께 임금의 은덕을 입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음.⁹⁰⁾

농민군의 이념이나 목표와 관련하여 여기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方伯守습으로부터 중앙의 公卿大夫에 이르기까지 지배층의 총체적 부패상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 부패로 인해 국가가 처한 존망의 위기에 대한 인식,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개혁하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죽음을 맹세하고 나선다는, ‘보국안민’을 이룰 수 있는 주체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자각 등이다. 농민군이 궁극적으로 목적인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逐滅倭夷 및 盡滅權貴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자 과정이었다. 〈포고문〉은 농민군의 꿈과 이상을 제대로 함축하고 있으며, 농민군의 이념이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무장포고문〉을 발포함과 아울러 起包의 목표와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四大名義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 不殺人 不殺物 2) 忠孝雙全 濟世安民 3) 逐滅倭夷 澄清聖道 4) 驅兵入京 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등이었다. 이어 농민군들은 ‘輔國安民倡義’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장도에 올랐다.⁹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장봉기〉는 길게는 19세기 이래 빈발해온 민중운동의 총궐결이었고, 짧게는 1893년초부터 변혁지향세력이 기도한 중앙권력의 타도와 정부 개혁을 위한 “거병” 노력, 그리고 1893년 말 전봉준 이 주도하여 마련한 〈사발통문 거사계획〉의 결과였다.

동학과 결합한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는 이미 척왜양운동 시기부터 중앙권력 타도를

90) 「隨錄」 茂長縣謄上東學人布告文,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이하 『총서』) 5, 157~159쪽 ; 「茂長布告文」, 『東學亂記錄』 上, 142~143쪽 ; 「梧下記聞」, 『총서』 1, 52~54쪽 ; 「東學文書」 茂長縣東學布告文, 『총서』 5, 136쪽 ; 「東匪討錄」 東學輩布告文, 『韓國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 1 : 1894年の農民戰爭篇』(이하 생략), 303~304쪽 ; 「東學史」 倡義文, 『東學思想資料集』 2(이하 생략), 464~465쪽 ; 「東學史」(초고본), 창의원(內譯), 『총서』 1(이하 생략), 452~453쪽 ; 「羅巖隨錄」 茂長東徒布告文, 『총서』 2, 382~283쪽 ; 「朝鮮暴動實記」, 『총서』 25, 205~206쪽 참조. 『東學史』에는 포고문이 湖南倡義所 명의로 되어 있으며, 全瑯準 孫和中 金開南의 이름이 대표로 병기되어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장기포는 전봉준과 손화중의 세력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으며, 김개남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주 35) 참조.

91) 「大韓季年史」, 『총서』 4, 363쪽 ; 「時事新報」, 明治 27年 6月 8日, 『총서』 22, 292~293쪽. 295쪽. 「大韓季年史」에는 4대 명의가 3월 25일에 내걸린 것으로 나와 있으나,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내용의 전후관계를 살 펴볼 때 이용태의 만행으로 전봉준이 5, 6만명의 농민군을 불러모아 봉기하였고 이때 4대 명의를 내걸었다고 하여 농민군이 처음에 일어날 때, 곧 무장기포시에 4대명의를 내건 것으로 말하고 있다. 「時事新報」에도 농민군이 거병 당시에 내건 것으로 되어 있다.

목표로 한 거사를 수차례나 기도하였다. 〈사발통문 거사계획〉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동학교단의 움직임을 추동하기보다는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적 조직을 기반으로 삼아 농민혁명을 기도하였다. 또 전면에 내세운 구호도 척왜양이 아니라 민중적 이해를 수용한 “반봉건”을 내세웠다. 그것은 무엇보다 〈무장포고문〉에 잘 나타나 있다.

전봉준은 고부민란을 통해 전국적 항쟁을 기도하였으나, 손화중 등 인근 지도자들과의 사전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고부민란은 3월 초순에 들어 해산되고 말았다. 그 이후의 사정은 〈전봉준실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 전봉준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무장의 손화중을 찾아가서 “구원을 청”하였고, 이에 대해 손화중은 “時機尙早”라는 판단을 하고는 있었지만 결국 전봉준과 뜻을 합쳐 농민혁명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그 결과 고을 단위를 뛰어 넘어 전라도 각 지역에서 농민혁명을 수행할 의식을 일정하게 갖춘 농민군이 무장으로 모였으며, 마침내 3월 20일⁹²⁾ 전라도 무장에서 〈포고문〉 발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 점에서 무장은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곳이었으며, 무장에서 발표된 〈포고문〉은 지배층의 탐욕과 부정과 부패로 고통받던 민중의 분노,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민중의 열망이 터져나온 커다란 울림이었다.

92) 무장기포에서 농민전쟁이 시작된 사실에 대해서는 愼鏞廈, 「甲午農民戰爭의 第1次農民戰爭」, 『韓國學報』 40, 1985 참조.

무장기포 이후 동학농민군 진격로 재조명

진 윤 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무장기포 이후 동학농민군 진격로 재조명

진 윤 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I. 들어가는 말

II. 본 론

III. 나가는 말

별첨 : 동학농민군 진격로(지도)

I. 들어가는 말

고창군과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2002년도에 무장기포 후 동학농민군 진격로를 설정하고 그 길목에 표석을 세웠다. 동학농민군 진격로에 설치된 표석은 공음면 구수내→두암→만화→교흥→아산교→고인돌→당촌→운양→중흥→사포→목우에 이르기까지 10개 지점에 <동학농민군 진격로>라 새겨 10-1, 10-2, 10-3... 10-10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위 진격로는 2002년 당시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과 필자, 그리고 고창군 행정담당자 두 명이 현장답사를 통해 결정한 바 있다. 이 때 답사를 통해 상정된 진격로는 두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가 무장읍→교흥→월성→깨진바위→사신원→원평→굴치 길이고, 그 두 번째가 교흥→아산교→고인돌→당촌→운양→중흥→사포 길이었다. 그런데 월성 깨진바위 길이나 운곡댐 길은 너무 협소할뿐더러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고 두 번째로 상정된 길은 문화원에서 발행한 『향토사료집·3』 중 「고창의 숨결」(p98)에 고창현감이 멀리 동학군이 지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진기홍선생의 기록과, 당촌마을 주위에서 농

민군이 점심을 먹는데 새끼줄로 묶어온 죽사발에 음식을 담아먹었다는 김홍섭¹⁾ 옹의 증언을 들었다는 이기화 전고창문화원장의 이야기 등을 근거로 무장읍, 교흥, 아산교, 고인돌유적지, 당촌을 거쳐 운양, 사창 그리고 알미장터를 거쳐 사.후포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고부를 향해 진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기 지점에 표석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동학군 수만 명이 굴치를 넘어”라는 기록이 내 마음에 항상 걸린 채 너리에서 지워지지 않던 차 『갑오사기』와 『임하유고』에서 “동학군 5-6천명이 인천강을 건넜다”는 기록을 접하고는 현재 표석이 세워진 진격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2008년 겨울부터 기록을 찾고, 그 기록에 근거하여 현지답사를 시작했다.

II. 본 론

1894년 3월 무장기포 이후 전봉준 장군을 도솔대장으로 한 동학농민군이 보국안민창의(輔國安民倡義)의 큰 깃발을 앞세우고 공음면 구수내²⁾를 출발하게 된다. 그럼 지금부터 갑오년 동학농민군이 진격해갔던 그 길을 따라 가보자. 진격로를 따라 출발하기 전에 먼저 유념해 둘 사항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는 신작로는 모두 갑오년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116년 전에는 마을과 마을, 마을과 읍내를 연결해주는 오솔길이 있을 뿐이었고, 큰길이라야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지금 있는 두암저수

1) 1874-1965, 전봉준장군 수행원, “1893년 12월 10일 무장군 동음치면 당산리 송문수씨 댁에서 전 장군이 잠시 몸을 피하면서 동학교 접주 손화중 김성칠 정백현 송문수 등 네 사람과 모의를 할 때 그후 1894년 갑오년 2월19일엔 당시 동음치면 신촌리 김옹의 집에서 다시 모여 행동 준비를 구체화 했는데 여기모인 사람은 전기 손 김 정 송씨 외에 김개남 서인주 임천서 김덕명 강경중 김영달 고영숙 최재형 등 각읍의 접주들이었다 김옹의 부친 김성칠 접주는 그 준비공작금으로 쌀50섬을 내놓았다.” -『중앙일보』1965,11,5, 김홍섭의 회고 중에서)

2) 동학농민혁명 기포지인 구수내는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마을을 일컫는다. 구수내는 아홉 골에서 흘러드는 물이 토사를 운반하여 연병장 같은 모래사장을 만들었다 했는데 지금 기포지 위로 5-600m 아래 쪽 석교마을 중간쯤까지 5-600m 도합 1km가 넘는 모래사장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구수마을에는 송문수가 오래도록 세거해온 마을이기도 하다. 초기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이 접선 때부터 깊이 관여한 송문수는 동학도들을 장사꾼처럼 번복시켜 몰래 훈련을 시키는 등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다. (김홍섭회고록 중앙일보 1965.11.5. / 최재섭씨 증언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p152)

지나 운곡저수지도 갑오년 당시에는 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금의 도로(신작로)나 저수지 등은 아무리 빠른 것도 일제강점기 때 아니면 해방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각 지역에서 옛길을 고증해 주신 분들이 어렸을 적에 직접 보고 다녔던 분들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옛길을 고증해주신 분들의 연령대가 60대 후반에서 100세가 넘는 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옛길을 찾아 동학농민군 진격로를 재구성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기포지에서 뒤로돌아 두암저수지³⁾ 무덤이 수문 쪽으로 올라 한참을 더 들어가면 푸투풀이 나온다. 그리고 산골짜기 논둑을 따라 마하사 쪽으로 오르다 중간쯤 못미처 왼쪽에 자리한 논 끝에서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면 소속재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나무숲으로 막혀 길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다.⁴⁾ 소속재 고개를 내려오면 능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축동, 왼쪽은 야동마을인데 이곳 골짜기를 따라 마을안길과 겹쳐진 곳을 내려오면 논배미를 지나 봉촌 마을 앞에 이르게 된다. 옛날에는 소속재 중간쯤에 주막집도 돌이나 있었다고 한다.⁵⁾ 봉촌 마을 앞에 흐르는 작은 냇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방죽이 앞을 가로 막는다. 예전에는 없었던 방죽이다.⁶⁾ 그곳에서 곧바로 올라오면 목포, 무안, 함평, 영광을 거쳐 군유, 해정, 평장으로 이어지는 길이 이곳 과실재 말무덤* 근처에서 합해진다.⁷⁾

이 길은 전라남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갈 때 거쳐 가는 큰길이다. 이 길 오른쪽에 호산봉이 자리잡고 있다. 호산봉은 뒷날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전투 승리 후 정읍·홍덕·고창·무장읍성을 차례로 점수하던 때 일부는 무장읍성에서 머물고, 일부가 3일간 휴식과 재정비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 호산봉 남쪽자락에는 신촌마을이 있고, 그곳에 김홍섭의 집이 있다. 호산봉은 별로 높지 않는 야트막한 야산 같아 보이지만 그 정상에 올라서보면 영광, 함평, 장성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요충지이다.

3) 고창군 공음면 두암리 소재, 이 저수지는 1924년 설치되었으며, 저수량 2,569천m³, 제방길이 229m, 제방폭 5.0m, 총면적 443.7ha, 만수면적 54.0ha이다.

4) 증언; 정길순 갑술생 (77) 공음면 구암리 942, 최진호 기묘생 (72) 공음면 구암리 452-2

5) 증언; 전연수 임오생 69 공음면 신대리 311

6) 증언; 박수중 신미생(80), 무장면 만화리 봉촌

7) 증언; 김연옥 경술생 (101) 무장면 무장리 356. *말무덤은 말(馬)무덤이 아니라 말(斗)무덤, 큰 무덤을 의미함.

호산봉을 오른편으로 하며 올라가면 과실재 마을인데, 이곳 왼편에는 아직도 옛길이 살아있고, 여기 야트막한 고개를 넘어서면 무장읍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곳에서 작은 능선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정거리 초입에 들어서게 된다. 오른쪽으로 마을회관과 모정이 있고, 조금 내려가 왼편 정거2길로 들어서면 구불구불 몇 번의 용트림을 한 뒤 무장읍성 앞에 이르게 된다. 관아건물을 보면 뭔가 울컥할 심정일 것도 같은데,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동학농민군은 이곳을 그냥 지나쳐갔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부읍성을 치고, 전라 감영이 있는 전주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리라.

무장읍성로를 따라 조금 내려가면 왼편으로 성내길이 나온다. 이곳역시 정거2길처럼 마을안길의 분위기를 느끼며 올라가면, 무장 남북로에 이르게 된다. 큰길에 올라선 후 조금 내려가다가 건너가면 볼품 좋은 당산나무(팽나무) 두 그루가 서있고, 그 아래 무장 토성을 노래한 〈진을주시비詩碑〉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당산나무와 시비를 왼편에 끼고 오르면 또 다른 노복 3그루가 맞이한다. 그 밑을 지나 오른쪽으로 내려서면 밭도 나오고, 논도 나오는데 길은 점점 좁아져서 무장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논두렁 하나만 남게 된다. 도로를 가로질러 밭이며 능선을 타고 가다보면 예전의 하마비(下馬碑)가 서있던 하마등에 이르게 된다.⁸⁾

그 다음 이어지는 곳이 원촌마을이다. 예전의 역원으로서 마방 등이 있었던 곳이다. 원촌을 지나 고개를 넘으면 유도리에 닿고, 그곳 무장농원을 가로질러 지방도(제15호, 고창-무장간)를 건너 궁동 입구에서 조금 오르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나아가면 송현마을이다. 이곳의 들판이 모두 경지정리가 되어 옛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논 한가운데서 이곳에 옛길이었음을 증거하는 소중한 자료가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첨금정(沾衿亭) 바위이다. 이 바위는 고인들로 추정되는 바위인데, 바위 위에 “萬曆二十五年 十月 日 統制使李舜臣銘 宣武原宗功臣 金海金公 緯한 天貴殉節”(만력 25년 시월 일 통제사이순신명 선무원종공신 김해김공 위 한 천귀순절)이라 새겨져 있고, 그 외에 서체를 달리한 “첨금정沾衿亭”등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1923년에 발행된 무장읍지에는 “첨금정은 재현동 5리에 위치하며, 암석과 수목이 있는 곳으로 정인(征人, 전쟁터로 가는 사람)과 송별시 석별의 정을 나누며 옷깃으로 눈물을

8) 원래 있던 하마비는 파손되어 없고, 그 좌대만 옮겨와 큰길가에 새로 비석을 세웠다. 하마비는 성인을 모신 향교나 종묘, 대궐 앞 등 신성한 장소에 세웠다고 한다. 대소인원개하마(大小人員皆下馬; 모든 사람은 모두 말에서 내려라) 비가 서있는 이곳은 건너마을 교촌에 공자를 비롯한 성인들을 모신 향교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닭은 곳”이란 기록이 있다.⁹⁾

계속해서 동학농민군 진격로를 찾아 길을 떠나보자. 송현마을 앞을 지나 월증¹⁰⁾ 마을 앞에서 북쪽을 향해 보면 성기마을 뒷등으로 해서 끄령재까지 일직선에 가까운 소나무 숲길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모두 개간되어 버렸고, 고창~해리간 4차선 도로공사까지 더해져서 옛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작약마을과 월성으로 돌아 끄령재에 당도하면 예전의 길은 남쪽만 조금 살아있고 동서의 도로가 난무한다.(지방도 제733호). 이곳은 70년대까지만 해도 10여 채의 술집과 한약방 한 곳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의 술꾼들에게는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라고 한다. 2009년 6월말 빈집 한 채가 마지막으로 헐리면서 이곳에서는 이제 옛집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¹¹⁾

이곳 끄령재에서 깨진바위까지는 훤히 보이는 곳, 바로 내려서서(지금은 경지정리로 길이 없음) 사신원댐 물을 해리 쪽으로 넘기기 위한 양수장 중간쯤에서 사신원 길과 합해진다. 그리고 사신원¹²⁾을 지나게 된다. 인천강 강둑까지는 좁은 들판이 이어지고, 계산마을 회관 앞에서 강 건너 삼호정 쪽으로 직선으로 길이 이어진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보가 세 개라고 한다. 상보는 비석촌 위쪽, 말 그대로 비석(중국 사신이 지나갔다는 기념비)이 있는 곳에서 운곡천 물이 합류되는 바로 위쪽에 징검다리 형태로 놓여있는 곳이고, 하보는 부정마을 바로 위쪽에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있다. 이 보는 부정, 구암들의 농업용수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람이 다니는 길은

9) 그와 관련해서 김해김씨 장사군파 족보와 선무원종공신록권(만력33년 4월16일 1605년)을 살펴보면 강동현령 김위를 비롯하여 아버지 천록 할아버지 수연 동생 현. 혼 사촌 8명 등 조.자, 손 3대 13명이 공신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김위의 반장(反葬)시 이순신 장군이 참석하여 장례를 치루고 떠날 때 눈물을 적시며 헤어진데서 유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위의 아버지 천록은 해주판관 재임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스로 남원전투에 참여하여 왜적과 혈전을 벌였으나 향년78세로 순절하였다. 그는 본래 옥구에서 신청으로 이거 후 임란이 일어나자 1597년 장남 김위의 장인인 김춘경가에 처자를 부탁함으로 하여 무장현 원송면 외원으로 김위가 입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김위의 7대조 장사군 선(璇)으로부터 장사군파라 부르게 된다. / 증언: 박영원(갑술생, 77) 무장면 정거리,

김영목(신사생, 70), 김해김씨 장사군파 중손 경인보 편집 도유사. 경기 파주 실천

10) 월증포, 김해김씨 장사군 파보에 월증포로 기록되어 있음.

11) 증언: 이종대(개미생, 68), 아산면 성산리 월성 ; 김숙한(무진생, 83), 무장면 송현리 작약 ; 진경섭(개미생, 68), 무장면 교흥리 궁동

12) 사신원은 옛날 중국 사신이 지나갔다가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무장읍지』(1923, 1, 15)에 보면 使臣院이 아니라 四信院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없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중보는 비석마을 바로 아래쪽에서 건너보면 삼호정과 마주하는 곳으로, 하보 축조로 용도폐기 되어 이곳을 포크레인으로 파낸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 확인된 사실은 깊이 판 바닥을 황토로 다진 후 그 위에 비늘달기 방식으로 돌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올려쌓았다는 것. 그렇게 해서 상단을 수평지게 하면서도 보양쪽 강변은 올라가게 하여 가운데가 U자형으로 축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보가 바로 임넨보이다. 지금도 석축 등의 형태가 남아있다.¹³⁾

『임하유고』(林下遺稿) 갑오 9월조에 “東學輩五六千名自茂長人(仁필자주)川出來”¹⁴⁾ 즉 ‘동학의 무리 5~6천명이 무장으로부터 인천강으로 나와’라는 기록과 旗幟上大書輔國安民倡義“(기치상대서보국안민창의)라는 기록이 있으며, 『甲午史記』(갑오사기)중 “孫和仲喚起東徒數千自仁川江會于”¹⁵⁾ ‘손화중이 동도 수천명을 불러 일으켜 인천강으로 모여’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이곳이 임넨보를 말하는 것이다. 무장 쪽에서 내려오는 주진천과 고창읍에서 내려오는 고창천이 합류되는 지점(쌍천마을 앞쪽)부터 인천강이라 칭하고, 그 아래로 쪽 내려가 강정, 선운사에 이르는 구간의 물길은 장수강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찌되었건 임넨보를 건너면 아산~선운사간 4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상류 쪽으로 200여 미터 올라가면 원평마을이다. 원평에서는 마을안길로 해서 뒤로 나가면 734호선 지방도와 합쳐진다. 그 오른쪽은 운곡저수지¹⁶⁾이며 댐상류 쪽에서는 오른쪽 산 밑을 따라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곳은 자갈땅이어서 논농사는 짓지 못하던 곳이어서 뽕나무를 길러 누에를 치던 곳인데, 명주배산업이 중국산에 밀려 폐업되었다 최근 들어 다행히 오디가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디수확으로 다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곳 안동 전부가 굴챙이꼴로 불렸다. 그리고 용계리 경계를 넘기 직전 골프장이 새로 들어섰다.

지도상에 대굴치라고 하는 고개를 넘으면 내리막길 끝에 복분자주 공장이 나오고, 이 공장을 오른편으로 끼고돌아 직선으로 들어가면 용산리 용흥마을이다. 용흥마을 초입에서 왼편으로 들어가면 황토마을이 몇 년 전에 생겼다. 길 따라 오르면 야트막하면서도 야무진 재가 하나 있는데 이 재가 굴치재이다. 이곳에 올라서면 바로 아래 알미장터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사포, 후포와 줄포, 그리고 고부 두승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지금

13) 증언; 홍종옥(제유생, 78), 아산면 계산리 ; 홍순옥(신사생, 70), 아산면 계산리

14) 『전라도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p182

15) 앞의 책, P183

16) 운곡댐 1990년대 설치된바 한수원 소유로 현황파악 안됨

까지 구수내에서 시작하여 산길 들길을 따라오면서 주위가 모두 산과 숲으로 둘러쌓여 답답하던 길이었지만 이곳에 올라서면 고부 두송산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 아래 어딘가에 안핵사 이용태를 잡아 징치하고, 나아가 전주영을 함락하면 새 세상이 금세 달려올 것 같이 가슴이 벅차올라 동학농민군은 발길을 채촉했을 것이다. 이때의 광경을 일본인(파계생)이 쓴 『전라도 고부민요일기』¹⁷⁾에 “東學軍數萬茂長屈峙踰”(동학군수만무장굴치유), 장꾼들이 돌아와 하는 말이 ‘동학군 수만 명이 무장의 굴치를 넘어’ 왔다는 것이다. 때는 같은 달 20일이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고장 고창은 이런 여러 기록들을 근거로 하여 3월 스무날(양력4월25일)에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굴치재를 넘으면 경사진 내리막길로(시멘트 포장) 고창북중학교 뒤로하여 부안초등학교 앞에서 국도 22호선과 마주친다. 한참을 내려가 상오마을 끝에서 좌로 꺾어 들어가다 오른쪽으로 쪽 내려가면 난산과 덕흥마을 앞 농로를 가로질러(경지정리 되어있음) 맹경교에 이르게 된다. 지금은 콘크리트 2차선 다리로 갈곡1교라 하지만 예전엔 나무다리로서 일명 맹감다리라고도 했단다. 맹감다리 건너 석호 마을과 차돌백이 앞을 지나고 회목동 중간과 주항마을 앞들에서는 예전엔 갯벌이라 산 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지금은 경지정리가 되어있어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공판장마을 뒤로하여 사포마을 뒷길로 들어서게 된다.

하여간 석호에서 사포에 이르는 길은 농로로서의 명맥만 간신히 유지한 채 승용차 한 대 지나기도 위태로운 상태다. 옛길이 가장 온전하고 길게 남은 곳으로,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케 하는 곳이다. 사포마을 안길에 들어서니 공터 맞은편에 마을회관이 있고, 왼편으로 창샘이 있다. 농민군이 출발 첫날 이곳에서 하룻밤 새우잠을 잘 때 후포의 용샘과 더불어 3,500여 농민군(고창1500 무장1300 홍덕700)¹⁸⁾이 활용했을 우물이 2곳 있는데, 이 우물은 큰 뚜껑을 덮어쥔 채 지금도 남아있다.

농민군이 사.후포에 들이닥친 과정을 수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二十四日到付 興德縣公 兄夕狀馳告 內今月二十二日夕時量 不知何許人數千名 舉旗鳴鼓吹羅放砲或騎或步 自高敞 界來到本縣沙後浦止宿” “24일 도착한 홍덕현 공형(공문서 수발자)이 저녁 무렵 말을 타고 달려와 고하기를 22일 저녁 무렵 알 수 없는 수천 명이 깃발을 들고 북을 치고 나팔을

17) 앞의 책, p 359.

18) 『동학사』, 오지영, 대광문화사, p 122.

불며 총을 쏘아대면서 혹은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고창 경계로부터 도착하여 본현 사포, 후포에서 자고 다음날 부안 줄포로 떠나겠다”고 하는 기록이 나온다.¹⁹⁾ 이후 사포, 후포에서 목우를 거쳐 부안 땅 줄포로 가는 길은 거의 다 옛날 그대로다. 다만 좁은 2차선 길로 포장은 되어있으나 매우 협소하다.²⁰⁾

또한, 다음날 줄포에서 밥 3,500상을 주문한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은 오지영의 동학사에서 고부성을 함락한 후 백산으로 진을 옮겨 각지에서 모여든 인원을 점교할 때 무장, 고창, 흥덕 등 순화중포(무장·고창·흥덕)에서 진격해온 인원수와 일치한다.

Ⅲ. 나가는 말

이제 지나온 길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수내에 집결한 농민군은 전봉준을 도솔대장으로 삼아 포고문을 낭독한 뒤 합성과 함께 힘찬 출발을 했을 것이다 대장기엔 오색단으로 오만년수운이라 새겼고, 각포 군기는 다섯 가지 색으로 나뉘어 나타냈으며 군졸들은 궁을장을 붙이고, 또한 보국안민창의의 큰 깃발을 들고 장도에 올랐다. 아울러 말 탄 사람이 있었으며, 총과 죽창으로 무장하였고 복을 치고 나팔을 불며 소속재를 넘고 과실재에 당도하여서는 남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큰길로 들어선다 이어서 무장읍성 앞을 지나 하마등과 첨금정 바위 옆을 거쳐 월증포와 끄령재, 그리고 사신원을 거쳐 임넨보를 건넌다. 이어 굴치재를 넘으면 고부 두승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고 맹감다리 건너 석호를 지나 사포, 후포에서 하룻밤 유숙한 뒤 다음날 줄포를 거쳐 동학농민군은 곧바로 고부읍을 들이쳤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무장기포 후 농민군 진격로
현 재	구수내→두암→만화→무장읍성→교흥→아산교→고인돌→당촌→운양→증흥→사·후포→목우
재규명	구수내→소속재→과실재→무장읍성→하마등→첨금정바위→월증→끄령재→사신원→인천강(임넨보)→굴치재→맹감다리→석호→사·후포→목우

19) 『수록』

20) 증언; 이식환(신미생, 80), 흥덕면 후포리 ; 김철환, 흥덕면 사포리

이상과 같이 필자는 역사의 기록과 현지주민들의 지리고증을 통해 갑오년 3월 스무날 동학농민군이 진격해갔던 길을 재조명해봤다. 앞서 들어가는 말에서 말한 고창현감이 멀리 동학농민군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기록이나, 김홍섭 옹의 증언을 들었다는 이기화 전고창문화원장의 이야기는 무장포고문을 공포하던 당시 구수내에 미처 참가하지 못한 고수나 고창읍 쪽 동학농민군이 본진에 합류하고자 당촌 부근을 지나갈 때 그 무리를 본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1894년 3월 동학농민군이 무장 구수내에서 포고문을 공포한 후 동학농민혁명 대장정에 올라 그 첫 발자국을 내딛었던 진격로는 현재 군데군데 끊어지고 사라져 겨우 그 자취만을 남긴 초라한 길로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 근대사를 밝힌 반봉건·반외세의 깃발이 휘날렸던 매우 유서 깊은 길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고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모든 고창군민들이 이 길을 잘 알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날이 왔으면 한다.

진격로를 재규명하는 일에 증언 등을 통해 도와주신 김연옥(101세) 할아버지를 비롯해 이식환, 박영원, 이종대, 홍종옥님 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지도상에 표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이민태(전대한지적공사 고창지사장)님과 사진 식자를 도와주신 홍종탁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필자는 이 일을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시간 내가 하지 않으면 10년후 또는 20년 후 누가 나선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증언해 줄 사람이 없기에 영영 묻혀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지방향토사에 작은 부분이지만 수십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해 얻은 것이기에 소중하게 여겨지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 참고자료

- 『동학사』(동학사초고본), 오지영, 대광출판사
『수록』, 일본교토대학 가와이문고, 영인본
『갑오동학혁명사』, 최현식, 신아출판사
『오하기문』, 황현, 역사비평사(번역본, 원본영인본)
『전라도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고창문화원
『전라도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신순철 외, 고창문화원
『고창의 맥』, 이기화편저, 고창문화원
『고창의 숨결』, 이기화편저, 고창문화원
『동학란기록』(上,下), 양호우선봉일기, 취어, 갑오실기, 갑오약력, 동도문변 등
『백범일지』, 김구, 돌베개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유영익, 일조각
『갑오농민전쟁의 1차 농민전쟁』, 신용하(한국학보 1985 여름호)
『정백현 서울일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민중의 함성, 동학농민전쟁』, 이이화, 한길사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사회사』, 신용하, 지식산업사
『녹두장군 전봉준』, 이이화, 도서출판 갈채
『1894년 농민전쟁연구』1~5, 역사비평사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신순철 이진영, 서경문화사
『동학농민혁명 인물사료집』, 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
『동학관련 판결문집』, 정부기록보존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제정 토론회 자료집』1~3, 동학기념재단
『대접주 김인배 동학농민혁명의 선두에서다』, 푸른역사
『김해김씨 장사군파 세보』(경인보)
『무장읍지』, 1923, 1, 15



무장동헌



소숙재



첨금정바위



인천강(임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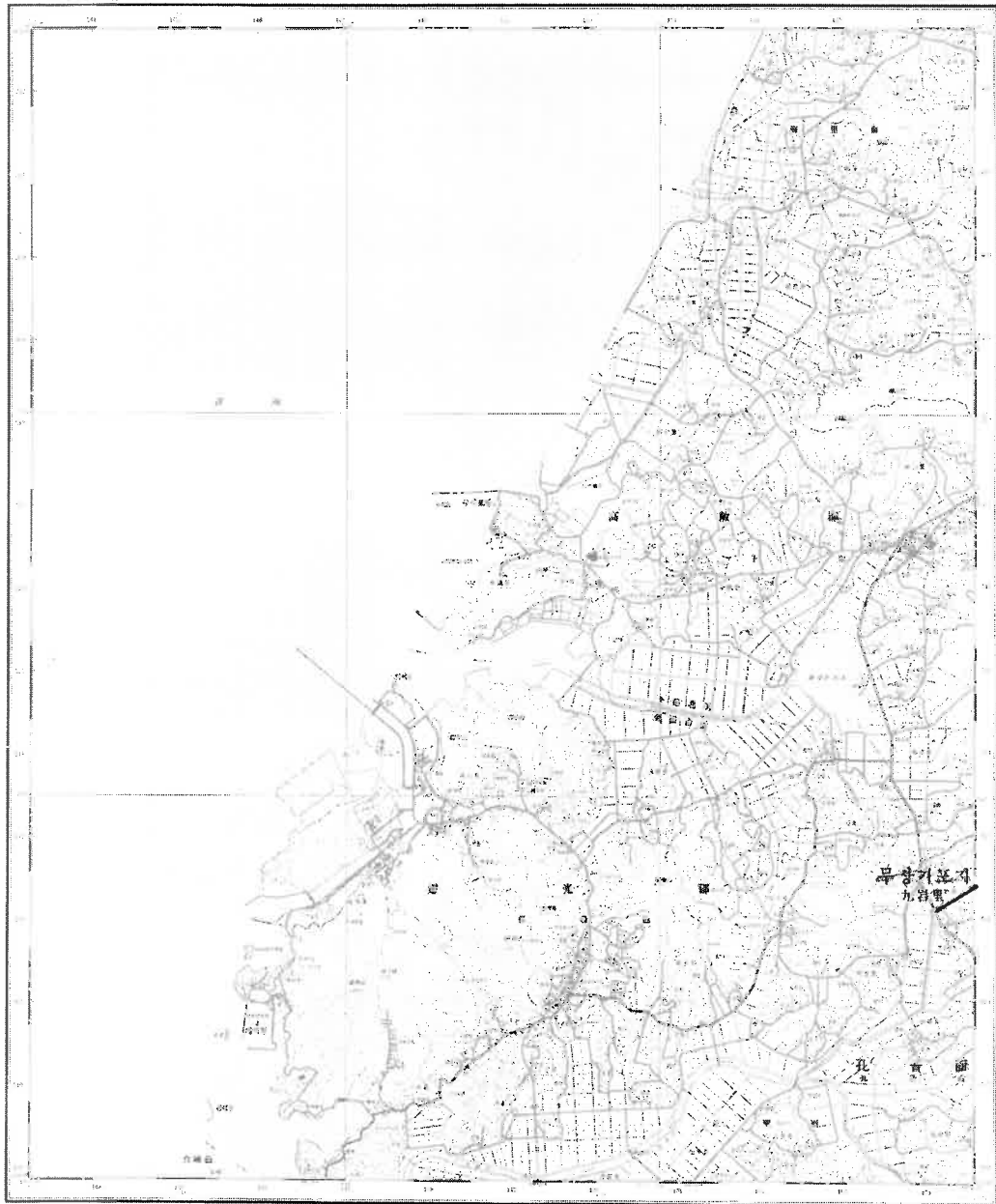


굴지재에서 바라본 고부 두송산

석 남 (石 南)

1:22.00078도 도출번호 52-1-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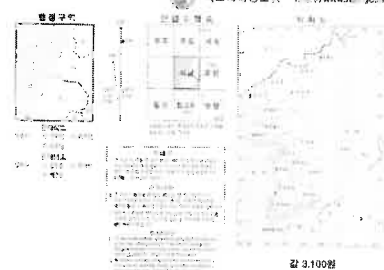
수치지도 도면번호 식별(206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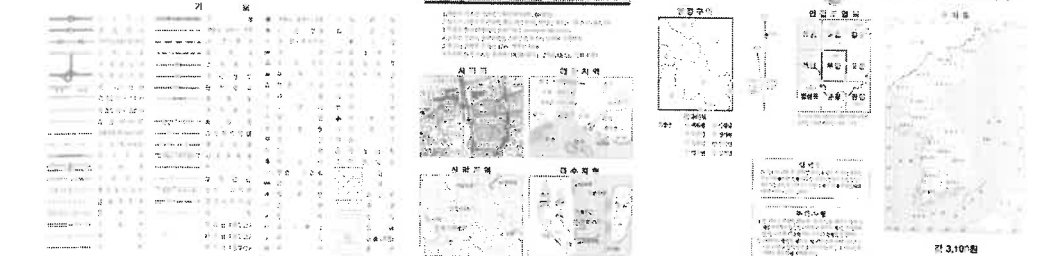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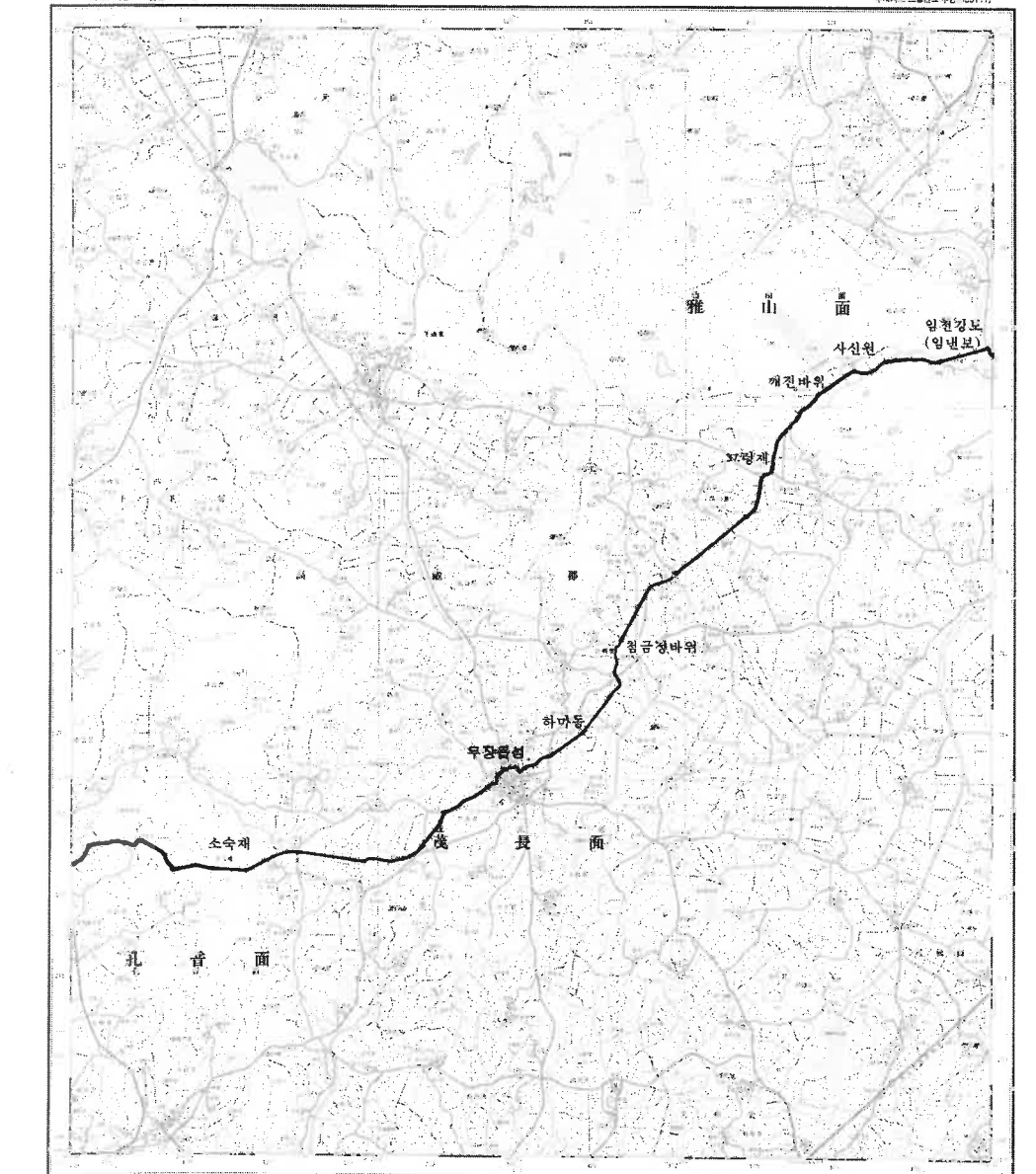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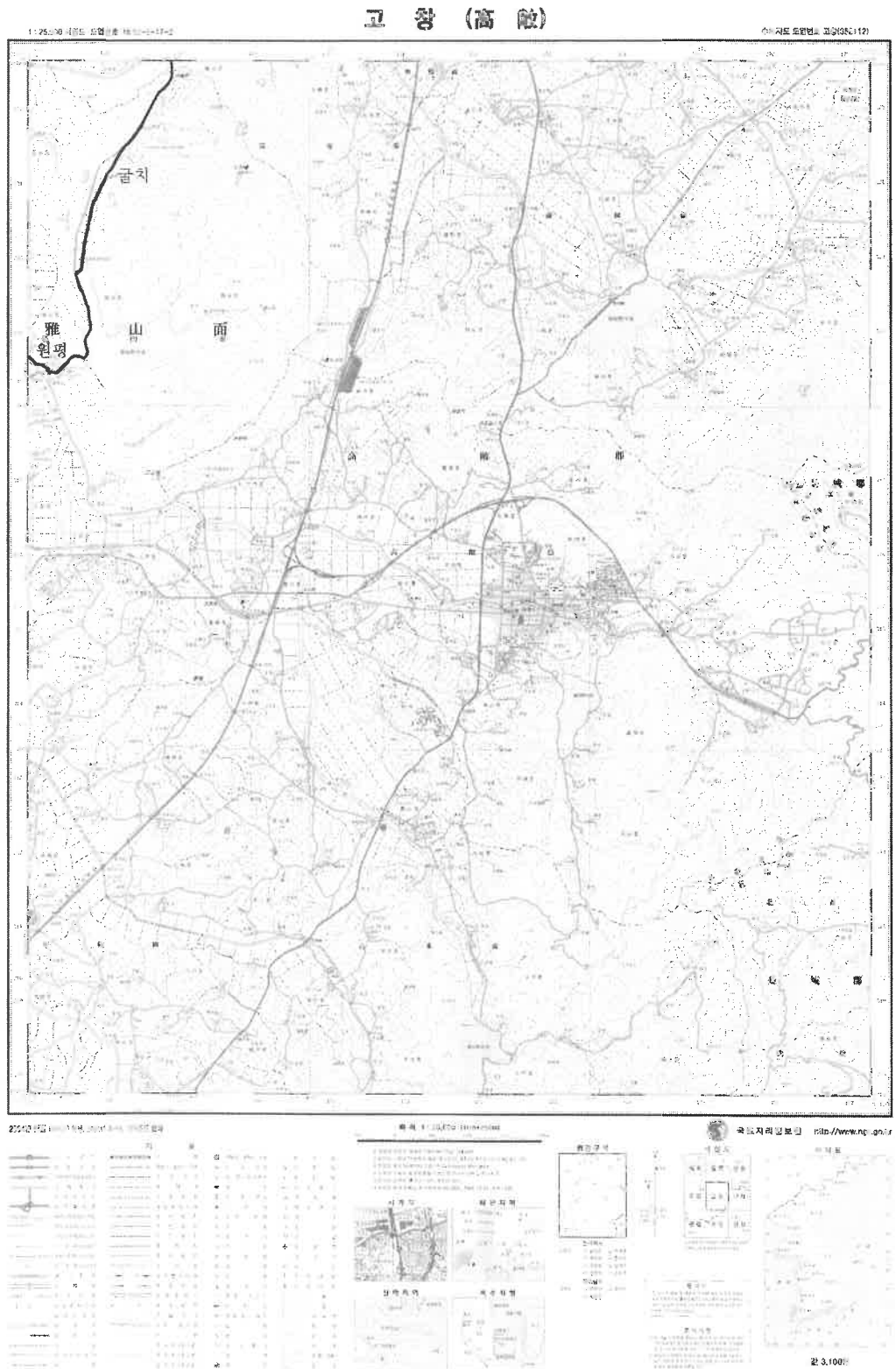
1993년 1월, 1992년 4월, 1991년 10월, 1991년 7월, 1991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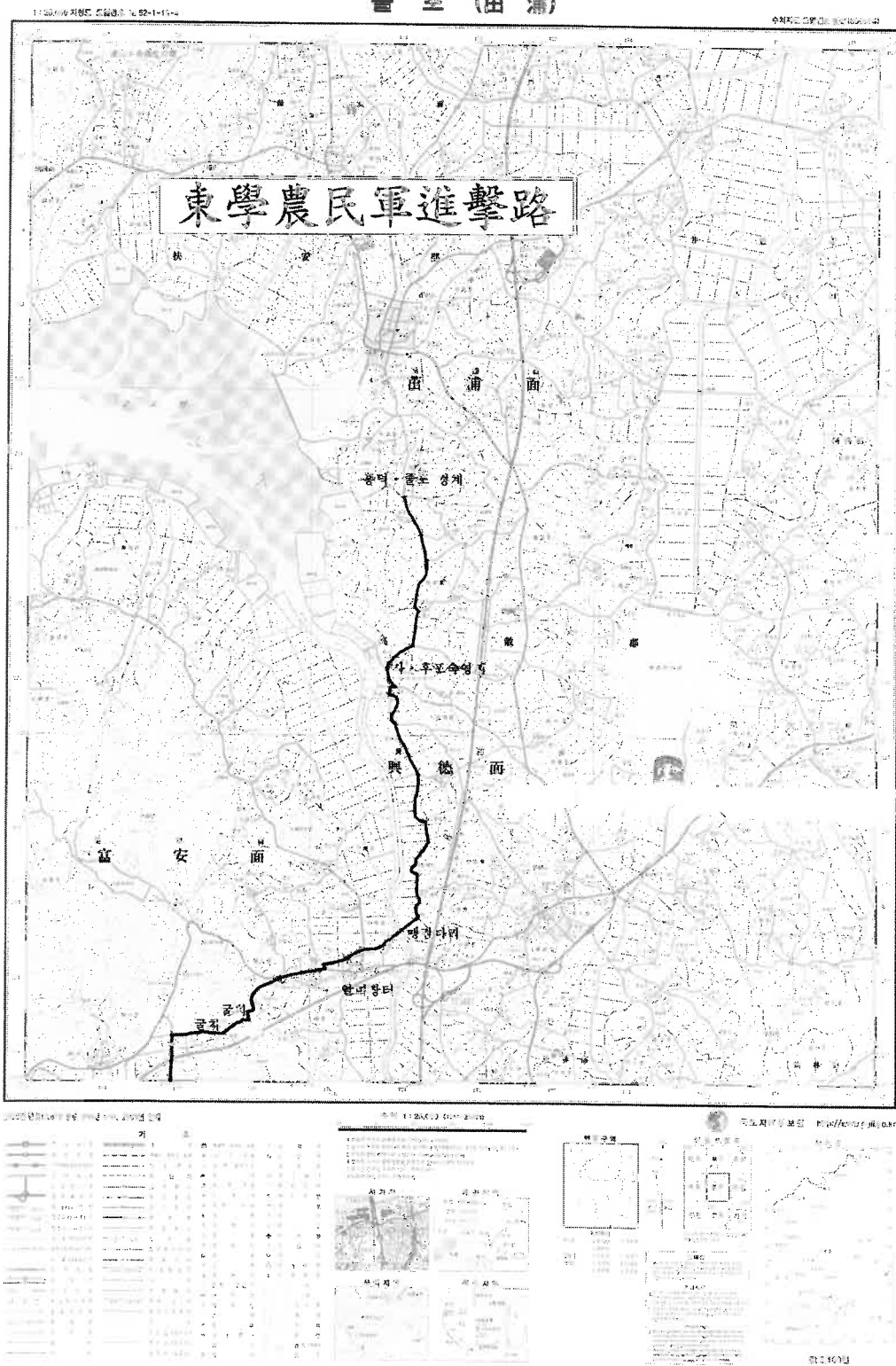
답 해 1 : 30.000 (14r=25.0m)

Copyright © 2005 by John Wiley & Sons, Inc.









제2부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 활용 방안

[발표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
신순철 (원광대학교)

[발표4]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이상균 (전주대학교)

[발표5]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김양식 (충북개발연구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

신 순 철
(원광대학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

신 순 철 (원광대학교)

I. 머리말

II.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황

III. 맺음말

별첨 :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도별)

I.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된 채 극심한 왜곡을 겪어왔다. 그리하여 농민전쟁이 끝난 직후 이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조선정부와 유림, 지방유지 등은 농민전쟁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면서 전사한 수성군 장졸들이나 민보군들의 충절을 기리는 반농민군 측의 기념사업을 추진했는가하면, 한국 근현대사의 극심한 부침으로 출현한 군사정권 담당자들은 이 사건이 지닌 민족주의적 상징성을 편취,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1980년대 광주민중항쟁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민족민주운동 세력들은 이 사건이 지닌 민중성과 민족성을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그 현재화를 추구하는 기념사업을 펼쳤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된 유적과 기념시설물들에는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유적보존과 그 관리에 있어서 이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동학농민군의 반외세, 반봉건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부합한 기념물 뿐만이 아니라 조선왕조에 대한 충절을 기린 반농민군 측 기념물과 군사정권이 정치적인

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기념물들도 다 같이 소중한 역사문화 유산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 필요성은 1894년 이후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사건에 대한 기념사업이 사업주체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20세기 한국현대사의 단면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와 기념시설물 전체를 총괄 하여 그 현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보고, 이들 유적지나 기념물 가운데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유적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황

1. 각 도별 유적지 분포 현황

2005년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조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은 130여개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련 유적 및 기념물은 별첨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표]와 같이 모두 205곳에 이른다. 이후 추가로 확인된 것들도 있을 것이기에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근대사의 분수령을 이룬 이 사건은 19세기에 빈발했던 수많은 ‘민란’들과는 그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이었다. 따라서 단일한 하나의 사건이면서도 동학농민혁명 유적 및 기념물의 숫자가 매우 많고, 그 분포 역시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유적이나 기념물들이 전국 각 지역의 문화재들과 깊이 연관성을 갖는 경우들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들을 ①인물유적 ②사건유적 ③기념시설 ④기타 유적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인물유적〉에는 농민군 지도자의 출생지, 거주지, 체포지, 처형지, 묘역 등을 포함시키고, 〈사건유적〉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모의 및 기포지 또는 집결지와 점령지, 전투지 등과 승전지, 패전지 등을 포함

시킨다. 〈기념물·시설〉에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자 건립·설치된 기념관, 기념탑, 기념비 등 각종 기념시설물들을 묶고, 〈기타유적〉에는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농민군 혹은 반농민군 측의 활동 등과 관련성이 깊은 문화재와 함께 조선왕조 혹은 유럽, 지방유지 등에 의해 세워진 반농민군 측 사당, 기념비 등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분류한 각 시도별 유적 및 기념물의 성격별 분포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시·도별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 및 기념물의 성격별 분포

구 분	계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도
인물유적	15.6%	32		1	19	1	3	1	4	3
사건유적	29.3%	60		12	26	9	5	1	6	1
기념물·시설	25.8%	53	2	2	31	4	4	2	4	4
기타유적	29.3%	60		22	17	17	1		3	
계		205	2	37	93	31	13	4	17	8
* 백 분 율			1.0%	18%	45.5%	15%	6.3%	2.0%	8.3%	3.9%

위 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인물을 기리는 유적이 32개소, 봉기지나 전투지 등의 사건유적이 60개소, 기념물 또는 기념시설이 53개소, 그 외에 기타 관련유적이 60개소를 합해 모두 205곳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적은 인물유적 32곳과 사건유적 60곳을 포함한 92곳을 들 수 있는데,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규모로 펼쳐졌음을 감안해볼 때 결코 많은 숫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현상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사건이 반란으로 치부된 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대규모로 펼쳐졌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이 92곳뿐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지와 이 사건에 참여했던 인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조사와 현장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의 문화재 지정 현황

위에서 본 205곳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 및 기념물 가운데에는 문화재관리법에 의거하여 문화재로 지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유적들도 많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05곳의 유적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유적 및 기념물은 국가 사적 19곳, 지방문화재 31곳 등을 합해 총 50곳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전체 유적지의 약 25%에 해당한다. 2010년 10월 1일 현재 문화재 지정된 유적 및 기념물들의 목록은 <표 2>, <표 3>과 같다.

1) 국가지정 문화재

<표 2>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가지정 문화재

순번	유적지명	소재지	문화재명/호수	지정주체	지정연월
1	전주성 풍남문	전북 전주	보물 308호	문화재청	1963. 1.
2	해미읍성	충남 서산	사적 11호	문화재청	1963. 1.
3	무성서원	전북 정읍	사적 295호	문화재청	1968. 12.
4	홍주성	충남 홍성	사적 231호	문화재청	1972. 10.
5	전주 객사	"	보물 583호	문화재청	1975. 3.
6	전봉준 고택 *	전북 정읍	사적 293호	문화재청	1981. 11.
7	남원성	전북 남원	사적 298호	문화재청	1982. 11.
8	전주 경기전	전북 전주	사적 399호	문화재청	1991. 1.
9	무장읍성	전북 고창	사적 346호	문화재청	1991. 2.
10	담양 금성산성	전남 담양	사적 353호	문화재청	1991. 9.
11	우금치 전적지 *	충남 공주	사적 387호	문화재청	1994. 3.
12	선운사 도솔암마애불	전북 고창	보물 120호	문화재청	1994. 5.
13	고창읍성	전북 고창	사적 145호	문화재청	1995. 4.
14	전라병영성지	전남 강진	사적 397호	문화재청	1997. 4.
15	황룡전적지 *	전남 장성	사적 406호	문화재청	1998. 6.
16	백산성	전북 부안	사적 409호	문화재청	1998. 9.
17	진남관	전남 여수	국보 304호	문화재청	2001. 4.
18	위봉산성	전북 완주	사적 471호	문화재청	2006. 4.
19	석대들전투지 *	전남 장흥	사적 498호	문화재청	2009. 5.

* 표는 문화재 지정의 요인이 전적으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지

2) 시·도지정 문화재

〈표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도지정 문화재

순번	유적지명	소재지	문화재명/호수	지정주체	지정연월
1	나주 금성관	전남 나주	유형문화재 2호	전라남도	1972. 2.
2	무장동헌	전북 고창	유형문화재 35호	전라북도	1973. 6.
3	교룡산성	전북 남원	기념물 9호	전라북도	1973. 6.
4	안흥성	충남 태안	기념물 11호	충청남도	1973. 12.
5	서산관아 외동헌	충남 서산	유형문화재 41호	충청남도	1976. 1.
6	만석보 터 *	전북 정읍	기념물 33호	전라북도	1976. 4.
7	흥덕동헌	전북 고창	유형문화재 77호	전라북도	1976. 4.
8	태인동헌	전북 정읍	유형문화재 75호	전라북도	
9	풍암리 전적지 *	강원 홍천	기념물 25호	강원도	1977. 11.
10	선산해평일본병참부 터	경북 구미	민속자료 105호	경상북도	1979. 12.
11	고부엔읍성	전북 정읍	기념물 53호	전라북도	1981. 4.
12	우덕리 산성	전북 정읍	기념물 51호	전라북도	1981. 4.
13	고부향교	전북 정읍	문화재자료 74호	전라북도	1984. 4.
14	최시형선생묘	경기 여주	향토유적 8호	여주군	1986. 4.
15	나주목사 내아	전남 나주	유형문화재 132호	전라남도	1986. 9.
16	나주목사내아	전남 나주	문화재자료 132호	전라남도	1986. 9.
17	금성토평비 *	전남 나주	문화재자료 175호	경상북도	1990. 2.
18	목애당	충남 태안	유형문화재 138호	충청남도	1992. 8.
19	목애당	충남 태안	문화재 138호	충청남도	1992. 8.
20	황화대	충남 논산	기념물 92호	충청남도	1993. 12.
21	소근진성	충남 태안	기념물 93호	충청남도	1993. 12.
22	소근진성	충남 태안	기념물 93호	충청남도	1993. 12.
23	천안 세성산성	충남 천안	기념물 105호	충청남도	1997. 8.
24	고성산성	경남 진주	기념물 142호	경상남도	1994. 7.
25	수운 최제우 유허지	경남 울산	기념물 12호	경상남도	1997. 10.
26	상주 동학교당	경북 상주	민속자료 120호	경상남도	1999. 12.
27	말목장터 *	전북 정읍	기념물 110호	전라북도	2001. 4.
28	전라감영지(선화당)	전북 전주	기념물 107호	경상남도	2001. 9.
29	천도교 장흥교당	전남 장흥	기념물 218호	전라남도	2003. 5.
30	고부관아 터	전북 정읍	기념물 122호	전라북도	2005. 6.
31	용못(송장배미)	충남 공주	향토기념물 4호	공주시	

* 표는 문화재 지정의 요인이 전적으로 동학농민혁명 때문인 유적지

이상의 <표 2>, <표 3>을 통해 우리는 문화재로 지정된 50곳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분석해보면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전체 50곳의 유적지 가운데 순수하게 동학농민혁명에만 관련되어 지정된 유적은 8곳이다. 국가 사적지 가운데 정읍의 전봉준 고택, 공주의 우금치 전적지, 장성 황룡전적지, 장흥 석대들전적지 등 4곳과 시·도지정 문화재 가운데 정읍 만석보 터, 홍천 풍암리 전적지, 나주 금성토평비, 정읍 말목장터 등 4곳이 이에 해당된다. 나머지 42곳은 그 지정 사유가 동학농민혁명 외의 다른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었다. 예를 들면 부안의 백산성은 동학농민혁명의 농민 집결지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백제시기의 토성이라는 점이, 고창 선운사마애불은 불교미술 유산이라는 점 등이 문화재 지정의 사유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 전라도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지정 유적 50곳 가운데 전북이 21곳, 전남이 10곳으로 절반 이상인 31곳(전체의 62%)이 전라도 지역의 유적이다. 그 다음으로는 충남이 13, 경북 2, 경남 2, 강원 1, 경기 1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지정 문화재 19곳만 보면 전북 10곳, 전남 5곳으로 전남·북도가 15곳(약 79%)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충남 4곳이 전부이다. 시도지정 문화재의 지정 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전북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남 9, 전남 5, 경북 2, 경남 2, 강원·경기 각 1의 순이었다.

셋째, 시기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시도지정 문화재로 처음 지정된 것은 1970년대 중반이었다. 그러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1981년 전봉준 고택이 처음이다. 국가사적이 1980년대 들어와서야 비로소 지정된 것은 197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북 정읍지역이나 강원 홍천의 유적들이 시·도지정 문화재로 등재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실들이 안내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대적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화재 지정과정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1970년대 이후 정치권에 의하여 조작된 지역감정이 고조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지역별 인식의 차이가 문화재 지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3. 고창지역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 문제

1) 고창지역 유적지 현황

고창지역은 전봉준의 생가 터와 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무장기포지가 소재한 곳으로서 인근의 무장·흥덕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지역은 위로는 정읍 고부, 부안 아래로는 장성, 영광, 법성포, 나주와 접한 곳으로서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세력의 핵심적인 근거지였다.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농민군이 전제왕조와 부패한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첫 번째 선전포고를 했던 무장기포의 현장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동학농민혁명 최고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가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근간을 이루었던 손화중 포의 근거지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동학농민혁명 전체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고창지역의 유적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이 표에서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그 중요도에서 단연 그 첫 번째에 놓일 수 있는 ‘전봉준 생가’와 ‘무장기포지’ 등이 아직까지도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표 4>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순번	성 격	유적지명	문화재 등재여부	비 고
1	인물유적	전봉준 생가		
2	"	손화중 도소지		
3	"	손화중 피체지		
4	사건유적	여시외봉(호산봉)		
5	"	선운사도솔암마애불	보물 1200호	
6	"	무장기포지		
	기념시설	발상지비		
	"	무장창의포고비		
	"	무장기포 기념탑		
	"	고창주 추모비		
7	관련유적	무장동헌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35호	
8	"	흥덕동헌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77호	
9	"	고창읍성	사적 145호	
10	"	무장읍성	사적 346호	

호남지역에서 최대의 조직으로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했던 손화중 장군에 대한 유적들도 지금까지 문화재로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임진년 8월 손화중포에서 주도했던 ‘비기탈취사건’의 무대였던 선운사마애석불이 동학농민혁명과의 관련성이 아닌 미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고, 동학농민혁명과 간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고창읍성·무장읍성과 무장동헌·홍덕동헌 등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고창지역 유적지 문화재 지정의 과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창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할 유적은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생가, 그리고 도소를 포함한 손화중 관련 유적들이다. 이미 10여 년 전 고창군이 전봉준 생가의 국가 사적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고창군 내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가사적 지정의 추진에 앞서 전라북도 또는 군 조례에 의한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사적 지정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는 시장 군수의 신청으로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앞서 군 자체로도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할 수도 있다. 문화재보호법 상 시군이 지정한 문화유적인 경우에도 그 관리나 보존에 있어서 동일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 앞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 공주시나 여주군 등이 일부 유적지를 시군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현재 전라북도 내의 각 시군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둘째, 국가나 시·도지정 문화재의 지정 기준이나 보존관리의 원칙은 1972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그 이후의 각종 국제기구에서 제시된 문화유산 관련 기준에 의하여 국내에서도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은 148개국 890건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9건이 등재되었다. 세계문화유산의 조사 및 평가 기관은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S)이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1964년부터 사적지의 보호, 보존, 보수, 관리 등

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원칙이나 기준의 핵심은 사적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authenticity) 및 완전성(integrity), 충분한 보존관리체계의 유지, 원형 중심의 보존, 보수, 복원, 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뿐만 아니라 고창군이 보존하고, 보호되어야 할 문화유적 및 기념물에 대해서는 위의 원칙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갖추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 추진과 아울러 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의 지정이나 보존의 필요성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계승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적지의 원형을 보존, 보호하고 복원하는 일은 당시의 현장이라고 하는 장소성과 원형성이 잘 보존되어야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기억과 기념은 현장을 방문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어둡고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유산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2008년부터 추진해온 유적지 조사용역과 스토리텔링 자료, 역사기록화 등을 활용하여 이를 관광 프로그램화의 단계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접근 방법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관광자원화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들을 살펴보았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들은 그 성격과 형태에 따라 인물유적, 사건유적, 기념시설, 기타 유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 10월 1일 현재까지 파악된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등 모두 205곳으로, 이들 유적지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은 모두 50곳인데 이 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국가 사적, 보물 등)는 19곳이고, 시도지정 문화재(기념물,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등)는 31곳이다.

그동안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과 기념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농민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유적 등이 매우 빈약하다는 점. 둘째, 그나마 확인되고 있는 사건유적과 인물유적 등이 전라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셋째, 이 사건과 관련된 유적들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선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동학농민혁명이 반란으로 치부되면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주체들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견해에 따라 그 기념사업이 각기 달리 추진되어온 것과 관련이 깊다. 실제로 1895년부터 일제식민지시기까지는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면서 전사한 수성군 장졸들의 넋을 기리면서 조선왕조에 대한 충절을 추앙한 반농민군 측 기념사업이 추진되었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군사정권에 의해 자기 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호도하기 위한 상징조작 차원에서 기념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 민족민주세력들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1980년 후반, 특히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을 전후해서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해 반외세, 반봉건이라는 이 사건의 주요한 기치가 당대의 정치현실과 연계되어 반외세자주화, 반독재민주화라는 기치로 그 현재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지난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뒤늦게나마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의 기폭제가 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었던 사건현장과 여기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학술연구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확인된 역사현장과 그 현장에 건립·설치된 기념시설물과 이 사건에 참가한 인물 등에 대한 역사유적, 유물들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유적들의 문화재지정 사업을 해당지역의 지역정체성 확립의 기제로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시대에 부응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활용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별첨 :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도별)

◆ 서울

순번	성 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1	기념시설	장춘단	서울	1895	
2	"	의암 손병희 동상	"	1966	

◆ 전라남도

순번	성 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1	사건유적	황룡 전적지	전남 장성		사적 406호
2	기념시설	기념공원, 기념탑	"	1995	
3	기타유적	송좌승지이공학승순절비	"	1897	
4	"	장경삼 형제 공적비	전남 함평	1996	
5	"	금성토평비	전남 나주		시도문화재자료 175호
6	"	나동환의적비, 진주정씨 행적비	"		
7	"	나주목사내아	"		전남도 문화재자료 132호
8	"	나주금성관	"		전남도 유형문화재 2호
9	"	금성토평비	"	1895	
10	"	천도교 장흥교당	전남 장흥		시도기념물 218호
11	"	영회단(당)	"		
12	"	광서이십년갑오동학란수성장 졸순절비	"	1899	
13	"	벽사도찰방김후일청사복성불 망비	"	1900	
14	"	홍룡단	"	1901	
15	사건유적	석대들전투지	"		사적 498호
	기념시설	기념탑	"	1992	
17	사건유적	옥산리 전투지	"		
18	"	장흥 · 강진집강소 터	"		
19	기타유적	전라병영성지	전남 강진		사적 397호
20	인물유적	김지홍 집	전남 여수		
21	사건유적	동성산 전투지	"		

순번	성 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22	사건유적	석창성 전투지	전남 여수		
23	"	김지홍 화형 터	"		
24	"	나진 돌무덤 터	"		
25	"	장수 돌무덤 터	"		
26	기타유적	진남관	"		국보 304호
27	"	좌수영 서문 터	"		
28	"	사항 염전 터	"		
29	"	흥국사	"		
30	"	덕양역	"		
31	"	최부자집	"		
32	"	열녀김씨 제각	"		
33	사건유적	김인배 효수 터	전남 광양		
34	"	망덕나루 · 섬진나루	"		
35	"	가장골	"		
36	기타유적	섬거역	"		
37	"	유당공원	"		

◆ 전라북도

순번	성 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1	인물유적	김개남 효수 터	전북 전주		
2	사건유적	전주성 서문지	"		
3	"	전주시 용머리고개	"		
4	"	전라감영지(선화당)	"		시도기념물 107호
5	"	완산전투지	"		
6	기념시설	전주입성 기념비	"	1991	
7	"	동학전적지비	"		
8	"	전봉준 동상	"	1981	
9	"	김개남 추모비	"	1993	
10	"	손화중 추모비	"	1998	
11	"	동학혁명기념관	"	1996	
12	기타유적	전주성 풍남문	"		보물 308호
13	"	전주 경기전	"		사적 399호
14	"	전주 객사	"		보물 583호

순번	성 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15	인물유적	전봉준 고택	전북 정읍		국가사적 293호
16	"	전봉준 묘역(단비)	"	1954	
17	"	김개남 고택 터	"		
18	"	김개남 묘역	"		
19	"	김개남 생가 터	"		
20	"	김개남 피체지	"		
21	"	손화중 생가 터	"		
22	"	손화중 묘역	"	1996	
23	"	최경선 생가 터	"		
24	"	최경선 묘역	"	1996	
25	사건유적	말목장터	"		전라북도 기념물 110호
26	"	예동마을	"		
27	"	고부관아 터	"		
28	"	동학농민군 우물	"		
29	"	태인 전투지	"		
30	"	기해정읍농민봉기지	"		
31	"	황토현 전투지	"		
32	기념시설	만석보 혁파선정비	"	1898	
33	"	무명농민군 위령탑	"	1994	
34	"	동학혁명 모의탑	"	1969	
35	사건유적	만석보 터	"		전라북도 기념물 33호
36	기념시설	만석보 유지비	"	1973	
37	"	만석보 기념비	"	1987	
38	"	만석보 시비	"	1999	
39	사건유적	사발통문 작성지	"		
40	"	사시봉	"		
41	기념시설	100주년 기념탑	"	1997	
42	"	전봉준 공원	"	1997	
43	"	3대 장수 동상	"	1997	
44	"	갑오동학혁명기념탑	"	1963	
45	사건유적	황토현전적지	"		국가사적 295호
46	기념시설	전봉준 동상	"	1987	
47	"	황토현 기념관	"	1983	

순번	성 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48	기념시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북 정읍	2004	
49	기타유적	고부옛읍성	"		전라북도 기념물 53호
50	"	고부향교	"		전라북도 문화재자료74호
51	"	군자정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133호
52	"	태인동헌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75호
53	"	조규순영세불망비	"		보물 제289호
54	"	무성서원	"		국가사적 295호
55	"	우덕리산성	"		전라북도 기념물 51호
56	"	고부관아터	"		전라북도 기념물 122호
57	인물유적	전봉준 생가	전북 고창	2003	
58	"	손화중 도소지	전북 고창		
59	"	손화중 피체지	"		
60	사건유적	여시외봉(호산봉)	"		
61	"	선운사도솔암마애불	"		보물 1200호
62	"	무장기포지	전북 고창		
63	기념시설	발상지비	"		
64	"	무장창의포고비	"	1994	
65	"	무장기포 기념탑	"		
66	"	고창주 추모비	"		
67	기타유적	무장동헌	"		시도유형문화재 35호
68	"	고창읍성	"		사적 145호
69	"	무장읍성	"		사적 346호
70	"	흥덕동헌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77호
71	인물유적	김덕명 생가 터	전북 김제		
72	"	김덕명 묘역	"	1987	
73	"	김인배 생가 터	"		
74	사건유적	금구·원평취회 터	"		
75	"	무명농민군 묘역	"		
76	"	금구·원평 도회소	"		
77	"	원평 구미란 전투지	"		
78	기념시설	위령각	"	1994	
79	"	김덕명 추모비	"	1989	
80	인물유적	전봉준 피체지 조성	전북 순창	2005	

순번	성 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81	인물유적	최시형 은거지	전북 임실		
82	사건유적	삼화집회 터	전북 완주		삼례역참 터
83	"	대둔산 최후항전지	"		
84	기념시설	대둔산항쟁전적비	"	2001	
85	"	삼례봉기 기념비	"	1996	
86	"	삼례봉기 역사광장	전북 완주	2002	
87	"	동학농민혁명기념비	"	2004	
88	사건유적	백산대회 터(백산성)	전북 부안		사적 409호
89	기념시설	백산창의비	"	1989	
90	기타유적	남원성	"		사적 298호
91	사건유적	교룡산성	전북 남원		시도기념물 9호
92	기념시설	교룡산성 은적암 기적비	"	2006	
93	기타유적	박봉양 기념비	"		

◆ 충청북도

순번	성 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1	사건유적	문바위굴	충북 옥천		
2	"	재기포 기념비	"		
3	기념시설	모충사	충북 청주	1914	
4	"	갑오전망장줄기기념비	"	1905	
5	"	홍재회 선정비	"		
6	"	기념공원	충북 보은	2007	
7	사건유적	망나니굴	"		
8	"	보은집회 터	"		
9	"	되자니 전투지	충북 음성		
10	인물유적	최시형 은신처	"		
11	"	의암 손병희 어록비	충북 청원	1986	
12	"	의암 생가 성역화, 동상	"	1994	
13	기타유적	오형군 군수 애민선정비	충북 영동		

◆ 충청남도

순번	성 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1	사건유적	우금치 전적지	충남 공주		사적 387호
2	"	이인전투지	"		
3	"	효포, 웅치전투지	"		
4	"	공주집회 터	"		
5	"	송장배미	"		
6	기념시설	동학혁명군위령탑	"	1973	
7	"	동학혁명군위령사비	"	1994	
8	사건유적	용못(송장배미)	"		시지정항토문화유적기념물 4호
9	"	목천 세성산 전투지	충남 천안		시도기념물 105호
10	"	황화대	충남 논산		시도기념물 92호
11	기타유적	공조참의정숙조순의비문	충남 금산	1902	
12	"	군관 정지환순의비문	"	1902	
13	"	모충단	"	1904	
14	"	관찰사박제순애민선정비	충남 홍성	1895	
15	"	행목사검초토사이공승우 백세불망비	"	1895	
16	"	증 군무참의김공병돈유공 지비	"	1895	
17	"	의사 한기경정려비	"	1896	
18	"	철의비	"	1935	
19	"	홍주성	"		사적 231호
20	"	초토사이공승우청덕비	충남 아산	1895	
21	"	의사 한홍규순절비	"	1912	
22	기념시설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	충남 태안	1978	
23	"	동학농민혁명전래비	"		
24	사건유적	동학농민군 처형장	"		
25	기타유적	목애당	"		시도지정문화재 138호
26	"	소근진성	"		시도지정기념물 93호
27	"	해미읍성	충남 서산		사적 11호
28	"	초토사이공비	"	1895	
29	"	유희장유학박순식저덕비	"	1895	
30	"	증 군무참의김공병돈충절 전망비	"	1896	
31	인물유적	춘암상사 박인호 유허비	충남 예산	1985	

◆ 경상북도

순번	성 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1	기념시설	상주 동학교당	경북 상주		시도민속자료 120호
2	"	상주 전시관	"		
3	"	상주동학농민군기념상	"	1996	
4	사건유적	상주읍성 터	"		
5	"	소리마을 새 터	"		
6	기타유적	일본군 병참부 터	"		
7	인물유적	김현영 대접주 고택 터	"		
8	기타유적	예천관아 객관 건물	경북 예천		
9	사건유적	동학농민군 생매장 터	"		
10	"	한천제방과 격전지	경북 예천		
11	"	동학농민군 집결지	"		
12	인물유적	윤치문 고택 터	"		
13	"	전기항 묘	"		
14	사건유적	김천장터	경북 김천		
15	기타유적	선산해평일본병참부 터	경북 구미		중요민속자료 105호
16	인물유적	해월 최시형 동상	경북 경주	1979	
17	기념시설	내척수도문반포백주년기념비	경북 금릉	1991	

◆ 경상남도

순번	성 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1	사건유적	고성산성	경남 진주		시도기념물 142호
2	기념시설	동학혁명군위령탑	"	1994	
3	"	진주관아 대도소 터	"		
4	인물유적	수운 최제우 유허비	충북 음성		시도기념물 12호

◆ 강원도

순번	성 격	유적지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 고
1	사건유적	풍암리 전적지	강원 홍천		시도기념물 25호
2	기념시설	동학혁명위령탑	"	1977	
3	"	천도교사적지 표지석	강원 영월		
4	인물유적	해월 최시형 피체지	강원 원주		
5	"	해월신사 추모비	"	1990	
6	기념시설	피체지 표지석	강원 원주	1995	
7	인물유적	해월신사 독공지비	강원 정선	1993	
8	기념시설	동학사적 기념비	강원 고성		

◆ 참고자료

- 고창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고창동학농민혁명성역화전략사업, 2008
- 고창문화원,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1998
-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기념시설 실태조사서』, 2005
- 장흥군, 『장흥 석대들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정자료, 2008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기본계획』, 1999
- 전라남도,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사』, 1996
- 전라남도,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1996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계획』, 2004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이 상 균
(전주대학교)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이 상 균(전주대학교)

- I. 머리말
- II.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주요 유적지
- III.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
- IV.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반조성
- V. 맺음말

I.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서구의 열강에 맞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한 일대 큰 사건이었으며, 민중에 의한 항쟁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어 성리학적 전통의 질서를 붕괴시켰으며,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이 의병운동에 가담함으로써 구국의 투쟁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에 있어서 전라도 지역의 정읍과 고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을 만방에 선포한 무장기포지가 있으며, 손화중의 활동무대, 전봉준의 생가가 존재한 곳으로 정읍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인식결여와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 홀대를 받은 감이 없지 않다.

다행히 고창군과 고창문화원이 주도하여 이미 학술대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게다가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발족하여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고창군에서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의 활동, 동학에 대한 군민의 관심, 학술대회 기반 등을 통하여 고창을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살펴봄과 동시에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제언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II.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주요 유적지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직접적인 전투지나 사건이 일어난 유적지이기보다는 혁명의 기반이 된 현장이나 인물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관련되는 곳은 11개소 정도이며, 이중 동학유적과 직접 관련된 장소는 7개소 정도이다. 유적지는 기포지, 생가터, 관아, 훈련지, 도소, 피체지 등이 존재하며, 공음면 용수리 용수마을의 절터가 손화중포의 비밀 모의장소로 추정되기도 한다.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적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번호	유 적 지	소 재 지	문화재 지정
1	무장기포지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2	여시외봉	공음면 신대리와 무장면 신촌리에 걸쳐있음	
3	삿갓봉	공음면 용산리	
4	전봉준 생가터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	
5	손화중 도소	성송면 괴치리 276-1	
6	손화중 피체지	부안면 송현리 120번지	
7	정백현 생가터	공음면 예전리 상례마을	
8	선운산 도솔암 마애불	아산면 삼인리 618	보물 1200호
9	무장읍성	무장면 성내리 149-1	사적 346호
10	홍성 동헌	홍덕면 홍덕리 428-3	유형문화재 77호
11	고창읍성	고창읍 읍내리 산9번지	사적 145호

1. 무장기포지

무장기포지는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에 자리하며, 구수 혹은 구 시내 라고도 불리고 있다. 구수마을의 인근에 있는 석교마을은 세창이 있어 군량미를 조달하는데 유리한 여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곳은 가까이에 고창과 정읍, 북동쪽으로 전주가 자리하고, 남으로는 영광, 장성 등지와도 연결되는 육상교통의 요지이다. 아울러 이전에는 석교마을까지 선박이 출입하고 법성포가 가까이에 있어 해상교통도 편리한 지역이었다. 구수마을에는 마을 앞에 당산나무가 있었다고 하나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금은 없어진 상태이다. 이곳은 1894년 3월 20일 약 3000여명의 동학농민군이 모여서 창의문을 선포하면서 제1차 봉기가 시작된 곳이다. 당시의 상황은 지방관청의 공문인 『隧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라는 비석과 무장창의포고비, 동학농민군 훈련장,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이 새겨진 기념조형물 등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당시의 흔적을 찾을만한 유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포 당시의 당산나무를 주변으로 한 지역에 관련된 건물지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나 시굴조사가 진행되면 좋을 듯하다.



사진1 무장기포지

2. 여시외봉

여시외봉은 현재 왕제산에 해당하며, 동학농민군의 훈련지이자 근거지로 불리고 있다. 무장기포지에서 가까운 지역이어서 평상시에는 훈련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위급시에는 여시외봉에 진을 치고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사방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격과 방어에 유리하며, 물자를 공급하는데 유리한 지역이다. 실제로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



사진2 여시외봉

파하고 서남해 방면으로 진격하게 되는데, 1894년 4월 9일 무장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이 이곳 여시피봉에 진을 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유구는 요새로 불리는 땅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샷갯봉

샷갯봉은 공음면 용산리에 위치하며, 여시피봉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정상에는 봉수대가 위치해 있고, 요새로서의 지형을 갖춘 이곳에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만든 군사용 병커가 설치되었다한다. 동학농민군이 이곳 샷갯봉과 여시피봉에서 군사 및 특수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3 샷갯봉

4. 전봉준 생가터

전봉준 생가터는 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에 있으며, 뒤쪽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고창 지석묘군이 있다. 생가터는 1998년 고창군의 학술조사에서 증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확인되었다. 전봉준은 1855년 12월 3일 이곳에서 서당 훈장을 하던 전창혁의 아들로 태어나 13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에는 서당, 안채, 사랑채 등이 있었다고 하나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에 모두 소실되어 현재는 생가와 헛간채 2동이 복원되어 있다. 이 마을에는 전봉준 선대의 묘소가 자리하고, 그의 어렸을 때의 일화가 구전되고 있다고 한다.



사진4 전봉준 생가터

5. 손화중 도소

손화중 도소는 성송면 피치리에 있으며, 처음 포교활동의 시작은 양실마을에서 시작하였다. 현재 피치리에는 손화중 도소로 표기하였고, 양실마을의 것은 손화중 거소로 표기하였다. 손화중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자 피치리의 도소로 옮겨 활동하였다. 본래 본채 외에 사랑채가 ㄱ자로 남아있었으나 몇해전에 헐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치리 도소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 농민군의 세력과 동학교단의 근거지였으며, 손화중은 이곳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전봉준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였다. 손화중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김개남과 함께 총사령관으로 추대되어 고부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촌 전투를 이끌었으며, 9월의 재봉기 때에는 일본군의 남해안 상륙을 대비하여 나주와 광주를 지켰다.



사진5 손화중 도소

6. 손화중 피체지

손화중 피체지는 부안면 안현리 수강산의 산당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이곳은 부안면 송현리 수강산의 이씨 재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화중 피체지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적은 고창군으로서는 좋은 자료로 판단되므로 수강산 일대에 대한 학술조사와 함께 순창 피노리에 있는 전봉준 피체지와 같이 정비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손화중의 피체지와는 달리 손화중의 생가터와 묘역은 정읍에 있다. 생가터는 정읍 과교동의 국도 1호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역은 정읍 상평동 음성리 음성마을 산 중허리 초입에 있다.



사진6 손화중 피체지

7. 정백현 생가터

정백현은 전봉준의 비서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생가터는 공음면 예전리 상례마을에 있다. 정백현은 동학농민혁명 봉기에 있어서 사발통문, 무장창의문 등의 주요 격문을 작성하여 전국으로 보낸 인물이다. 그는 봉기의 와중에서도 잡히지 않고 살아남았으며, 『眞庵見聞錄』의 문집을 남겼다.



사진7 정백현 생가터

8. 선운산 도솔암 마애불(보물 1200호)

도솔암 마애불은 선운산 내에 있으며, 도솔암 좌측의 절벽에 있는 17m의 거대한 마애불이다. 이 마애불의 가슴 감실에 점단선사가 넣은 비결이 있는데, 이를 꺼내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설에 1892년 8월 손화중포에서 이를 탈취하였던 것이다. 이 마애불의 비결을 탈취했다는 소문에 수만명의 교도들이 몰려들었다 하나,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진8 도솔암 마애불

9. 무장읍성(사적 346호)

무장읍성은 무장면 성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전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읍성내에 있는 관아(유형문화재 35호), 객사(유형문화재 34호) 등의 부속건물이 남아 있으며, 한때는 동학농민군에게 점령되어 소각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복상에 앞서 고창, 무장, 흥덕

등의 관아를 점령하여 주요 거점지로 활용하였다. 다른 지역은 부패한 정부의 상징이던 관아 건물이 동학농민군에 의해 불타고, 공문서 등이 소각되었지만, 무장 관아는 원형을 보존한 채 남아있어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진9 무장읍성

10. 홍성 동헌(유형문화재 77호)

홍성 동헌은 홍덕면 홍덕리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해체 보수시 발견된 상량문에 홍성읍성의 동헌 건물을 1807년에 이곳으로 이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곳은 동학농민군이 1894년 4월 8일에 점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곧바로 고창으로 진격하여 고창읍성도 점령하였다.



사진10 홍성 동헌

11. 고창읍성(사적 145호)

고창읍성은 고창읍 읍내리에 위치하고 모양성으로도 불리고 있다. 동학과 관련해서는 동학농민군이 고부 황토재에서 승리한 다음날인 1894년 4월 8일, 홍계훈의 관군이 전주성에 입성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북상하지 아니하고, 홍덕현과 고창현을 점령하고 고창읍성의 옥에 갇혀 있던 동학교도들과 죄수를 석방한 곳이다.



사진11 고창읍성

Ⅲ.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

1. 고부봉기와 제1차 봉기의 전개

19세기 이후 삼정문란으로 인하여 농촌사회의 파탄이 지속되었으며,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열강의 침탈 각축장이 되었다. 정부에 의한 세금의 수탈과 여기에 한몫 더하여, 지방관들의 농간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였고, 급기야는 봉건사회의 부정부패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민들에 의한 항쟁은 조직과 평등사상의 기반이 된 동학교도에 의해서였다.

1892년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에 의해 온갖 수탈이 이루어졌으며, 전봉준을 위시하여 1893년 11월 사발통문의 거사를 계획하였다.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발령되었다가 1894년 1월 9일 재차 고부군수로 발령되자, 1894년 1월 10일 동학농민군이 말목장터에 모여 고부 관아로 진격하였다. 이른바 고부민란이라 불리는 고부봉기이며, 여기에는 사발통문의 서명자인 전봉준, 최경선 등 동학의 접주와 1000여명의 농민군이 가담하였다. 이들은 죽창으로 무장하고 고부관아를 점령하여 옥문을 열어 무고한 자를 석방하였으며, 수탈한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1월 17일 이후에는 군기고를 격파하여 무기를 탈취한 뒤, 만석보를 파괴하고 백산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2월 19일 봉기가 재기되었으며, 전봉준은 그 여세를 몰아 봉기를 전라도 전역으로 확산하고자 창의격문을 보냈다. 3월 3일 신임 고부군수 박원명의 회유로 봉기의 참여자들이 해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해산 후 안핵사 이용태는 봉기의 책임을 동학교도와 농민에게 전가시켰으며, 책임자를 색출하며 학대가 시작되자, 전봉준은 심복들과 함께 고창의 무장으로 피신하였다.

이후 무장기포지에서 1894년 3월 20일 약 3000여명의 동학농민군을 결집하여 창의문을 선포하면서 제1차 봉기가 시작되었다. 무장을 떠난 동학농민군은 3월 24일 고부 관아를 다시 점령하였고, 3월 26일에는 백산에 집결하여 이른바 백산대회를 통해 진용을 새롭게 편성하여 봉기가 본격화 되었다. 이 백산대회를 통하여 대장에 전봉준, 총관령에 손화중, 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 오지영, 영술장에 최경선, 비서에 송희옥, 정백현이 선정되었으며, 동학농민군도 8000여명이 참가하여 그 대오가 갖추어졌다. 3월 29일에는 태인 관아를 점령하고, 4월 1일에는 원평, 금구로 진격하였으나, 관군 10000여명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부대를 3대로 나누어 남하하였다. 동학농민군은 다시 4월 6일 고부 도교

산에 집결하였고, 4월 7일 새벽에 고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였으니 이것이 유명한 황토현 전투이다. 동학농민군은 북상하지 않고 주변의 정읍과 고창 일대를 점령하고 무장에서 머무른 다음, 남하하여 4월 12일에 10000여명의 동학농민군이 영광을 점령하였다. 동학농민군이 남하한 이유는 관군이 전주에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동학농민군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월 16일에는 함평을 점령하고, 4월 21일에 장성 월평리에 도착하여 황룡촌에 진을 쳤다. 4월 23일에는 황룡촌에서 홍계훈이 이끄는 관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장성에서 승리한 후, 북상을 시작하였으며, 4월 27일 전주성을 함락시키고 입성하였다.

이와 같이 동학농민군은 전주 입성에 이르기까지 고부 황토현 전투와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라도 일대의 20여개의 군현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5월 7일 전주화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주성을 관군에게 내어 주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 민정기관인 53개소 집강소의 성립과 함께 폐정개혁을 단행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폐정개혁 요구에 대한 실천 의지도 없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능력도 없어 결국 청나라에 파병요청을 하였으며, 일본도 텐진조약의 구실로 군대를 파병하여 청일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2. 무장기포지의 의의

제1차 봉기는 고부봉기가 실패한 후, 무장기포지에서 창의문을 선포하고 비로소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으며, 이곳 무장은 동학농민군의 거점지가 되었다. 전봉준은 고부봉기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무장으로 피신하여 고창에서 세력이 있는 손화중과 결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동학의 조직과 활동을 단순히 종교의 범주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의 개혁운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조직과 세력 없이 농민만을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을 전개할 수 없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봉준은 손화중과 함께 무장에 도소를 설치하고 고부봉기의 어려움을 만회하고자 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시켜 농민 봉기를 철저히 준비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동학농민군의 주요인물로 고창 출신이 많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봉준을 비롯하여 장령급으로는 홍덕의 고영숙, 고창의 홍낙관, 오하영, 오지영, 무장의 강경중, 송경찬, 송문수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무장기포지는 동학농민혁명을 전개시키기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곳이며, 혁

명의 의지를 전국에 알리고 본격적인 농민혁명에 돌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항쟁을 전국적인 차원의 장기 지속적인 항쟁으로 전개시켰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당시의 무장은 육상과 해상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 대접주 손화중의 영향력에 의해 동학교도들의 세력이 강했으며, 또한 천안전씨 전봉준의 연고지여서 동학의 세력을 결집시키기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서구의 열강에 맞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한 무장기포지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장기포지가 동학농민군의 거점지 역할을 하면서 제1차 봉기의 핵심을 이룬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려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볼 것인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말목장터에 모여 고부관아를 습격한 1894년 1월 10일 고부봉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1894년 3월 20일 창의문을 선포한 제1차 봉기의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의해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무장기포지에서 창의문을 선포한 시점을 인정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부가 발상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봉기로부터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고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교과서를 풀이하여 설명한 참고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에 있어서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로 나누어 보고 있다. 제1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착취에 항거하여 전봉준이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 관아를 습격한 고부봉기의 시기이다.(1894년 1월) 제2기는 동학농민혁명의 절정기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이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고 무장에서 봉기하여 고부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전주까지 점령한 시기이다.(1894년 3월) 제3기는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안을 실천에 옮긴 시기이다.(1894년 5월) 제4기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내정간섭을 강화하자,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여 구국항쟁을 전개한 시기이다.(1894년 9월).

이로 미루어보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사실상 고부봉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대학교재 등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를 위와 비슷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된 1893년 11월 사발통문의 거사계획과 맞물리어, 그 시기부터 고부봉기, 제1차 봉기인 무장기포까지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장기포가 있기까지 그 전 단계의 고부봉기와도 연관이 되지만, 진정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3월 20일 창의문과 함께 전국적으로 봉기를 선포하는 무장기포의 단계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신용하 교수의 학설에 의하면, 『隧錄』, 『石南歷事』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고부가 아니라 창의를문을 전국에 선포한 무장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히고 있다. 이전에 흔히 일어났던 민중들에 의한 봉기가 무장의 창의를문 선포를 계기로 조직적인 혁명의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이 단계가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부봉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을 징벌하려고 일으킨 농민들의 봉기이며, 제1차 봉기는 무장의 손화중 도소에 있던 동학농민군이 창의를문을 선포하고 조직적으로 봉기한 혁명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자들에 의해 무장기포지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존의 학설이 통용되고 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무장기포지에 대하여 학계의 인식변화는 물론이고, 동학혁명기념사업회나 지방관청에서 정책지원이나 홍보와 함께 고창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무장기포지에서 창의를문을 선포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본격화 되었으나, 고창에서는 직접적으로 치열한 전투나 큰 사건이 없었다. 관군과의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 전투가 비켜간 무장기포지보다는 문화재적 가치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1차 봉기의 전투에서 격전지였던 고부의 황토현, 장성의 황룡촌 지역은 무장기포지보다도 역사적인 가치가 덜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받은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학농민혁명의 연구가 역사적인 배경보다는 전투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지다보니 정신적, 사상적 배경이 된 무장기포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도 있다.

따라서 무장기포지의 경우는 전투지보다는 동학농민군의 거점지이자,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고부봉기의 거점지였던 말목장터는 이미 도기념물로 문화재 지정을 받은 상태이며, 무장기

포지도 도기념물 이상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무장기포지가 실질적인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인정을 받고, 그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당연히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4.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제언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되고 있다. 1894년 3월의 제1차 봉기인 무장기포지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이라는 점, 동학 대접주 손화중의 세력과 활동의 근거지, 전봉준의 출생지라는 사실이 근래에 확인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연구와 기반조성에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인접한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지정문화재는 이전에 고부에 속해 있던 백산성지(사적 409호)를 포함하여, 만석보터(도기념물 33호), 말목장터(도기념물 110호), 전봉준 고택(사적 293호), 황토현 전적지(사적 295호), 고부 관아터(도기념물 122호) 등 6개소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고창은 고창읍성, 무장읍성, 선운산 도솔암 마애불 정도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것도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되어 지정된 것이 아니다. 고창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화재 지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중요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선별하여 문화재로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무장기포지, 전봉준의 생가터는 고창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유적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관심도가 낮고, 문화재로서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창의문을 선포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본격화 된 무장기포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도기념물 내지는 사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는 학술적인 가치도 있어야 되겠지만, 문화재 보존관리의 양상, 지방관청의 관심도에 의해서 문화재의 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지정은 고창군만이 아니라 전북도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또한 문화재 지정의 순차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하여야 한다. 무장기포지의 경우, 먼저 도기념물의 지정을 한 다음,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사적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좋을 듯하다.

IV.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반조성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포지만을 가지고 논하여서는 안되며, 고창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존하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재조명을 비롯하여, 유적지의 기초조사,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의 정신적 측면의 위상 제고, 동학관련 유적지의 가치 제고, 유적지 정비 등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고창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주요 자료는 『隱錄』, 『石南歷事』, 『兩湖右先鋒日記』, 『兩湖招討謄錄』, 『兩湖電記』, 『東匪討錄』, 『供招』, 『甲午事記』, 『古阜民謠日記』, 『梧下紀聞』, 『東學史』 등 많은 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장기포지의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고부임이 일반화되어 있고, 앞으로 이 교재에 의해 교육이 지속된다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를 무장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나 참고서 등의 내용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일반들에게도 책자나 교양서 등을 통해서 무장기포지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임을 알려야 한다.

다음으로는, 무장기포지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장기포지는 구암리 구수마을 앞을 흐르는 구수천과 구적산에서 흐르는 하천이 토사를 운반하여 마을 앞에 넓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이 광장이 동학농민군의 훈련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지금은 공원으로 정비되어 있다. 무장기포지를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문헌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그나마 많이 진행된 편이지만, 유적지의 지표, 시굴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고학적인 조사에서 유구나 유물이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은 적어보이나, 확인 차원에서라도 무장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좋을 듯하다.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의 구조물이나 유물이 출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술조사의 측면에서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체에 대한 지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의 정신적 측면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무장기포지는 현 시점에서 유구나 유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신적인 측면의 위상을 높여서 문화재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측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장기포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군민의 자긍심과 관심의 제고, 관민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장기포지를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고창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의식 고취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고창군민에게 교육적으로도 충분한 활용을 하여야 한다. 기존에 교과서나 문헌에만 의존하는 역사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적지의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성을 겸비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배가가 될 것이며, 이는 정신적 측면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미 본고의 2장에서 상술했듯이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관련되는 곳은 11개소 정도이며, 직접 관련된 장소는 무장기포지, 여시피봉, 삿갓봉, 전봉준 생가터, 손화중 도소, 손화중 피체지, 정백현 생가터 등 7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적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고창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명성에 비해 학술적으로나 문화재적 가치로나 타 지역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그 가치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적지의 보존과 관리 대상은 주로 지정문화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점차로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각 지방관청에서도 문화재청의 이러한 문화재 정책에 동조하여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관청의 실정에 맞는 문화재보호 관련 조례제정과 법령을 통하여 유적지의 보존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V. 맺음말

고창의 무장기포지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전반적으로 고창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황, 무장기포지의 의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제언,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반조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무장기포지는 동학농민혁명을 전개시키기 위한 거점지였으며, 기존의 산발적인 항쟁에서 벗어나 혁명의 의지를 전국에 선포하고 장기 지속적이고도 본격적인 농민혁명에

돌입하였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무장기포지가 동학농민군의 거점지 역할을 하면서 제1차 봉기의 핵심을 이룬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장기포지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존의 학설이 통용되고 있는 곳이 많으며, 또한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반조성과 방안이 소홀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무장기포지에 대하여 학계의 인식변화는 물론이고, 지방관청과 민간단체에서 홍보와 함께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동학 관련 기관이나 학교·학원의 국사 교사들을 초청하여 무장기포지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을 듯하다.

지역의 문화재 지정은 전북도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순차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하여야 한다. 무장기포지의 경우는 전투지보다는 동학농민군의 거점지이자,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미 고부봉기의 거점지였던 말목장터는 도기념물로 문화재 지정을 받은 상태여서 무장기포지도 도기념물 이상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무장기포지의 경우, 도기념물의 지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사적 지정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좋을 듯하다.

아울러,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재조명과 함께 유적지의 지표조사,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의 정신적 측면의 위상 제고, 동학관련 유적지의 가치 제고, 유적지의 정비 등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근래에 고창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성지화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와 설계용역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문화재적인 가치는 훨씬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하여 무장기포지를 포함한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며, 고창지역이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기를 소원해 본다.

❖ 참고자료

- 고창군,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전략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2008.
- 고창군·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정비 기본계획』, 2007.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사』, 2010, 국사편찬위원회.
- 이병일, 『고등학교 국사 자습서』, 1995, 교학사.
-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황토재에서 우금재까지』, 동남풍, 1994.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2006.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 신순철·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 이상균,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유적지의 현황과 보존관리」, 『호남지역의 저항과 변혁의 역사』, 2010, 전북사학회 발표요지.
- 원광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계획』, 2004.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기본계획』, 1999.
-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 정읍시·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동학농민혁명의 문화자산 가치증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2009.
-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1999.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김 양 식

(충북개발연구원)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김 양 식(충북개발연구원)

- I. 문제 제기
- II. 무장기포지 보존·관리방안
- III. 무장기포지 활용방안

I. 문제 제기

2천년대에 들어와 과거사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기념시설이 조성되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그 표현방식인 기념문제에 대해서 학계는 물론 일반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역사 기억과 기념문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이념 지형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지 냉정한 비판의식과 미래 지향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기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전승하고 기념을 함께 나눌 공감대와 대중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과 기념을 재생산하고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과 기념사업은 주로 유적지 보존, 기념시설 조성(기념관·기념비·기념탑·상징조형물·기념공원·동상), 기념행사 개최(학술대회·축제·추모제), 문화예술 창작 활동 위주였다. 그 결과 많은 유적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되고, 다양한 형태의 기념시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물론 아직도 보존·정비되어야 할 유적지가 많고 기념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념사

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유적지와 기념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대중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기념시설로 활용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억의 가치와 의미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써,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영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선순환관계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그를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이 나홀로 자기만의 진정성과 가치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다른 영역과의 전략적 제휴와 공유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기억과 기념의 현재성의 문제이자, 대중성과 보편성 위에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의 문제이다. 그러할 때 과거만을 위한 기억과 기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만나는 기억과 기념이 될 것이며 장기지속성을 선도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풀어가는 전략도 동일하다. 최근 고창군은 전봉준의 출생지이자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동학농민혁명의 기억 원형을 앞세워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고창군의 기억과 기념형태가 얼마나 대중성과 보편성, 그리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나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장기지속성을 상실한 채 한 시대의 기념행위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

무장기포지에 대한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역시 무장기포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되, 그것을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은 유연하게 접근하여 다양한 영역과의 접맥이 시도되어야 한다. 즉, 무장기포지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과 기억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문화 요소와의 융합과 결합이 시도되어야 한다.

II. 무장기포지 보존·관리방안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방안으로써 최상책은 우선 사적지로 지정받는 일이다. 사적지 지정은 국가로부터 해당 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공인받고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보존·관리방안이다.

무장기포지는 <<수록>> 등의 기록으로 보아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지가 분명하므로 사

적지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로서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전봉준선생 고택(제298호, 1981년 지정), 황토현 전적지(제295호, 1981년 지정), 우금치 전적지(제387호, 1994년 지정), 황룡 전적지(제406호, 1998년 지정), 장흥 석대들 전적지(제498호, 2009년 5월 11일 지정) 등 다섯 곳이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 및 보존은 철저한 조사와 고증으로 원형 및 범위를 그 본래의 모습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유적 위치 및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문화재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신청에 앞서 무장기포지에 대한 정밀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범위 및 성격 규명은 물론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신청을 한 뒤, 그 다음 단계로 국가 사적지로 신청하는 단계별 접근이 바람직하다. 국가 사적지 신청은 최근 사적지로 인정을 받은 장흥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2014년 이전까지 무장기포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120주년 기념행사가 무장기포지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다음으로 고창군에서 보존·관리방안의 하나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초등학교 사회 및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수록이다.

현행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는 “동학 교도들의 집회가 농민 봉기로 번진 것은 전라도 고부군수의 횡포를 참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일어났기 때문이다. 고부 농민들은 군수를 몰아 내자고 외치며 관아를 점령하고, 관아의 창고를 열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과 탐구>>(6-1)에는 ‘녹두장군 전봉준’에 관한 1쪽 분량의 서술에서 고창에서 태어난 사실이라든가 무장에서 봉기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고부 중심의 동학농민혁명 인식이 지배적이다.

2002년도에 편찬된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역시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농민운동으로 평가 절하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층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욕스럽고 포악함에 봉기한 이후,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을 내세우며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110쪽)”라고 기술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농민운동 차원에서 조병갑의 학정에 대항하여 고부에서 봉기하였다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원인 뿐 아니라 발상지가 잘못 되었다. 그러니 학생들이 고창 무장기포지에 올 이유가 없으며, 설령 와도 혼란스러울 뿐이다.

무장기포지의 교과서 수록은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사적지로 지정받기가 유리할 뿐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 무장기포지가 교수·학습됨으로써 무장기포지의 장소성을 강화하고 고창군의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III. 무장기포지 활용방안

1. 활용 실태

현재 무장기포지 활용은 매년 봄에 개최되는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와 무장읍성 축제’가 거의 유일한다.

그렇지만 아직 ‘무장기포지’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는 낮은 편일 뿐 아니라, 축제에 대한 홍보 마케팅도 부족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 축제가 전라북도, 더 나아가 문화관광체육부가 선정하는 우수 축제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장기포지에 대한 문화원형 발굴과 그에 기초한 축제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무장기포지에 대한 선전과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감층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고정 참가층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이란 장소성과 상징성을 살려, 관련 지자체와 기념사업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요청된다.

그 외에 무장기포지가 적극 활용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고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광상품 실태를 살펴보면, 고창군 당일코스 17개코스 중 동학유적지 코스가 1개 있다. 그러나 고창읍성→관소리박물관→전봉준생가→고인돌→동학농민혁명기포지→학원농장으로 이어지는 동학유적지 코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학유적지 코스라 볼 수 없다. 동학유적지만의 독창적인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

고창군 1박2일 관광코스 7개 코스 중에도 동학은 독자적 코스가 없다. 다만, 선사시대 문화체험코스와 문화유적코스에만 동학농민혁명기포지가 들어가 있을 뿐이며, 전봉준 탄생지는 삽입되지 않았다.

고창군의 체험여행지는 10곳인데, 그 중에서 동학 관련 체험여행지는 없다. 요즘 유행하는 ‘길’을 보아도, 고인돌 질마재 따라 100리길에 모두 4개코스 5개 길(보은길(소금길), 질마재길(국화길), 풍천장어길, 복분자길, 고인돌길)이 있으나, 동학과 연관된 길은 없다.

고창군의 추천관광지 역시 선운사, 고인돌, 미당시문학관, 고창읍성, 무장읍성 등 모두

10개 소개되어 있으나, 전봉준 생가지나 기포지는 누락되어 있다. 무장읍성 설명문에도 동학 관련 사실이나, 매년 봄 무장읍성 축제가 열리고 있는 사실 등이 누락되어 있다.

그밖에 사이버체험관에는 모두 96개 문화관광지에 대한 동영상에 있는데, 그중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봉준생가가 유일하다. 기포지는 누락되어 있으며 무장읍성에 대한 나레이션에도 동학 관련 내용이 한 마디도 없다.

따라서 현재 무장기포지는 축제 외에 사실상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 고창군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2. 활용방향

일반적인 지역문화자원의 활용전략은 ‘시간’과 ‘공간’ 및 ‘기술’과 결합시켜 문화자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동력화하거나, ‘상징화’와 ‘복합화’ 전략을 통해 문화자원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있다. 시간과의 결합은 축제나 이벤트와 같은 특정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고, 공간과의 결합은 문화공간의 장소성을 살려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술과의 결합은 IT(Information Technology)와 CT(Culture Technology)와 같은 새로운 지식·정보기술과 문화자원을 결합시켜 다양한 영역과 장르에서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며, 상징화 전략은 CI개발이나 지역문화 브랜드개발 등이다.

또한 지역문화자원 활용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특성화와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관련 인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만큼, 무장기포지 활용시 특성화와 차별화된 내용이 전제되어야만 활용가치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무장기포지가 비록 과거의 유산일지라도, 그 활용은 현대적인 요소를 적극 수용하여 특성화와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무장기포지의 특성화와 차별화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이란 상징성과 장소성에 역점을 두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시점이 갖는 상징성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정신의 발원지로서 모든 내용을 포용하고 토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장기포지가 동학농민혁명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장소성과 역사적 의미를 확보할 경우 고창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다른 문화관광자원과 융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무장기포지에 대한 몇 가지 활용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장기포지는 교육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무장기포지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정당한 위치와 장소성을 확보할 경우 다양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특히 국사교과서에 수록될 경우 초중고생의 견학코스로 부각되고 가족단위 여행객의 필수 여행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한 사례로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직지가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초등학생과 그 부모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 및 교구 개발과 교육 담당 지역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교과서 편찬 관련 기관과 단체 및 전문가그룹에 동학농민운동(혁명)이 “고창 무장에서 시작”이란 8글자의 수록을 청원할 수도 있다.

둘째, 무장기포지는 역사 체험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무장기포지에서 있었던 일은 시국 논의, 포고문 작성, 깃발과 죽창 만들기, 통문 배포 등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체험요소를 활용한 역사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무장기포지가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현대성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적인 가치와 문화요소를 담아내어, 실용성과 재미 및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장기포지의 내적 가치를 재발견해야만 한다. 단순히 교과서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정신만 가지고서는 현대인과 소통할 수 없다. 보편적 철학, 현대인도 공감할 수 있는 동학사상의 재해석, 이야기가 있는 체험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죽은 자원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그러할 때 현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무장기포지는 문화산업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문화자산은 지역민에게 자기 정체성이나 동질성을 부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인데, 이제는 문화자산을 상품화하고 이를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장기포지는 자원과 연관된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요소들은 곧 문화콘텐츠 원형들으로써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문화콘텐츠는 물론 관광상품 개발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토리텔링화한 무장기포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재구성하여 이야기가 있는 문화로 콘텐츠화하고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체험자나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흥미와 감동을 줄 수 있어 성공적인 집객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무장기포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무장기포지가 보다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화와 아울러 명소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명소화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소 마케팅이 있어야 한다. 특별한 그 무엇이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 만큼 무장기포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체험거리 등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극 홍보해야만 한다.

여섯째, 무장기포지는 다른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활용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주변의 다른 자원과 그룹핑하거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상호 연계하여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고창에는 고인돌, 복분자, 청보리, 선운사 등 주변에 우수한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무장기포지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너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변의 다른 자원, 즉, 문화재, 관광지, 자연경관 등과 연계하여 창조적인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한다.

여덟째, 무장기포지 활용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각 지자체는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유형도 문화축제 기획,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 경관사업, 박람회 및 엑스포 개최, 문화산업 관련 문화콘텐츠사업, 문화재 활용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문화예술사업의 추진은 예산 확보, 행정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는 지역 개발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04년 11월에 신설되어 지역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 업무 중의 하나가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자원의 개발·육성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3. 활용안

◆ 무장기포기념관 건립

2008년에 작성된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전략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의하면, 무장기포지는 기념광장, 기념조형물, 기념비, 당산나무, 솟대, 깃발 등을 주요시설로 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기포 기념관이 누락되어 있다.

그런데 2007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정비기본계획>>에는 무장기포지에 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념관 조성계획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체험형 기념관으로 조성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시발

점이란 역사성과 장소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동학농민혁명테마파크를 무장기포지에 조성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전략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는 여시외봉에 동학농민혁명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표자 생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발전략으로 볼 때 무장기포지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개별여건은 여시외봉이 개발이 용이하나, 향후 활용도와 파급효과 등을 놓고 볼 때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구암마을 개발

무장기포지는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각 지자체는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유형도 문화축제 기획,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 경관사업, 박람회 및 엑스포 개최, 문화산업 관련 문화콘텐츠사업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문화예술사업의 추진은 예산 확보, 행정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

〈표 1〉에서 무장기포지 활용과 연계 가능한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사업, 농림부의 문화마을개발사업, 국가지역발전위원회의 기초생활권개발 계획 등을 꼽을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 대상지역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개발도 이 사업과 연계 가능하다. 또 기초생활권개발계획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한 예로 국토해양부가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문화권 개발계획은 전라남도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으로,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유산의 보존·정비와 활용을 통해 영산강 유역을 종합적인 고대문화와 자연환경의 복합관광지대로 조성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재 정비 및 문화유적 전승,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휴양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6-2015, 사업비는 총 11,301억원(국비 5,304억, 지방비 5,542억, 민자 455억)으로, 사

1) 김효정 외,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149쪽.

업내용은 4개 분야 42개 사업(문화재정비 : 오량동 가마유적 복원·정비 등 9개 사업, 문화유적 전송 : 세계유산 고인돌 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 관광휴양시설 확충 : 관방제림 문화공원 조성 등 16개 사업, 기반시설 확충 : 영산강 강변도로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정부의 지역개발사업 현황

구분	관련법령	관련계획	
		계획명	수립 주체
국토해양부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역균형개발법	광역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 도지사·시장·군수
행정안전부	도시개발촉진법	도시종합개발10개년계획	장관
	오지개발촉진법	오지종합개발10개년계획	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종합계획	시·도지사
	소도읍육성지원법	소도읍육성계획	시장·군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발전계획 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	장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문화마을조성사업	시장·군수
지식경제부	폐광지역특별조치법	폐광진흥지구개발계획	시·도지사
국가지역발전위원회(옛 균형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초생활권개발계획	시장·군수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2007년도 국토업무편람〉〉, 2007, 185쪽 참조.

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지역 개발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 문화콘텐츠 제작, 축제나 이벤트 개최, 문화상품 개발 등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구암마을을 농촌테마마을로 개발시, 무장기포지에 대한 재원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주민과 기포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주민 참여형 유적지 개발, 주민 주도의 유적지 보존 및 관리 등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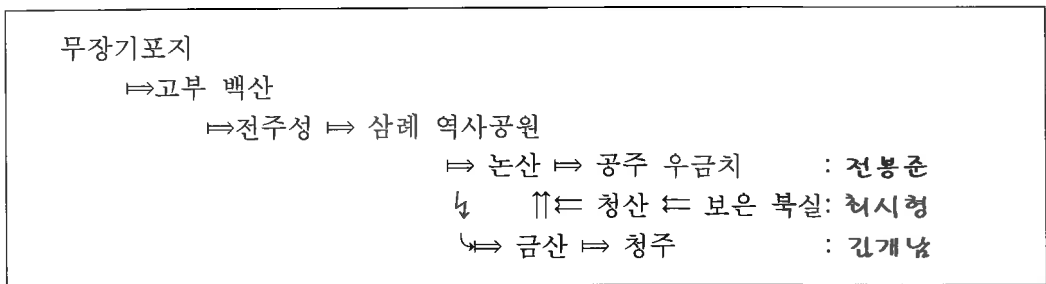
◆ 파랑새 시국토론회

갑오년 3월 무장기포지에서 있었던 일 중의 하나는 전봉준을 비롯한 접주들이 구수마에 모여 시국을 토론하고 거사를 도모한 일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매년 4월 접주회의를 무장기포지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명칭은 파랑새 시국토론회이다.

1박2일에 걸친 시국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사발통문으로 작성하여 정부와 전국 시민단체에 발송한다. 이를 통해 무장기포지를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및 미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분출하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장기포지를 시발점으로 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순례코스 개발

무장기포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었던 만큼, 기포지를 기점으로 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순례코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코스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동학농민혁명 순례코스는 해당 지자체간 공조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고창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공동으로 무장기포지를 시발점으로 한 코스를 개발하여 홍보할 경우 고창군의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될 경우 무장기포지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포지로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순례코스는 다양하게 활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새로운 미래를 여는 '파랑새길'로 상징화하여 걷는 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북 보은군에서는 2010년도에 발로 걷는 동학로를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동학로를 해당 지자체에서 각자 개발하고 그것을 파랑새길로 네트워킹할 경우 지자체간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이라는 장소성과 상징성을 살려 무장에서 출발하여 공주 우금치나 청주, 또는 보은 북실에 이르는 '동학농민혁명 마라톤대회'를 여는 것이다. 이 마라톤대회는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양성과 많은 지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주와 청주 또는 보은을 윤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학생 동학농민혁명 순례길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매년 여름방학 때 전국 대학생 동학농민혁명 순례단을 모집하여 무장기포지에 집결하여 일정한 행사를 가진 뒤 위 코스를 따라 순례하는 방법과, 역으로 각 지역의 순례단이 위 코스를 따라 무장기포지에 집결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 고창군 여행코스 재정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된 여행코스에는 무장기포지를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거의 누락되어 있다. 인터넷 정보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여행코스를 재정비하여 시급히 올려야 할 것이다.

◆ 스토리텔링 공모 및 문화상품 개발

2009년 9월 고창군은 《고창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자료집》을 펴낸 바 있다. 이 자료집에는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활용방안과 몇 가지 사례를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1894愛'는 꽤 완성도가 높은 시놉시스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매년 고창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여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스토리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공모전은 고창동학농민혁명에 국한해서 하는 전략보다 고창군내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되, 동학농민혁명과 연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창의적인 홍보매체 활용

현대의 문화관광자원은 활용도 좋지만, 활용 못지않게 그것을 알리는 작업 또한 중요

하다. 특히 대중이 정보매체의 주체로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도층으로 부상하는 만큼,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블로그와 트위터·페이스북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소통매체를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 이는 고창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젊은 회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무장기포지의 장소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장기포지’ 앞에 반드시 ‘고창’을 넣을 필요가 있다. 고창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인지도가 높고 우수한 관광자원도 많은 만큼, 고창을 앞세워 무장기포지에 대한 장소 마케팅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효과적이고 상호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 합 토 론

[토론1]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토론
박맹수 (원광대학교)

[토론2] 「무장기포 이후 동학농민군 진격로 재조명」에 대한 토론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토론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조법중 (우석대학교)

[토론4]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에 대한 토론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토론5]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
김희태 (전라남도청)

토론 1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토론

박 맹 수(원광대학교)

1. 토론에 앞서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茂長起包)가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금까지 발굴된 모든 1차 사료를 치밀하게 검토하시고, 또한 기존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완성도 높은 탁월한 발표를 해주신 배항섭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토론자 역시 배항섭 선생님의 연구 방법론이나 문제의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만한 이견(異見)은 전혀 없습니다만, 토론자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리고 청중들의 이해를 조금 더 넓힌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 먼저 제 1장 〈19세기 민중운동의 흐름: 민란과 변란〉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지하듯이 조선후기에 빈발하던 민란 가운데 1871년 경상도 영해에서 일어난 ‘이필제란’은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동학(東學)과 연계된 점, 조선후기 수많은 민란 가운데 그 성격이 다른 병란(兵亂)이었다는 점, 경상도의 여러 군현뿐만 아니라 전라도 남원을 포함한 다수의 군현을 망라함으로써 1개의 군현 단위를 뛰어넘어 광범위한 지역에서 참가했다는 점 등등입니다. 토론자 입장에서는 위 세 가지 점 외에도 후일 동학 최초의 교단사 <<최선생문집도원기서>>에서 ‘배도지림(背道之林)’으로 지칭된 동학 조직 내 세력의 문제를 들고자 합니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이들 ‘배도지림’은 한 마디로 초기 동학교단 내 변혁지향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3. 앞의 제 2장과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토론자는 1860년에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시된 동학(東學)이, 조선후기와 같은 변혁기 상황을 맞이하여 그 조직 내에 다양한 세력이 입도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앞의 이필제란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학 교단 내 변혁지향 세력은 1890년대 초반 전라도, 그 중에서도 특히 전봉준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학 창도 초기부터 동학 조직 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1871년 3월의 이필제란은 그 변혁지향 세력이 중심이 된 동학 교단 측의 최초의 움직임이었고, 이어서 1880년대 후반에는 서인주와 서병학을 중심으로 충청도 내에서도 변혁 지향 세력이 광범위하게 입도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다음으로 제 3장 〈척왜양운동의 전개와 거병기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찍이 동학교단의 교조신원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나온 ‘척왜양’ 격문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줄고, 〈동학의 척왜양 운동에 관한 사료에 대하여〉, 〈〈北大史學〉〉 39, 일본 홋카이도대학사학회, 1999 참조)

조사 결과, 교조신원운동 당시 동학 교단이 내건 ‘척왜양’의 기치는 당시 조선사회 전체에 충만해 있던 민중들의 ‘척왜양’ 의식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것으로써, 전봉준이 전라감사에게 제출하는 한편 전라도 각지에 게시했다는 ‘창의문’ 즉 척왜양 격문이 서울을 비롯하여, 경상도 예천, 부산 성문, 충청도 보은관아 삼문 등에도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1892-3년의 ‘척왜양’ 운동을 전라도 중심의 변혁지향 세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던 것으로 이해해 온 기존 연구와는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이 점은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전라도만의 ‘지역적’ 사건인 것처럼 이해해 온 기존 연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 선생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간행되는 천도교(天道敎)를 비롯한 동학계열 교파들의 교단 사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래 동학농민혁명의

불후의 고전(古典)처럼 간주되어 오던 오지영의 <<동학사>>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학계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문제는 비단 <<동학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발표에서 배 선생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천도교창건사>>를 비롯한 동학계열 교파에서 간행된 모든 교단사에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자는 일찍부터 동학계열 교단사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동학계열 교단사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살아남은’ 이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배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6. 끝으로 1893년 3월의 충청도 보은집회에 거의 같은 시기에 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라도 금구 원평집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은집회는 그 주도세력, 개최장소, 개최시기, 일련의 집회과정, 집회개최의 목적(책왜양창의) 등이 명확합니다. 관련 자료도 풍부하며, 지방관 및 조정의 대응 상황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이에 비해 원평집회의 경우는 몇 개의 자료 외에는 집회에 관련된 전반적 내용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보은집회와 금구 원평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쟁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따라서 원평집회의 전모를 명확하게 규명해 내는 일은 동학농민혁명의 전모와 그 성격,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원평집회에 대한 배 선생님의 고견이나, 새로운 사료, 또는 새로운 문제의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2

「무장기포 이후 동학농민군 진격로 재조명」에 대한 토론

문 병 학((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본 토론자가 동학농민군 진격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된 것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수행했던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2000.4. 책임연구원 신순철)을 수립할 때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때 고창군에서 ‘무장기포 이후 동학농민군 진격로’ 설정을 요청했고, 연구팀은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의 관련사료(동학사, 오하기문,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수록, 갑오사기, 석남역사, 양우호선봉일기, 고부민요일기)들을 검토하여 진격로를 상정했다.

그 후 2002년 고창군과 고창문화원, 고창기념사업회는 『기본계획』에서 상정했던 노선은 다른 노선에 표석을 설치했다. 이로써 이른바 ‘東學路’ 2개가 양립하게 되었고, 오늘 제기된 진격로까지 더하면 3개로 늘어난다. 오늘 재조명된 진격로는 2000년 4월 수립된 기본계획 상의 노선과 말 그대로 대동소이하다. 그동안 설정 혹은 논의된 진격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아래의 ㉠㉡㉢진격로에서 주된 공통점은 무엇이고 상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 공통점은 첫째, 구수내에서 출발한다는 점과 사·후포를 경유한다는 점. 둘째, ㉠진격로의 가안은 무장읍을 경유하지 않지만 나머지 모든 진격로는 무장읍을 경유한다는 점이다.

그 상이점은 첫째, ㉠진격로의 초기안과 ㉡진격로는 각각 고창읍 또는 고창 인근을 경유하여 홍덕에 이르지만 ㉠진격로의 가안, 나안과 ㉢진격로는 고창읍 혹은 그 인근을 경유하지 않고 인천강 쪽으로 나가 굴치재를 넘어 홍덕과 사·후포에 이른다는 점. 둘째, ㉠진격로 나안, 초기안, ㉡진격로, ㉢진격로 모두 무장읍을 경유한다는 점. (㉠진격로 가안 무장읍 경유하지 않음.)

기본계획 ①	■ 가안 구수내→만화리→교흥→학전→사신원→원평(운곡저수지, 인천강)→굴치(용흥~중흥~일미장터)→오호리→사, 후포→목우→줄포→고부→백산 ■ 나안 구수내→신대리→무장읍→유도리(교흥 건너편)→학전→사신원→원평(인천강, 운곡저수지)→굴치(용흥~중흥)→오호리→사, 후포→목우→줄포→고부→백산 ■ 초기안 구수내→만화리→무장읍→죽산→풍덕리→고창읍→성두리→흥덕→사, 후포→목우→줄포→고부→백산
표지석 ②	■ 고창군·고창문화원·고창기념사업회 구수내→두암리→만화리→무장읍→교흥→아산교→고인들군→당촌→운양→중흥→사·후포→목우→부안 줄포→고부→백산
재 조 명 ③	■ 재조명 노선 구수내→소속재→과실재→무장읍→하마등→교흥(침금정바위)→월증→꼬령재→사신원→원평(인천강)→굴치(부안면 용산리)→맹감다리(부안 덕흥리)→사·후포→목우→부안 줄포→고부→백산

그동안 논의를 통해 구수내를 출발해서 흥덕과 사포리, 후포리, 줄포를 거쳐 고부에 진입한다는 점은 일치하며, 무장읍 경유에 대한 사항도 ①진격로 가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진격로가 경유하는 것으로 일치한다. 문제는, 동학농민군이 고창읍 혹은 그 인근을 경유했는가, 경유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 의견이 나뉘지고 있다. 각각의 논자들이 ‘고창 경유’ 혹은 ‘고창 비경유’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이처럼 갑오년 3월 동학농민군 진격로에 대한 논의가 각각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고창지역에서 삶을 유지해온 노인분들께 옛길에 대한 증언 취해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 진격로를 재조명한 것은 그 의미가 깊다고 본다. 갑오년 당시와 현재의 도로사정이 크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진격로를 규명하는데 꼭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고창 경유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군이 20일과 21일에 걸쳐 고창으로 이동, 21일은 고창에서 숙영하였다” -『총서』5, 「수록」 1894.3.21. “고창에서 숙영한 동학군이 흥덕을 향하여 이날(3월 22일) 정오 무렵 말을 타거나 걸어서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고 총을 쏘아대며 흥덕 사·후포로 들어갔다. 흥덕에서 하루 머문 동학군은 이날(3월 23일) 부안 줄포로 행하였고...” -『총서』5, 「수록」 1894.3.22. “급보가 날아왔으니 때는 3월 20일 이날 덕흥리 장꾼이 돌아와 말하기를 무장의 동학군 수만 명이 굴치를 넘어 덕흥리를 지났다고 했다. 다음날에는 고창에 모여 점차 서쪽으로 올라와 일부 군대는 정읍에서 고부로 들어가고 일부는 사포로 돌아왔다.” -『고부민요일기』 “고창현감이 멀리 동학군이 지나는 것을 보았다” -진기홍, 『향토사료집』3, 98p) “당촌마을 주위에서 농민군이 점심을 먹는데 새끼줄로 묶어온 죽사발에 음식을 담아먹었다” - 김홍섭 옹의 증언
고창 비경유	“동학군 5~6천명이 인천강을 건넜다 -東學輩五六千名自茂長人川出來” -『林下遺稿』갑오 9월조) “손화중이 동도 수천 명을 불러일으켜 인천강으로 -孫和仲喚起東徒數千自仁川江會于” -『甲午史記』중 “급보가 날아왔으니 때는 3월 20일 이날 덕흥리 장꾼이 돌아와 말하기를 무장의 동학군 수만 명이 굴치를 넘어 덕흥리를 지났다고 했다. 다음날에는 고창에 모여 점차 서쪽으로 올라와 일부 군대는 정읍에서 고부로 들어가고 일부는 사포로 돌아왔다.” -『고부민요일기』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이 단일한 대오를 형성해서 부대를 이동했다고 보지 않는다. 포고문을 공포하고 구수내에서 출발한 ‘혁명본부격’인 본대는 영광이나 무장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빠른 길, 즉 인천강으로 나가 굴치를 넘어 흥덕으로 진격했을 것이라 보지만, 구수내에 집결하지 못한 고창 인근(고수, 대산)의 동학농민군은 별도로 집결하여 흥덕으로 진격하여 흥덕 인근에서 본대와 합류했을 것으로 본다. 그 까닭은 고창과 흥덕 등 각 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을 보다 많이 규합하고, 적의 시야를

흘어놓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분산, 이동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토론자의 이런 생각은 “급보가 날아왔으니 때는 3월 20일 이날 덕흥리 장꾼이 돌아와 말하기를 무장의 동학군 수만 명이 굴치를 넘어 덕흥리를 지났다고 했다. 다음날에는 고창에 모여 점차 서쪽으로 올라와 일부 군대는 정읍에서 고부로 들어가고, 일부 군대는 사포로 돌아왔다.”(「고부민요일기」) 등의 기록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갑오년 3월 동학농민군은 본대와 지역별 부대가 편성되어 이동되었는데, 구수내에서 ‘포고문’을 공포한 ‘혁명본부격’인 본대는 ㉠진격로를 따라 북상했고, 고창 인근의 또 다른 동학농민군 부대는 별도로 집결, 이동하여 3월 22일 사,후포에서 본대와 합류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조명된 진격로와 2000년 4월에 수립된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에 상정된 동학농민군 진격로가 무장기포 후 동학농민혁명 주력부대 이동경로에 부합한다고 본다.

향후, 무장포고 이후 동학농민군의 진격로를 확정하려면 갑오년 당시 무장현과 고창현, 흥덕현 사이의 옛길에 대한 전체적인 보강조사와 함께 보다 폭넓게 관련 사료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수록」이나 「고부민요일기」등에 기록된 “동학군 고창 숙영(경유)” 등에 대한 의문점들이 명료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토론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조 법 중(우석대학교)

신순철 교수께서 발표한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관련 유적에 대한 개관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인물을 기리는 유적이 32개소, 봉기지나 전투지 등의 사건유적이 60개소, 기념물 또는 기념시설이 53개소, 그 외에 기타 관련유적이 60개소를 합해 모두 205곳임을 정리하고 이중 국가 사적 19곳, 지방문화재 31곳 등 총 50곳으로 전체 유적지의 약 25%에 해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적 가운데 순수하게 동학농민혁명에만 관련되어 지정된 유적은 8곳으로 국가 사적은 정읍의 전봉준 고택, 공주의 우금치 전적지, 장성 황룡전적지, 장흥 석대들전적지 등 4곳, 사도지정 문화재는 정읍 만석보 터, 홍천 풍암리 전적지, 나주 금성토평비, 정읍 말목장터 등 4곳이 이에 해당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된 것은 고창지역의 전봉준의 생가 터와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 시작을 알린 무장기포지 등이 이들 사적등 관련 유적에 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의 의미는 앞서 신교수님이 정리한 것처럼 농민군이 전제왕조와 부패한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첫 번째 선전포고를 했던 무장기포의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를 주도한 동학농민혁명 최고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가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의미는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제시한 손화중포의 근거지라는 점은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발표자가 제안한 것처럼 이 지역의 역사적 공간이 하루 빨리 사적 등 국가적 기념공간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창지역의 역사공간 등이 사적 등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행정적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발표자도 지적하셨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발표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1964년부터 사적지의 보호, 보존, 보수, 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원칙이나 기준의 핵심은 사적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authenticity) 및 완전성(integrity), 충분한 보존관리체계의 유지, 원형 중심의 보존, 보수, 복원, 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뿐만 아니라 고창군이 보존하고, 보호되어야 할 문화유적 및 기념물에 대해서는 위의 원칙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고창군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셋째, 단순한 사적의 지정 뿐만 아니라 유적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고창군에서 진행한 관련 조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요?

넷째, 관광적 자원으로서의 활용과 함께 최근 한국근현대사에 나타난 여러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교육적 강조와 연결시켜 전라북도 교과내용과 연결된 교육과정 편성의 방안 등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토론 4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에 대한 토론

이 병 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번에 이상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주제가 막연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는 보완의 의미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균교수님께서는 “무장기포지는 동학농민혁명을 전개시키기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곳이며, 혁명의 의지를 전국에 알리고 본격적인 농민혁명에 돌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항쟁을 전국적인 차원의 장기 지속적인 항쟁으로 전개시켰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하여 무장기포지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이라는데 문화재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토론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교수님께서는 현단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봉기로부터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고 하시고 그 근거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고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제시 하셨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현재 동학농민혁명을 고부봉기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4년 3월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가 함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으로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3월 1차 봉기 즉 무장기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3월

1차 봉기 즉 무장기포이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지정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장기포지의 경우 고창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자료보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을 받은 다음 국가사적으로 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창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유적인 전봉준생가터에 대해서도 문화재지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봉준생가터의 경우, 생가가 복원되어 있으나 논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문화재지정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이교수님께서서는 무장기포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굴 조사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장기포지의 경우 이미 조형물이 들어서 있고 또한 시굴을 한다 하더라도 확인될 수 있는 유구나 유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굴조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교수님께서서는 무장기포지는 현 시점에서 유구나 유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신적인 측면의 위상을 높여서 문화재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장기포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군민의 자긍심과 관심의 제고, 관민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장기포지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정신적인 측면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하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문이 될 수도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현대에 가깝고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기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토론 5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

김 희 태(전남도청 문화재전문위원)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기포의 의의〉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 학술대회 한 주제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김양식,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지정 토론 형식으로 참여 요청을 받았지만, 보존관리와 활용은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고 다른 주제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이나 유념해야 할 부분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마침 전남도청에서 문화재 업무를 보면서 동학 5개소 국가 사적 가운데 2개소[장성 황룡 전적지, 장흥 석대들 전적지]의 국가 지정 문화재 지정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발표자께서는 보존관리 방안으로 국가 사적지 지정과 초등학교 사회 및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 수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활용방안으로 활용실태를 간략히 분석하고 활용 방안으로 교육자원 활용, 역사 체험 자원 활용, 문화산업 자원 활용, 관광자원 활용, 다른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 활용, 정부 정책과의 연계 추진을 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매우 중요한 제안으로서 이번 같은 학술대회 등을 통해 그 가치가 밝혀지고 인식의 지평이 확대되어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역사적 의의 및 가치가 확인되기를 기대해 본다.

첫째,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정되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진행과정과 문화재 지정 지구(사적 및 무장기포 포함)를 연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 비지정 문화재)

- 1878년께 :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1855-1895) 유적 / 사적 제293호 전봉준선생 고택지(全奉準先生故宅址) / 1981.11.28 지정 / 전북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458
- * 1895.3 : 동학혁명 창의문(성명서)을 처음 발표한 무장기포(茂長起包) 유적 / 비지점 /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 옛 무장현 관아 등
- 1894.4. :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을 크게 격파한 곳. 역사상 유래가 없는 집강소에 의한 농민통치의 기반 마련 전적지 / 사적 제406호 장성 황룡 전적지(黃龍 戰蹟地) / 1998.06.10 지정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356외
- 1894. 5. :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을 크게 이긴 곳 / 사적 제295호 정읍 황토현 전적지(黃土峴 戰蹟地) / 1981.12.10 지정 /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2 외
- 1894. 9. :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을 상대로 한 격전지 / 사적 제387호 공주 우금치 전적지(牛禁峙 戰蹟地) /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78-1외
- 1894. 12. :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 /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지(石臺들 戰蹟地)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외

이처럼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의 출생지, 최초 기포지, 4대 전적지 진정 의미가 있다. 그런데 유독 최초 기포지만 문화재 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다. 노력이 부족했던 것일까?

둘째, 문화재 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과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청의 지침,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잘 분석하여 세밀한 자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의 유적과 그 의미를 잘 연계해야 한다. 앞에서처럼 동학농민혁명 전체 진행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현장의 역사, 지리, 향토문화사적인 측면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흥 석대들의 경우,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동학의 문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소위 ‘향론(鄉論)’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근현대 전적지의 특성이 현장의 유구나 구조물 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기록과 구전, 중요하지만 문화재 지정은 현장과 연계되어야 하고 현장의 의미가 찾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장흥 석대들 전적지’ 국가 지정문화재 논의 할 때 석대들 현장에서 함께 한 장흥군청 학예사(장모창)와 함께 몇 시간을 이곳 저곳 다니면서 생각해 낸 것 가운데 하나가 지리적 요충지였다. 결국 이때의 고민이 전 과정에 투영되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실린 석대들 전적지의 가치

가운데 첫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장흥석대들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이자 당시 강진현(현 강진군 강진읍, 국도1호선)과 전라병마절도사영(현 강진군 병영면), 벽사역(현 장흥읍 원도리 방면), 장흥도호부(현 장흥읍성 남문, 장흥읍 동동리), 자율재(현 장흥읍과 용산면 경계의 고개)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동학농민혁명군과 관군사이에 많은 사상자를 배출한 전적지이다. (<http://www.cha.go.kr/문화유산지식/문화재검색>)

최근 추진한 <장흥 석대들 전적지> 자료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역사적인 자료와 더불어 행정적인 자료도 준비를 해야 한다.

장흥 석대들 동학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자료 목록

1.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신청서
2.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 의견서(전라남도지사, 장흥군수)
3. 문화재 실태조사서
4.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5. 지정구역 도면
6. 지정구역 위성사진
7. 지정구역 조서
8. 지정 신청 사유와 전적지 현황
9. 주변 동학 관련 유적
10. 전적지 사진
11. 전문가 조사보고서1(박찬승, 한양대)
12. 전문가 조사보고서2(박맹수, 원광대)
13. 전문가 조사보고서3(홍영기, 순천대)
14. 향토사학자 의견서(위의환, 장흥)
15. 학술조사자료[관련 논문 외]
 - 1) 전남지방의 동학농민전쟁(박찬승)

- 2) 장흥·강진지역의 농민전쟁 전개와 역사적 성격(우윤)
- 3) 일사(日史)와 강진·장흥지역의 동학농민혁명(박맹수)
- 4)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 학살(박찬승)
- 5) 『동학농민혁명과광주·전남』[장흥편](이상식·박맹수·홍영기)
16. 현상변경허가기준(안)
17. 석대들 전적지 보존관리계획서
18. 석대들 전적지 토지매입계획
19.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관련사료
 - 〈일사(日史)〉(박기현, 1864-1914,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06호, 1999.02.26 지정)
 - 〈천도교장흥군종리원(天道教長興郡綜理院)〉(〈천도교회월보〉, 천도교 중앙총부, 1910.8-1939.9, 월간지)
 - 〈교사이문 갑오년 동학이야기〉(김재계, 〈천도교교회월보〉 271, 1934.8)
 - 〈갑오년동학혁명혈사(甲午年東學革命血史)〉(천도교 장흥교구편, 1973년, 필사본)
 - 〈박후의적(朴候義蹟)〉(〈육유집(六有集)〉, 白永直 1841-1912)
 - 〈영희당사집(永懷堂史輯)〉(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김장곤씨 소장)
 - 〈오하기문〉(황현) 12월 12일조(〈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권 292쪽)
 - 〈우선봉일기〉 12월 21일조(〈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4권 228~230쪽, 史芸硏究所, 역사문제연구소·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우선봉일기〉 12월 21일조(〈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4권 231~232쪽)
 - 〈우선봉일기〉 12월 26일조(〈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4권 268~269쪽)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53쪽~54쪽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 6권 59쪽~60쪽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62쪽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 6권 63쪽~68쪽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 6권 75쪽~89쪽
 - 조일(朝日) 연합군의 장흥 주둔일지(〈주한일본공사관기록〉, 〈우선봉일기〉,

〈순무선봉진동록〉, 위 의 환 편)

셋째, 지정의 절차에 있어서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전라북도 기념물] 지정-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72조 ③항에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조사와 심의과정에서는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면 왜 지금까지 도지정문화재도 지정 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곤 했다. 그리고 이해 관계인의 역사 인식의 확장이라는 문제와도 연관된다.

넷째, 용어에 있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흔히 ‘국가 사적지’라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기념물의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이다. 의미가 유사하겠지만, 법률용어인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지정한 역사 유적지’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 사적지’도 문제 될 것은 없지만,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한 분류로서 ‘사적’과는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어느 학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다. ‘국가 사적지’일 경우에 그 ‘국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역사 유적지를 지정관리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독립기념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독립운동 사적지 보고서(14책)가 간행된 바 있다. 그리고 학술발표회도 했다. 여기에서 ‘국가 사적지’ 지정과 보존관리 문제가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대상은 독립운동 사적이라 해 다르기는 하지만, ‘국가 사적지’라는 용어는 이처럼 일반 용어이다.

다섯째, 용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특별 사적’ 제도를 도입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유형문화재만 ‘국보’와 ‘보물’로 2단계 등급 구분이 있다. 다른 분야, 즉 기념물, 민속자료(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등은 그냥 한 단계의 지정 등급만 있다.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기념물), ‘중요민속자료(중요민속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등이다.

일본에서 ‘사적’과 ‘특별 사적’, ‘명승’과 ‘특별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도 종별로 두단계로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 우리의 동학전적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특별 사적으로 지정하여 역사성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의 경우에도 지금은 다른 고인돌과 같이 ‘사적’이라는 같은 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의미 부여를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섯째, 보존 관리 활용에 있어서는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요즘 많이 쓰는 용어인 ‘콘텐츠’건 ‘스토리텔링’이건, 또 유사한 용어라 할 수 있는 ‘산업화’건, ‘자원화’건, ‘상품화’건 간에 ‘창의성’과 ‘상상력’ 만을 따라 가다가는 전국 어디가나 똑같거나 유사해져 버릴 우려가 많다. ‘전북’만의, ‘고창’만의, ‘무장기포’만의, ‘무장기포지’만의 정체성을 차차야 하고 이를 때 빼고 광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이러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련하여 5단계 절차(의미화, 주제화, 디자인화, 정보화, 마케팅화[상품화])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가 있으리라 본다.

제6회 동학농민혁명 학술회의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기포의 의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80-833)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 8번지

TEL. 063-538-2894 FAX. 063-538-2893

www.1894.or.kr

고창군

(585-7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 고창군청

TEL. 063-560-2462 FAX. 063-560-2792

www.gochang.go.kr

출판 · 인쇄

(주)삼광문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수정빌딩 402호

www.jusamkwang.com

제6회 동학농민혁명 학술회의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무장기포의 의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고창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Top
Gooding 고창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KM0000004728

911
아
9
KM4
K